

M15-14/1989.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14

山間마을의 社會經濟構造
錦山郡 南二面 大陽 2里 事例

鄭 起 煥(責任研究員)
吳 乃 元(責任研究員)
許 壇(研究員)
閔 尚 基(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당 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사회의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1985년부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구와 인구, 경제활동,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공간구조, 의식, 가치관 등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례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마을의 경제·사회·정치·문화 및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마을별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을 사회의 한 단위로 설정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제시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1945년 이후 자료와 1985년도 이후 본 연구진이 조사한 기초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적으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많으나 특히, 이 연구사업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해 주신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마을주민들과 군·면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연구를 추진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의 분석·정리·보관 및 발간에 협조해 준 전산실과 편집실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198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영진

목 차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1. 연 혁	1
2. 자연환경	3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1. 가구 및 인구의 변화개황	8
2. 가구의 변화	9
3. 인구의 변화	15
4. 가족구조	20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농지소유 및 이용	25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35
3. 노동력구조와 이용	40
4. 겸업화와 농외활동	48
5. 가계구조	50

제 4 장 사회구조

1. 사회집단	64
2. 사회망과 지도력	89
3. 종교 및 문화활동	96
4. 문화생활 및 에너지이용	104

제 5 장 공간구조

1 . 주민생활권	110
2 . 마을공간구조	114

표 목 차

제 1 장

표 1 - 1 토지종별 현황, 1979	7
-----------------------------	---

제 2 장

표 2 - 1 인구의 변화	9
표 2 - 2 가구수의 변화	9
표 2 - 3 가구구성, 1985 ~ 88	14
표 2 - 4 가구성격의 변화, 1985 ~ 88	14
표 2 - 5 출입농 현황, 1988	14
표 2 - 6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	16
표 2 - 7 인구증감 내용, 1985 ~ 88	16
표 2 - 8 전입자 개황, 1985 ~ 88	17
표 2 - 9 전입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1985 ~ 88	18
표 2 - 10 전출목적	18
표 2 - 11 전출목적에 따른 전출지역, 1988	19
표 2 - 12 전출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19
표 2 - 13 가구원수별 가구, 1985 ~ 88	20
표 2 - 14 가족형태의 변화	21
표 2 - 15 가족분산현황	22
표 2 - 16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23
표 2 - 17 출타목적	23
표 2 - 18 출타지역	24
표 2 - 19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7	24

제 3 장

표 3-1	농지소유규모계층의 변화	26
표 3-2	농지소유구조	27
표 3-3	농지소유 변동가구의 개황	28
표 3-4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29
표 3-5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29
표 3-6	자연부락별 경작규모계층, 1988	29
표 3-7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30
표 3-8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31
표 3-9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31
표 3-10	임차면적의 변화	31
표 3-11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32
표 3-12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32
표 3-13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32
표 3-14	임대가구의 노동력 조건, 1988	33
표 3-15	부재지주의 농지취득경위, 1988	33
표 3-16	임차료 지불형태	34
표 3-17	농지임차료 지불액, 1988	34
표 3-18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38
표 3-19	가축사육두수	39
표 3-20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41
표 3-21	영농종사자수	41
표 3-22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42
표 3-23	영농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43
표 3-24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43
표 3-25	고용노동일수	44
표 3-26	자연부락별 고용노동일수, 1988	45
표 3-27	50명이상 고용농가의 성격, 1988	46
표 3-28	농업노임	46
표 3-29	농기계보유	47

표 3-30	수도작 기계작업 면적, 1988	47
표 3-31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49
표 3-32	겸업 농의 농외활동내용, 1988	50
표 3-33	농업고정자산 투자액	51
표 3-34	농업외투자	52
표 3-35	내구소비재 구입	53
표 3-36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 1988	54
표 3-37	교육비 지출액	55
표 3-38	의료보험 여부	55
표 3-39	의료비 지출	56
표 3-40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988	56
표 3-41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57
표 3-42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58
표 3-43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58
표 3-44	이전수지, 1988	58
표 3-45	호당 평균부채	59
표 3-46	부채규모별 가구수	60
표 3-47	고액부채 가구의 개황, 1988	61
표 3-48	부채없는 가구의 개황, 1988	61
표 3-49	호당 평균 저축액	62
표 3-50	순부채, 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62

제 4 장

표 4-1	이익집단의 조직현황, 1945 ~ 86	66
표 4-2	사회집단의 조직변천과정, 1945 ~ 86	67
표 4-3	위친계의 조직현황, 1986	76
표 4-4	혼사계의 조직현황, 1986	81
표 4-5	친목계의 조직현황, 1986	83
표 4-6	소시오메트리에서 나타난 여론지도자의 특성	94
표 4-7	마을지도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96

표 4-8 종교별 가구분포	97
표 4-9 수호신에게 고사지내는 가구수	98
표 4-10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105
표 4-11 난방 및 취사연료	107

제 5 장

표 5-1 새마을운동의 주요성과	110
표 5-2 통혼권의 변화, 1950 ~ 85	113
표 5-3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개축현황, 1970 ~ 88	116
표 5-4 주택의 향배, 1988	116
표 5-5 유형별 주택수, 1988	139
표 5-6 방수별 주택수, 1988	139
표 5-7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8	140

그 림 목 차

제 1 장

그림 1－1 위치도, 1988	4
그림 1－2 지형도, 1988	6

제 2 장

그림 2－1 명고동의 가구수 변화	10
그림 2－2 두문동의 가구수 변화	11
그림 2－3 삼방의 가구수 변화	12
그림 2－4 유곡의 가구수 변화	12

제 4 장

그림 4－1 대양 2 리의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의 공간적 분포	69
그림 4－2 사회망	90
그림 4－3 명고동의 사회망	91
그림 4－4 유곡의 사회망	91
그림 4－5 두문동의 사회망	92
그림 4－6 대양 2 리의 지도력 구조	95

제 5 장

그림 5－1 시장권	111
그림 5－2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113
그림 5－3 명고동의 주거 공간, 1988	118
그림 5－4 명고동의 주거 공간, 1950	119

그림 5-5 명고동의 주택배치, 1988	120
그림 5-6 명고동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21
그림 5-7 개양골의 주택배치, 1988	122
그림 5-8 개양골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23
그림 5-9 도룡골의 주택배치, 1988	124
그림 5-10 도룡골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25
그림 5-11 두문동의 주거 공간, 1988	126
그림 5-12 두문동의 주거 공간, 1950	127
그림 5-13 두문동의 주택 배치, 1988	128
그림 5-14 두문동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29
그림 5-15 유곡의 주거 공간, 1988	130
그림 5-16 유곡의 주거 공간, 1950	131
그림 5-17 유곡의 주택 배치, 1988	132
그림 5-18 유곡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33
그림 5-19 삼방의 주거공간, 1988	134
그림 5-20 삼방의 주거 공간, 1950	135
그림 5-21 삼방의 주택 배치도, 1988	136
그림 5-22 삼방의 건축물 증가, 1970 ~ 88	137
그림 5-23 A형주택	141
그림 5-24 A형주택의 변형	142
그림 5-25 B형 주택	143
그림 5-26 C형 주택	144
그림 5-27 새마을회관 및 창고, 1988	145
그림 5-28 도로 및 농로망, 1988	146
그림 5-29 명고동의 간이상수도망, 1988	148
그림 5-30 명고동의 하수도망, 1988	149
그림 5-31 두문동의 간이상수도망, 1988	150
그림 5-32 두문동의 하수도망, 1988	151
그림 5-33 유곡의 간이상수도망, 1988	152

그림 5－34 유곡의 하수도망 , 1988	153
그림 5－35 삼방의 간이상수도망 , 1988	154
그림 5－36 삼방의 하수도망 , 1988	155
그림 5－37 대양 2리의 농경지 분포 ,1988	158
그림 5－38 명고동의 농경지 분포, 1988	159
그림 5－39 두문동의 농경지 분포, 1988	160
그림 5－40 유곡의 농경지 분포 ,1988	161
그림 5－41 삼방의 농경지 분포 ,1988	162
그림 5－42 종교문화공간 ,1988	164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1. 연 혁

대양 2리는 忠淸南道 錦山郡 南二面에 속해 있는 행정리의 하나로서 1914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당시 남이면의 대양리, 명고동, 두문동을 大陽里로 통합했다가 원대양을 대양 1리로, 명고동과 두문동을 대양 2리로 분할했다. 금산군은 1896년에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가 1963년에 다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남이면은 현재 10개 법정리와 20개 행정리에 자연부락수는 52개에 달하고 있다. 대양 2리는 남이면의 남쪽 끝에 위치하는 오지마을로서 금산읍에서 22km, 남이면 소재지인 하금리에서는 4km의 거리에 있다.

마을은 명고동, 두문동, 유곡, 삼방 등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마을勢가 큰 명고동은 이 마을에서는 “울고지”라고 불리워하는데 명고동 내에는 울고지 이외에도 “도룡골”, “개양골”이라고 별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두 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유곡은 “벼등골”이라고도 불리워지며, 삼방과 두문동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 4개 자연부락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산재되어 있어 명고동과의 거리는 두문동이 2.7km, 유곡이 1.5km, 삼방이 1km 정도 된다. 이들은 모두 해발 25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하며, 두문동과 명고동은 분지의 형태로 비교적 넓으나 유곡, 삼방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부락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두문동과 명고동은 전통적으로 산제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 당산나무나 산제의 대상인 소나무 등의 수령이 200년에서 4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

측된다. 삼방과 유곡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상들이 120 ~ 150년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양 2 리의 4개 자연부락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각기 하나의 독자적인 마을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마을세를 유지하는 독립적 취락단위였다. 마을규모면에서 해방직전까지 두문동은 70여호, 명고동은 50여호, 유곡과 삼방이 각각 20여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4개 부락이 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부락이 산촌마을로서 가족 노동력만 있으면 주위에 흩어져 있는 산지를 화전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두문동은 전북 진안군 주천면 일대에서 금산읍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예전에는 주막이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한다.

이러한 입지환경적 특성으로 이 마을에는 외지에서 화전경작을 위해 정착한 사람이 많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이들 마을은 씨족구성도 잡다하여 반상관계도 존속하지 않았다.

명고동과 두문동은 별개의 자연부락으로 있으면서 품앗이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협동이 각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졌다. 6.25 전까지만 해도 두마을은 별개의 두례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물기구도 4개 부락이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단위로 풍물치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빨치산의 출몰이 심한 이유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인근 대양 1리와 역평리 전 가구가 소개되었다가 (1951. 1.4 읍력) 1년 이상 지난 뒤 주민들이 돌아와 재정착하게 되었고 이 때 귀향하지 않은 가구가 상당히 있으며 생활고 등으로 인해 두례나 풍물을 비롯한 많은 민속놀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 2리는 외지와의 접근도가 불량하여 토속적 신앙이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명고동과 두문동은 아직도 매년 읍력 정월 초이틀날에 산제를 각각 지내고 있으며, 마을주부들이 용왕제(정월), 영등할머니제(2월), 초파일 행사(4월), 고사(10월), 동지제(11월) 등을 지내는 집이 많고 성주신, 조왕신, 삼신 등 家神을 섬기는 가구도 많다.

2. 자연환경

가. 지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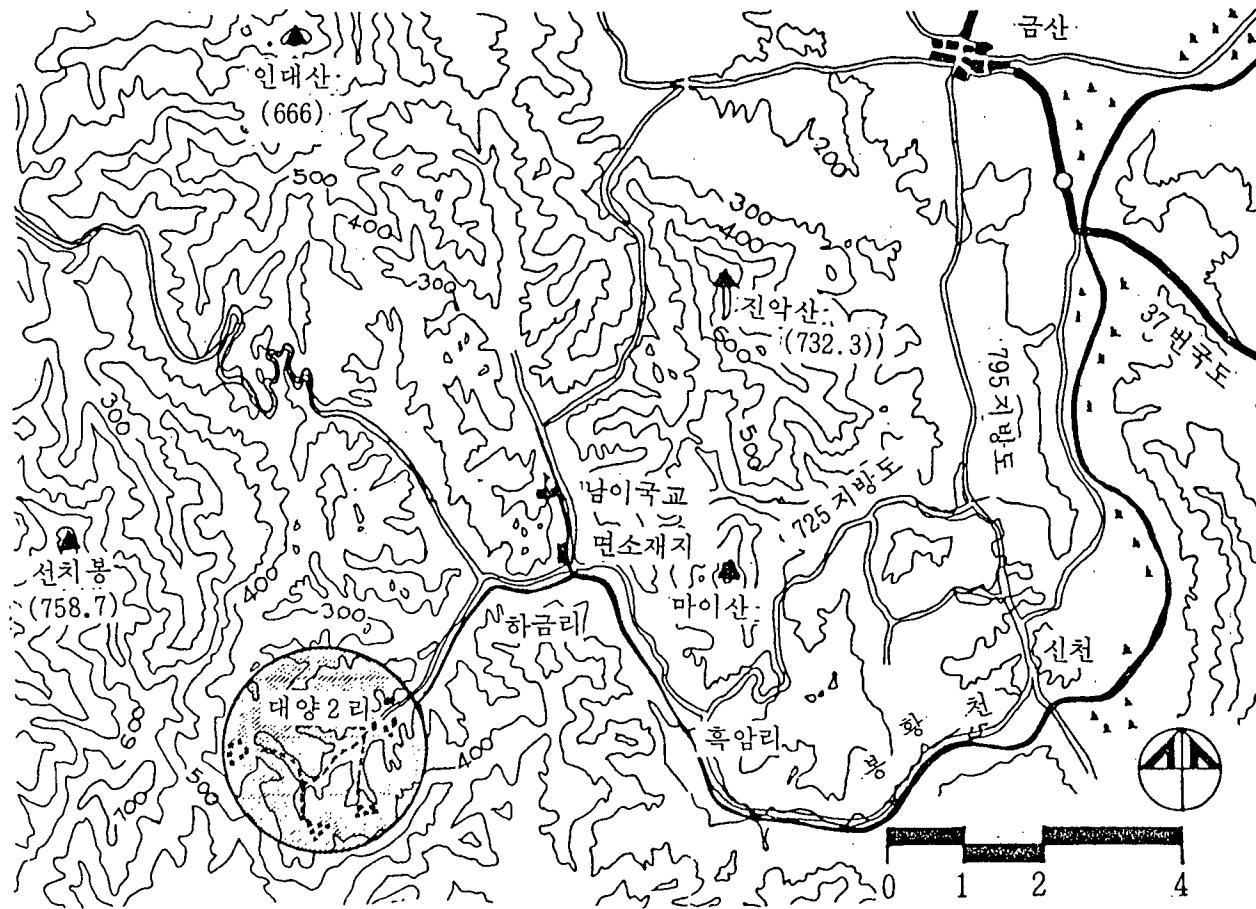
조사마을이 속해있는 남이면은 금산군 10개 읍면의 하나로, 그 지세가 금산군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는 금산군 남일면과, 西로는 전북 원주군 설천면과, 南은 전북 진안군 주천면과, 北은 금산읍, 진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양 2리 는 남이면의 여러 계곡 중의 하나에 위치하며, 마을 뒤로 해발 550 ~ 700 m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두문동은 고개 너머로 전북 진안군 주천면의 무릉리와 인접하여 통혼 등 많은 사회, 경제적 교류가 있다.

금산읍에서 이마을에 도착하려면 면 소재지인 하금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데 그 경로는 세가지이다. 하나는 금산에서 725번 지방도를 타고 석동과 삼거리를 지나 하금리로 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795번 지방도를 통해 신천과 흑암리를 거쳐 하금리로 오는 것이다. 이 두 길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로서 마을주민들이 금산에 오갈 때 이용하는 길이다. 이 외에 지름길로서 상금리를 거쳐 하금리로 오는 고갯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예전에 남이면과 금산읍 간의 보행도로로 많이 이용되었던 길이나,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별로 이용않게 되었다. 이후 1986년 도에 도로가 확장되어 새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낙석의 위험이 있으며, 주변에 취락이 없어 아직은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출입은 택시나 봉고차 등을 이용한 급한 용무가 아니면 거의 없다.

금산읍에서 하금리까지는 버스가 매일 20여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3대가 1981년부터 대양 2리까지 운행되고 있고, 그 중 1대는 두문동까지 운행하여 1박하고 새벽에 출발한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을 때에는 하금리까지 4 km를 걸어나가 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금산에서 볼 일을 보고 귀가할 때, 또는 학생들의 귀가시에는 이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시간이 맞지 않아 하금리에서 50분이상 걸어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교통이 두절되기도 한다. 이 길은 원래 소로길이었으나 1968년경과 1974년에 4 m길로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곡과 삼방은 마을입구까지는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으나 몇몇 주택은 경사가

그림 1 - 1 위치도, 1988



급한 곳에 위치하여 경운기 진입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하금리에 미니버스 2대가 면내를 운행하고 있어 용무가 급한 주민들은 이 미니버스를 대절하여 이용하고 있다. 1988년 현재 이 버스의 요금은 하금리에서 명고동까지가 2,000원, 두문동까지 4,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나. 지형조건

남이면은 임야율이 85.2%인 반면 경지율이 10.7%에 불과한 산간지역이다. 면내의 진악산(732m)과 마이산(627m) 등의 고봉과 전라북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준령들로 인해서 남이면은 깊은 계곡을 이루어 봉황천을 흐르게 한다. 따라서 남이면은 면 중앙을 관통하는 봉황천을 중심으로 하천변에 분포된 농경지를 따라 취락이 분포하며 대양리도 봉황천의 한 지류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대양 2리 앞을 흐르는 봉황천의 지류는 두문동의 병풍처럼 둘러쳐진 준령사이 계곡에서 발원하여 흐르며 그 양안에 토박한 전답을 좁고 길게 늘어 놓리고 있다. 따라서 대양 2리의 전답들은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다. 급한 경사면에 분포된 논밭은 표토가 유실되어 대부분 자갈섞인 사양토를 이루며 그 결과로 비옥도가 떨어지고 보수력도 낮다. 또한 고지대에 입지한 경지들은高峰들로 인해서 일조시간이 평지보다 짧아 농작물 생육에 불리하다.

대양 2리 하천은 급경사지를 흐르기 때문에 장마철 폭우 등이 쏟아지면 급류를 이루어 농경지 훼손이 심하다. 따라서 지적도에 나타난 하천변의 작은 필지들은 자주 그 모습이 바뀐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대양 2리 주민들은 하천제방 중에서 급류의 피해를 받기 쉬운 지점을 석축이나 세멘트로 쌓아 급류에 의한 제방훼손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대양 2리는 임야가 50.1%에 쫒은 14.6%에 불과하며 田은 31.7%인 산간전작지대이다. 이 마을의 토지 종별현황은 <표 1 - 1>과 같다.

한편, 이 마을의 4개 자연부락 중 두문동의 표고는 300~350m, 유곡과 삼방은 이보다 약간 높아 표고 350에서 400m정도에 자리잡고 있고 명고동은 250~270m 정도의 표고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 2 지형도, 198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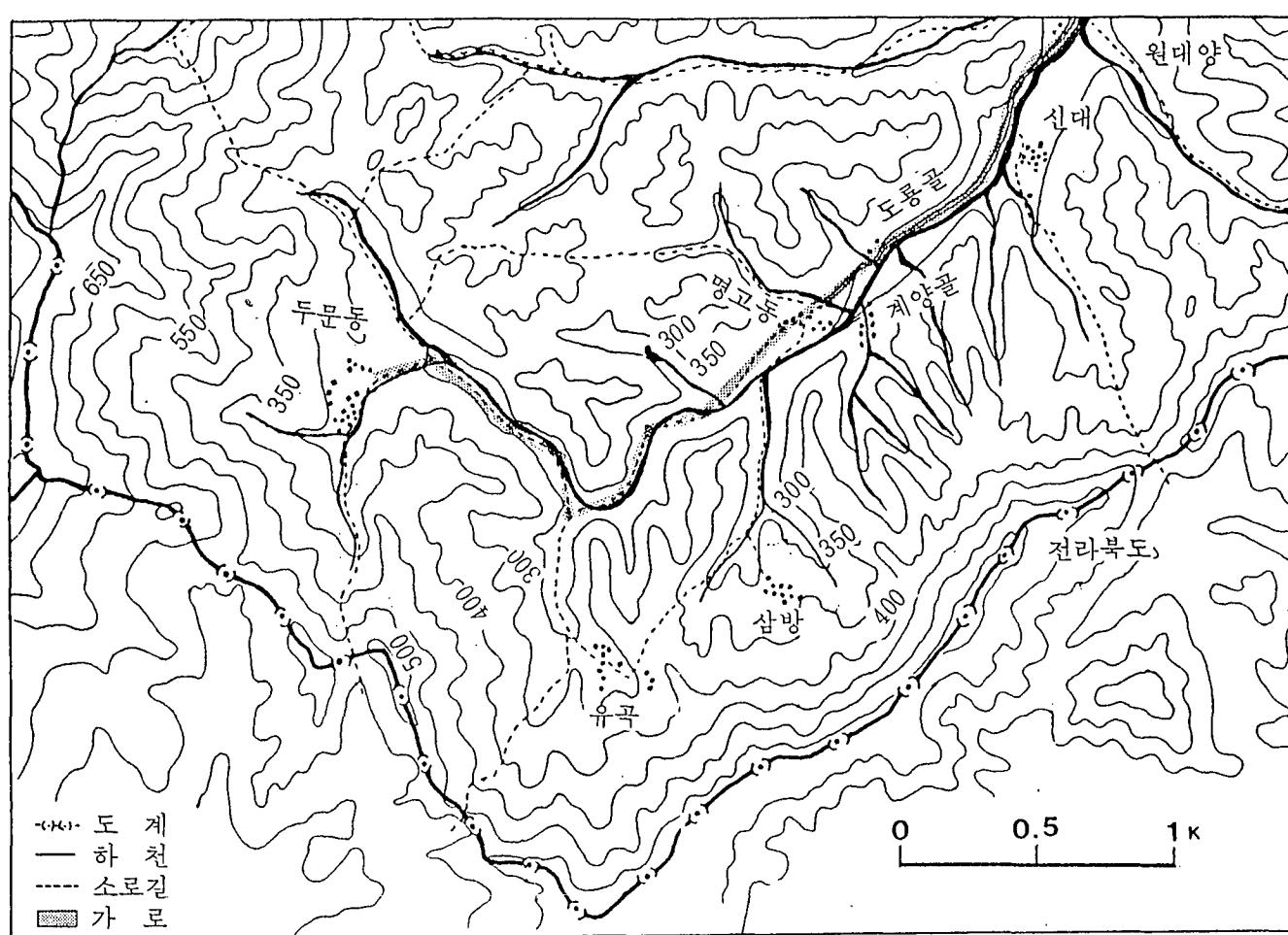


표 1 - 1 토지종별 현황, 1979

단위 : m^2 , %

	합 계	전	답	임 야	기 타
면 적	120,638	38,300	18,000	60,398	3,940
%	100.0	31.7	14.9	50.1	3.3

자료 : 남이면세 일람, 1980.

다. 기후와 농업조건

금산군의 1987년 평균기온은 11.6°C 로서 대전이나 부여·논산 등지보다 낮다. 또한 여름철 최고기온은 33°C , 겨울철 최저기온은 -17.4°C 로서 대전지방보다 여름철 기온이 낮고 겨울철도 더 춥다. 이와같이 금산군의 기온이 동일 위도상의 타 지역보다 낮은 것은 금산군이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양 2리는 금산읍보다 더 높은 고지대의 산록에 위치하기 때문에 금산읍보다 기온이 더 낮다.¹⁾ 이와 같이 대양 2리의 여름철의 저온은 벼농사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되고 있으나 반면에 여름채소 재배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대양 2리에서는 1986년부터 여름채소재배가 시도되었고 1987년에는 약 3ha의 경지에 여름배추가 재배되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양 2리 특산물 중의 하나는 인삼이다. 인삼재배는 8.15 전후에 금산읍내 주민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마을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현재는 17,000여평의 논·밭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1) 대양 2리에서 별도로 기온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온도의 격차정도는 정확히 알수 없다. 그러나 대양 2리에서는 여름철 배추재배가 가능한 반면 바로 아래 마을 대양 1리에서는 재배가 힘들며 금산읍에서는 여름철 배추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름철 기온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1. 가구 및 인구의 변화개황

대양 2리의 가구 및 인구수는 해방이후 세 차례의 계기에 의해 크게 줄었다. 첫번째는 6.25 전쟁중 국군에 의한 주민소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 재정착하지 않고 완전 전출한 가구가 많아 가구 및 인구가 크게 줄었다. 두번째로 60년대 후반에 실시된 정부의 화전정리 사업으로 많은 가구가 이 마을을 떠났다. 특히 두문동은 화전을 일구어 오던 사람들이 많아 이 마을의 가구·인구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째로 한국농촌사회가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촌에 의한 감소이다. 이는 70년대 이래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해방후 135호 정도에 달했던 가구수는 현재에는 50호에도 못미치는 46호로 감소되었다. 현재의 46호 이외에 이 마을에는 4호의 출입경작 가구가 있다. 이들은 대전 등 대도시로 이촌한 가구들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도시로 나가 살다가 봄철 못자리 때부터 다시 입촌하여 여름 한철 농사를 짓는 과도기적 이촌 가구들이다.

가구변동에 비해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하다. 1950년대의 인구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75년도의 상주인구 조사결과는 이 마을 인구가 523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에는 1975년 대비 54.1%로 줄었고, 1988년에는 1975년 대비 28.5로 줄었다. 1950~70년대의 인구감소는 주로 가구이동에 의한 감소로 나타났지만 1970년

대 이후는 가구이동보다는 단신이촌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 1 인구의 변화

연 도 별	인 구	비 율
1975	523 명	100.0 %
1981	283	54.1
1988	149	28.5

2. 가구의 변화

가. 가구수의 변화

대양 2 리의 가구수는 해방직후부터 꾸준히, 그리고 급격한 속도로 감소해왔다. <표 2-2>를 보면 해방직후의 135 호에서 '89년 현재 46 호로, 해방직후의 34 % 수준으로 가구수가 감소했다.

자연부락별로 보면, 명고동은 1960년대말까지 규모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두문동의 경우는 해방직후의 61 호가 50년대말에 24 호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표 2 - 2 가구수의 변화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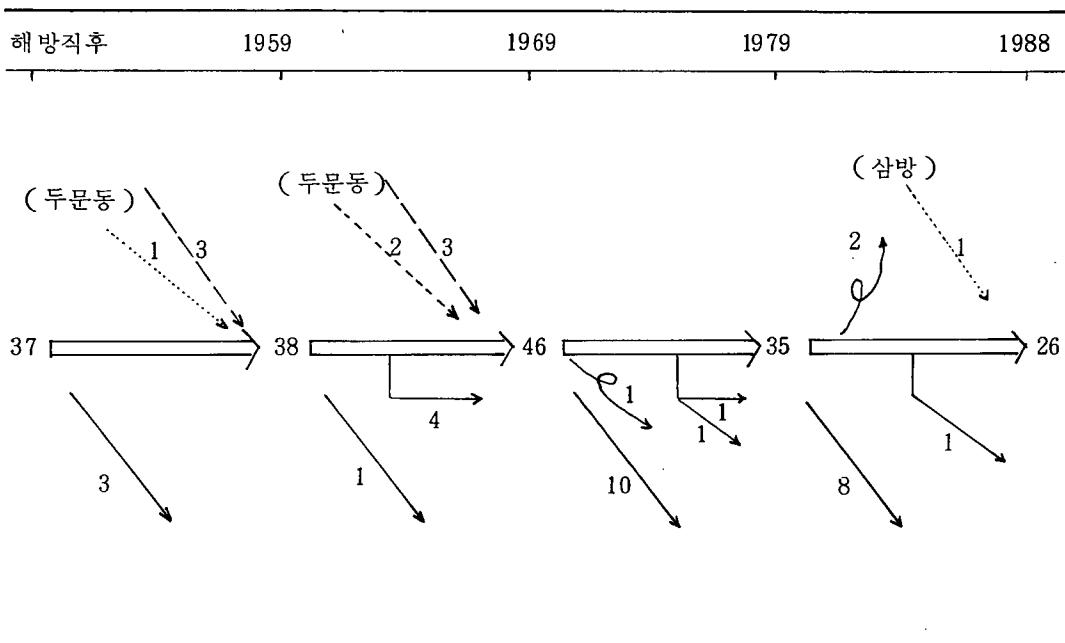
구 분	해 방 직 후	1959	1969	1979	1988
명 고 동	37	38	46	35	26
두 문 동	61	24	23	19	9
삼 방	15	15	17	11	5
유 곡	22	14	16	9	6
계	135	91	102	74	46

주 : 가구수의 변화는 센서스자료,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그리고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과의 면담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일단 재구성해본 것이며, 불확실한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삼방은 60년대말까지 가구수를 큰 변동없이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89년에는 5호가 남아있다. 유곡은 해방직후의 22호에서 점차 감소하여 6호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구수 변화의 내용을 자연부락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1>은 명고동의 가구수 변화내용이다. 이를 보면 50년대에

그림 2-1 명고동의 가구수 변화

단위 : 호



- 가구수변동, → 마을외 전출, —→ 마을내 전출, ---> 마을외 전입,
- 마을내 전입, ↗→ 단절, ⌂→ 분가, ⌂→ 분가후 전출, ⌂→ 전출후 전입,
- ⌂→ 전입후 전출

- 전입년대가 불확실한 가구는 모두 해방직후의 가구수에 포함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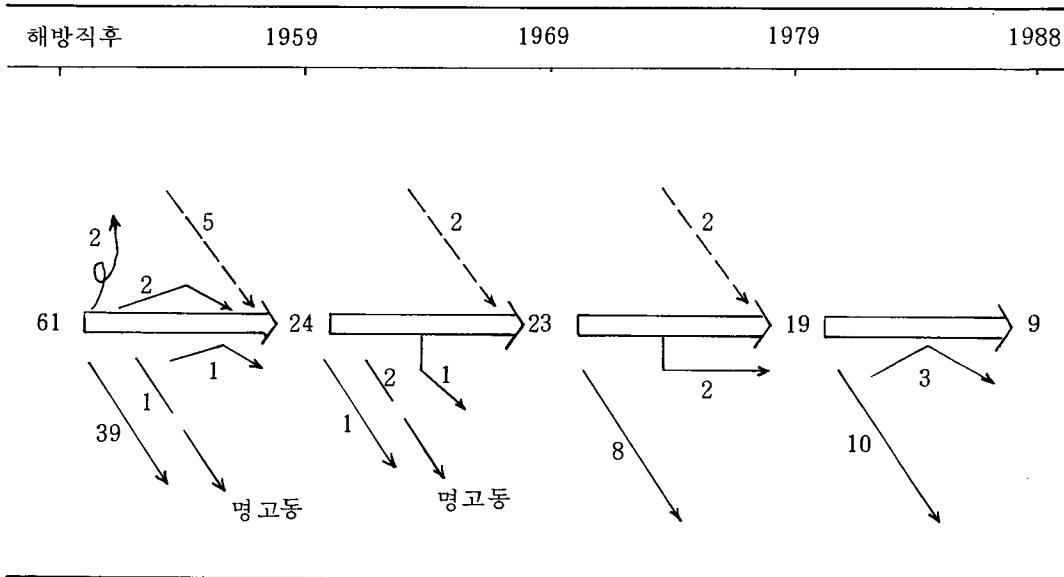
는 3호가 전출하고 3호가 전입하였으며, 두문동에서 1호가 마을내 전입(현재 20번 가구)하여 전체적으로 1호가 늘어났다. 60년대에는 전입 3호에 분가 4호, 그리고 두문동에서 2호가 마을내 전입(현 16번, 25번가구)한 반면 전출은 1호로, 총 호수는 8호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10호가 대거 전출하게 됨으로써 10년간에 46호에서 35호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어 8호가 전출, 2호 단절, 1호 분가전출하였다. 반면 1호가 삼방에서 전

입(현 22 번가구) 함으로써 88년 현재는 26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방직후의 70% 수준이다.

두문동의 가구수 감소는 매우 두드러져 급격히 쇠퇴하는 부락이다. 해방직후엔 61호가 확인되었으나 1950년대말에 24호가 확인됨으로써 무려 61%(37호)가 감소되었다. 내용상으로는, 마을외 전출이 39호, 마을내 전출 1호, 단절 2호이며, 5호가 마

그림 2-2 두문동의 가구수 변화

단위: 호



을외에서 전입하였고 2호는 전출후 전입, 1호는 전입후 재전출하였다. 두문동의 경우는 6.25로 인한 주민소개작전 이후 많은 가구가 살던 곳을 떠나버린 것이 이 시기 가구격감의 주요인이 되었다. 마을외에서 전입한 5호중 1호는 반공포로로 1970년대에 전출하였고, 3호는 수년 뒤인 1960년대초에 모두 전출하였다. 1960년대에 두문동의 가구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1970년대 들어서 8호가 전출하였고 1980년대에는 다시 10호가 마을외부로 전출함으로써 1988년 현재에는 9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방직후와 비교해보면 15%수준에 머무름으로써 대양2리의 전체 가구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삼방은 해방후에도 15호로 소규모의 자연부락이었는데 1960년대 말까지 가구수 규모를 큰 변동없이 유지하다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 11호가 마을외로 전출하고 1호가 명고동으로 전출함으로 인해 1988년 현재는 해방직후의 3분의 1인 5호만이 남아 있다.

유곡에는 해방직후 22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 말까지 9호가 전출하고 2호가 전출후 재전입, 1호 분가로 인해 14호로 감소되었다.¹⁾ 1960년대 말

그림 2-3 삼방의 가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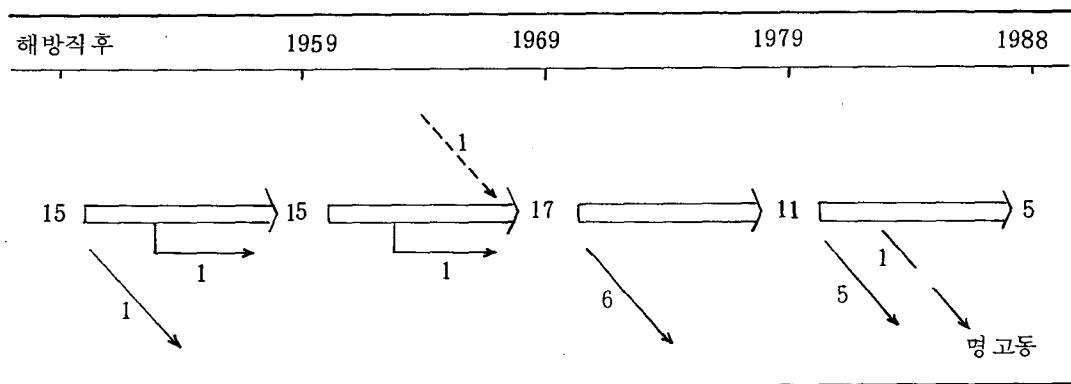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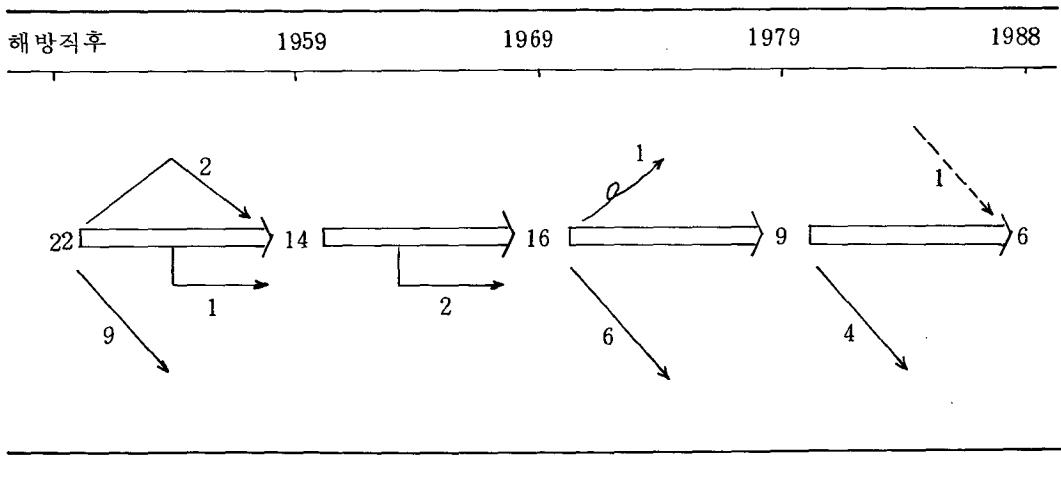


그림 2-4 유곡의 가구수 변화



1) 유곡이 삼방에 비해 이 시기에 많은 가구감소가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자료의 보완으로 해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까지는 전출가구 없이 분가만 2호 있었으나 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각각 6호와 4호가 전출함으로써 마을규모가 다시 크게 줄어들었다. 1989년 현재에는 6호로서, 해방직후의 27% 정도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대양2리의 4개 자연부락별로 가구수 변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6.25 전쟁으로 인한 주민소개와 그 이후의 재정착 가구의 감소로 1950년대 말까지 가구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두문동과 유곡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이 마을에도 불어닥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량이촌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가구수 감소가 현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까지 지속되어 나타났고, 명고동을 제외한 3개 자연부락은 10호에도 못 미치는 소부락으로 위축되었다. 특히, 이 마을들은 장년층 이상의 부부가족으로 구성된 2인가구가 많아 가구수의 지속적 감축이 예상되어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나. 가구의 변화내용(1985~88)

대양2리의 1988년 현재 총 가구수는 46호로서,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85년도에 비해 4호가 감소하였다. 여기에 산간마을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출입농가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가구구성을 보면 농가가 41호로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1985년 이래 그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비농가는 5호로 특이하게는 비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가구는 그 동안 한 가구도 없었다. 이는 대양2리 내에서 비농업에 해당하는 직업이 존재할 뚜렷한 기반이 없고, 도시나 읍, 면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비농업에 종사하기에는 교통불편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1985년이래 감소된 4호의 농가는 가구전출이 3호이고, 소 1마리 사육하는 이외에 농사가 없었던 실질적인 농업노동자 가구 1호가 농가에서 농업노동자 가구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농업노동자 가구 1호는 전출하여 전체적으로 1985년에서 1988년의 3년간 4호가 전출하였다.

이 마을은 또한 전입가구가 전혀 없어 가구성격의 변화도 내부적인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다.

한편 대양2리에는 이촌의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가구들로서 출입농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농지의 판매나 임대가 여의치 못하여 봄, 가을의 농번기에만 이 마을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표 2-5>는 조사시점인 1985년이후 출입농가들의 현황이

표 2-3 가구구성, 1985~88

구 분	1985	86	87	88	1985/88 증감
농 가	45(90.0)	43(87.8)	41(89.1)	41(89.1)	△ 4
비 농 가	5(10.0)	6(12.2)	5(10.9)	5(10.9)	-
임 대 농	3	3	3	3	-
농업노동자	1	2	1	1	-
비농업가구					-
기 타	1	1	1	1	-
계	50(100.0)	49(100.0)	46(100.0)	46(100.0)	△ 4

표 2-4 가구성격의 변화, 198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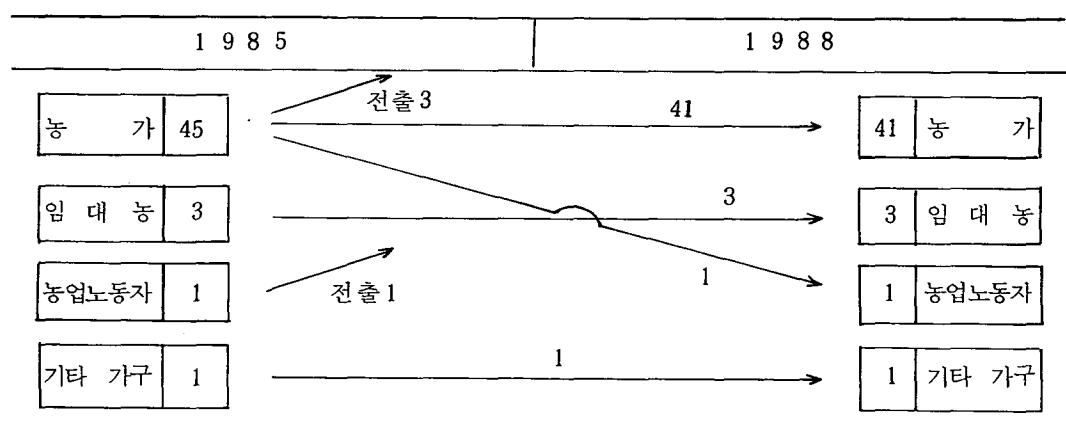


표 2-5 출입농 현황, 1988

가구번호	가구주연령	주 거 주 지	가 구 원 수		비 고
			주 거 주 지	대 양 2 리	
30	53	대 전	8	2	
49	61	서 울	2	2	
52	63	금 산	5	2	
54	72	금 산	1	1	
55	71 ¹⁾	대 전		2	1986 전출

1) 전출 당시의 연령.

다.

이들 중 55 번 가구는 1982년부터 대전에 살고 있는 아들을 따라 이주한 뒤 농번기에 들어와 농사를 짓다가 1986년에 경영주 자신의 노령화로 영농을 포기하고 농지를 임대한 뒤 완전히 전출하였다. 나머지 4호는 1988년 현재까지 출입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3. 인구의 변화

가. 인구수 및 인구구성

대양 2리의 인구는 1988년 말 기준으로 149명으로서 1985년 말 이후 3년간 총 32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6.3%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1986년에서 1987년의 1개년 사이에 무려 27명이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이와 같은 큰 폭의 인구감소가 있었던 원인은 가구전출이 3호(16명)에 달했기 때문으로 가구전출이 단신전출 12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를 연령별로 보면, 0~9세와 40~49세층에서 가장 많고 10대와 20대에서도 6, 7명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0~9세의 경우 이 마을에서 출생인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인원이 많은 것은 이들이 취학을 시작하면서 교통과 교육 등에서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면 지역의 국민학교 보다는 금산이나 대전 등의 지역으로 나아가 취학하거나 이미 이들 지역에서 취학 중에 있는 형제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전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남이면에 중학교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산 등지로 유학하고자 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대 후반과 20대에서는 중등교육이 끝난 뒤 이촌하여 농사를 계승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40대에서 인구감소가 높은 것은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 연령상승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1985년도의 32.6%에서 3년사이에 4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나. 인구증감과 이동

인구증감의 내용을 보면 3년 사이에 전입인구가 19명, 전출인구가 55명으로 그

표 2-6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85	86	87	1988	1985/88 증감
0 ~ 9	34(18.8)	33	27	24(16.1)	△ 10
10 ~ 19	17(9.4)	18	8	11(7.4)	△ 6
20 ~ 29	26(14.4)	26	21	19(12.8)	△ 7
30 ~ 39	15(8.3)	16	16	16(10.7)	1
40 ~ 49	30(16.6)	27	21	19(12.8)	△ 11
50 ~ 59	18(9.9)	22	22	21(14.1)	3
60 ~ 69	25(13.8)	22	26	28(18.8)	3
70 세 이상	16(8.8)	19	15	11(7.4)	△ 5
계	181(100.0)	183	156	149(100.0)	△ 32
50 세 이상 비율	32.6 %	34.4 %	40.4 %	40.3 %	-

표 2-7 인구증감 내용, 1985~88

		1985/86	86/87	87/88	85/88
사회적 증감	전 입 (a)	9	5	5	19
	전 출 (b)	14	31	10	55
	순증감 (a - b)	△ 5	△ 26	△ 5	△ 36
자연증감	출 생 (c)	5	2	2	9
	사 망 (d)	-	3	2	5
	순증감 (c - d)	5	△ 1	-	4
총 증 감		-	△ 27	△ 5	△ 32

차이에 의한 감소가 36명이나 되고, 출생과 사망의 차이로 인한 자연증감은 증가 4명이다.

전입자 19명의 전입이유를 비롯한 전입자 개황은 <표 2-8>과 같다. 여기서 이들의 전입이유를 보면 순수히 영농에의 종사를 위해 전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전입해 들어와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인 2명을 포함하여 이

표 2-8 전입자 개황, 1985~88

가구 번호	경영주와 의 관계	성	연령	전 입 전		전 입 이 유	전 입 연도	비 고
				직업	거주지			
4	처	여	22			결혼	88	
5	딸	여	25				86	'87 출가
	아들	남	23	군 인	진 도	군 제대, 복학대기	87	
	아들	남	20	회사원	대 전	방위근무	88	
	며느리	여	24			결혼	88	
7	경영주	여	37	식당종업원	금 산	시모 병간호	88	
17	처	여	57	무 직	대 전		87	
20	자	남	29	회사원	대 전	실직	87	'88 대전 구직 전출
22	자	남	21	운수업	대 전	방위근무	88	
23	자	남	19	학생	대 전	입대준비	86	'87 군입대 전출
28	자	남	24	회사원	수 원		86	
	며느리	여	20					
31	아들	남	11	학생	금 산		86	'87 취학 전출
	딸	여	16	"	"		86	'87 동생 뒷바라 지 위해 전출
32	아들	남	21	공원	수원	생활고	87	
40	아들	남	28	면직원	금 산	전보발령	87	'88 분가
44	모친	여	69	무직	대 전		86	'87 손주 뒷바라 지 위해 전출
	아들	남	13	학생	대 전	취학지 변경	86	'87 취학 전출
	딸	여	11	"	"		86	"

러한 경우는 6명일 뿐이다. 군 복무를 위해 전입한 경우는 3명이며, 7번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전입하여 농사를 짓게 된 경우이다. 5번의 23세 아들은 군 제대후 복학을 위해 전입한 경우인데 학비마련이 안되어 휴학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31번과 44번 가구는 취학을 위해 혹은 취학지변경을 위해 잠시 전입했다가 다시 이듬해 전출해 나가거나 그들을 따라 뒷바라지를 위해 전입, 전출하는 경우였다. 이 밖에 결혼이나 도시에서의 구직을 위해 일시 전입했다가 바로 전출해 버리는 경우, 그리고 직장변동에 따라 전입, 전출한 인원이 각 1명씩 있었다.

이들 전입자의 연령을 보면 20 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 대로, 젊은층에서 가장 빈번한 전입을 보이고 있었고, 성별로는 비슷하였으나 고연령층은 모두 여성들이었다.

1985 ~ 88 3년간의 전출자는 모두 55 명인데 그 중 가구전출은 4 호로 모두 18 명이다. 따라서 가구전출 18 명과 분가전출 3 명을 제외하면 단신전출은 34 명이 된다. 이들의 전출목적을 보면 다음 <표 2-10>과 같다. 즉 단신전출자중 13 명은 취학을 위한 전출이었고 취업은 10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각각 결혼, 입영, 취학 중인 손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한 조모의 출타 등이었다.

표 2 - 9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985~88

구 분	남	여	계
0 ~ 9 세	0	0	0 (-)
10 ~ 19	3	2	5 (26.3)
20 ~ 29	7	4	11 (57.9)
30 ~ 39	0	1	1 (5.3)
40 ~ 49	0	0	0 (-)
50 ~ 59	0	1	1 (5.3)
60 세 이상	0	1	1 (5.3)
계	10	9	19 (100.0)

표 2 - 10 전출목적 *

단위 : 명

구 분	1985-1986	1986-87	1987-88	계
취업	5	1	4	10
취학	4	6	3	13
출가		1	2	3
입영		1		1
뒷바라지		2	2	4
기타	1 ¹⁾	1 ²⁾	1 ³⁾	3
계	10	12	12	34

* 가구전출, 분가전출 제외 1) 불명 2) 기출 3) 병치료

전출목적에 따라 전출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여기서 보면 취업의 경우 서울과 대전(도내도시)이 많으며, 취학지는 대부분 금산읍이고 일부 대전으로 취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출자 34 명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을 보면 <표 2-12>와 같다.

표 2-11 전출목적에 따른 전출지역*, 1988

구 分	취 업	취 학	출 가	입 영	뒷바라지	기 타	계
군 내	1	10	1		3	1	16
도 내 도 시	3	3	2		1		9
도 내 농 촌							0
서 울	4						4
도 외 농 촌	1					1	2
도 외 도 시	1						1
기 타				1		1	2
계	10	13	3	1	4	3	34

* 가구전출, 분가전출 제외

표 2-12 전출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구 分	남	여	계	'85 기준 전출율%
0 ~ 9 세	1		1	2.9
10 ~ 19	9	7	16	94.1
20 ~ 29	6	4	10	38.5
30 ~ 39	2	1	3	20.0
40 ~ 49				-
50 ~ 59				-
60 세 이상		4	4	9.8
계	18	16	34	18.8

* 가구전출, 분가전출 제외

4. 가족구조

가. 가족형태

대양 2리에서는 전출의 형태에 있어 단신전출에 못지않게 가구전출의 비중이 높아 전체 55명의 전출자 중 20명이 가구전출에 해당된다(36.4%). 이로 인해 이 마을의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1985년 이래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3호가 전출한 87년엔 평균가구원수가 3.73명에서 3.33명으로 줄어든 것이라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보면 2인가족의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3인 및 4인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인의 부부가족의 증가는 산업화 사회에서의 핵가족의 의미가 아닌 노령화된 부부가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형태의 변화를 3년간 비교해 보면 <표 2-14>와 같다.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이라 하여도 그 정상적인 형태인 C형은 감소하고 반면에 B형은

표 2-13 가구원수별 가구, 1985~88

가 구 원 수	단위 : 호 (%)			
	1985	1986	1987	1988
1	3(6.0)	3	3	3(6.5)
2	10(20.0)	13	14	21(45.7)
3	16(32.0)	11	13	7(15.2)
4	6(12.0)	5	4	2(4.3)
5	7(14.0)	4	6	6(13.0)
6	5(10.0)	10	5	5(10.9)
7	3(6.0)	3	1	1(2.2)
8	-	-	-	1(2.2)
계	50(100.0)	49	46	46(100.0)
평균 가구원수	3.62	3.73	3.33	3.24

표 2-14 가족형태의 변화

단위: 호(%)

구 분		1985	86	87	1988
핵 가 족	단 신 가 구 (A)	3(6.0)	3	3	3(6.5)
	부 부 (B)	7(14.0)	9	9	16(34.8)
	부 부+자녀 (C)	15(30.0)	9	11	5(10.9)
	편부모+자녀 (D)	6(12.0)	6	6	6(13.0)
소 계		31(62.0)	27	29	30(65.2)
직 계 가 족	(편) 부모+부 부+(자녀) (F)	17(34.0)	21	14	13(28.3)
	(편) 부모+편부부+(자녀) (G)	2(4.0)	1	2	3(6.5)
	(편) 부부+손자녀 (H)	0(-)	0	1	0(-)
소 계		19(38.0)	22	17	16(34.8)
학 대 가 족 (I)		0(-)	0	0	0(-)
기 타 (J)		0(-)	0	0	0(-)
계		50(100.0)	49	46	46(100.0)

크게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은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가족 형태인 F형의 비중도 1985년의 34%에서 1988년에는 28.3%로 감소하고 있다.

나. 가족분산과 출타가족의 실태

농촌의 가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취업기회 및 교육 등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보다 근대적인 직업과 교육수혜를 위해 이촌하게 된다. 그 결과 농촌가족은 가구이촌의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신이촌의 형태로서 미혼자녀들이 도시나 인근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분가하여 농촌본가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가족분산이 늘어나게 된다. 즉 취업과 취학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가족이 형성되며, 이들은 농촌 본가와의 일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생활을 해나가게 된다.

대양 2리는 교통여건이 매우 불리하고 교육시설도 부족하다. 즉 면소재지까지의 거리가 4km이며, 면소재지를 거쳐 20km 떨어진 금산읍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하루 3회에 불과하다. 또한 면소재지에는 국민학교 밖에 없어 금산읍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중학교 부터는 금산읍으로 출타하거나 아예 대전 등지로 나가게 마련이다. 또한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농업 이외의 산업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취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출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표 2-15>은 가족분산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본 것인데, 1985년부터 87년까지를 우선 볼 것 같으면 가족당 가구가 1가족 2,3,4 가구가 많고 심지어는 1가족 6가구의 매우 높은 가족분산 현황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마을 내에서 출타자가 있는 호수의 비중이 줄어들고, 호당 평균 출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가족분산이 최대의 수준으로 진행되어 더 이상의 심화된 분산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신규 이촌자의 수도 이촌가능성이 있는 자녀수의 절대적 감소로 인해 점차 감소하리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출타한 가족도 귀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출가하여 독립하기 때문에 출타가족수는 현상적으로는 계속 감소할 추세이다.

출타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표 2-16>과 같다. 3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10대의 출타자는 그 절대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비중도 많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전체 출타자의 절반 정도로 늘어났다. 이를 출타자의 출타이유를 보면 취업과 취학이 대부

표 2-15 가족분산 현황

단위 : 호, 인

		1985	86	87	88
가 족 당 가 구 수	1 가 구	13	15	13	13
	2	14	13	10	14
	3	14	10	13	12
	4	7	8	8	4
	5	1	3	1	2
	6	1	0	1	0
	7	0	0	0	1
총 호 수 (A)		50	49	46	46
출타자 있는 호수 (B)		37	34	33	33
B / A %		74.0	69.4	71.7	71.7
총 출 타 자 수		105	99	105	95
호당 평균출타자수		2.10	2.02	2.28	2.07

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이나 취학, 군복무의 이유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출타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출타지역은 취업자의 경우 대전과 서울의 대도시에 압도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 취학이 목적인 출타자들은 금산읍과 대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타에 따른 가족분산은 대개 미혼자녀의 출타로 인해 일어난다. <표 2-19>를 보면 가구원의 출타에 의해 가족형태가 변화된 가구는 13호로, 그 중 10호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C형)이 자녀출타로 인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B형)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밖에 1호는 자녀출타로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A형 가족형태가 된 가구이며, 2호는 출타한 손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노모가 함께 출타하여 부부가족이 된 가구이다.

표 2-16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명%

	1985	1986	1987	1988
0 ~ 9 세	1(1.0)		1	1(1.1)
10 ~ 19	60(57.1)	53	46	39(41.1)
20 ~ 29	41(39.0)	42	53	48(50.5)
30 ~ 39	2(1.9)	1	2	4(4.2)
40 ~ 49				
50 ~ 59	1(1.0)	1		
60 세 이상		2	3	3(3.2)
계	105(100.0)	99	105	95(100.0)

표 2-17 출타목적

단위 : 명%

	1985	1986	1987	1988
취업	56(53.3)	56	50	50(52.6)
취학	42(40.0)	33	46	36(37.9)
군복무	6(5.7)	6	5	1(1.1)
기타	1(1.0)	4	4	8(8.4)
계	105(100.0)	99	105	95(100.0)

표 2-18 출타지역

단위 : 명

	1985		1986		1987		1988	
	취업	취학	취업	취학	취업	취학	취업	취학
군 내	4	24	4	18	3	27	2	23
도내농촌	1	0	0	1	0	0	1	1
도내 도시 ¹⁾	26	16	23	11	23	14	19	12
서 울	15	2	19	1	17	3	16	1
타도농촌	0	0	0	0	0	0	1	0
타도도시	10	0	9	2	6	2	8	0
기 타	0	0	1	0	1	0	2	0
계	56	42	56	53	50	46	50	36

* 모두 대전임.

표 2-19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7

전가족 재촌가족	단 신	부 부	부부+ 자녀	편부모 +자녀	(편)부모+ 부부+(자녀)	(편)부모+ 부부중 1(자녀)	(편)부부 +손자녀	계
	(A)	(B)	(C)	(D)	(F)	(G)	(H)	
A	2			1				3
B		4						16
C			10			2		5
D			5					6
F				6				13
G					13			3
H						3		-
계	2	4	15	7	15	3	-	46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농지소유 및 이용

가. 역사적 배경

대양 2리는 해발 250 ~ 400 m의 고지대에 위치한 산간부락이다. 1988년 현재 46호 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해방 전후의 가구수는 140여호로 경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한 대표적 화전민촌이었다. 토지대장에 농지로 등재된 면적(結田)은 논은 18 ha 내외, 밭은 25 ha 내외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화전을 포함한 면적은 추정이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두문동이 심하여 이 마을은 현재 9호가 살고 있으나 6.25 전에는 60여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6.25 전쟁중 군작전에 의해 마을이 소개된 후 1952년에 다시 귀향한 가구는 모두 80여호로 화전조차 부치기 어려웠던 영세가구들이 일차적으로 귀향을 포기하였다 한다. 당시의 마을의 경지소유분포-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1966년의 화전민 정리사업으로 화전은 강제 폐쇄되고 이때 화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10여호가 이촌하였다.

나. 농지소유구조

대양 2리는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곡간답¹⁾ 산전²⁾이 많아 두령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면적도 작고 생산력도 낮다.

농지가격은 최상답이 평당 10,000 원까지 호가한다고 하나 실제 평가액은 상답이 6~7,000 원선이고, 밭은 상전이 평당 3,000 원 정도이며 농로가 나 있지 않은 곡간토는 매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가격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³⁾ 지가는 토질 보다는 마을에서의 거리, 접근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힘든 작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휴한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임야에 인접한 곳에서는 맷돼지 등 산짐승의 피해도 심하다.

소유규모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 대양 2리는 평균농지면적이 작지만 그 분포는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0.5~1.5 ha 층이 가구수로는 56.0%, 면적으로는 72.8%를 점하고 있으며, 2.0 ha 이상

표 3-1 농지소유규모 계층의 변화¹⁾

단위 : 호

구 분	1985		1988
	(2)	1985	1988
무 경 지	6	전출 2 → 4	4 (2)
0.5 ha 미 만	13	전출 1 → 12	12 (1)
0.5 ~ 1.0	(2) 18	전출 1 → 17	18 (1)
1.0 ~ 1.5	(1) 10	1 → 9 → 10 (1)	10 (1)
1.5 ~ 2.0	3	1 → 1 → 1	1
2.0 ha 이 상	0	1	1
계	50 (5)		46(5)

1) 출입농가를 제외한 전체가구에 대한 것이며 ()안은 비농가

- 1) 이 마을에는 지적상의 필지와 실제 필지(배미)사이에는 차이가 많다. 극단적인 예로 논 800 평이 20배미로 나뉜 경우도 있다.
- 2) 1966년 화전민 정리 이후 화전은 강제 폐쇄되고 있으나, 아직 완만한 경사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연작피해(현지에서는 '제걸탄다'라고 함)가 있는 인삼은 재배 적지가 부족하여 오랫동안 묵혔던 산전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 3) 조사기간중 농지거래는 2건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건을 보면 명고동에서 중답 1,120 평이 550만원에 거래되어 평당 4,911 원이 되었다.

을 소유한 가구는 없다. 경지가 없는 가구도 6호(이중 2호는 비농가, 4호는 소작농)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향은 1988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농업활동기회가 적어 경지없는 가구의 전출이 많았으며, 농업의 장래성을 기대한 농지구입투자(축적)가 일어나기 힘들며, 기계화 등이 어려운 까닭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농지의 확대가 제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3년간 전출가구 4호는 모두 1.0 ha 미만의 영세농층에 분포되어 있다.

1985~88년 사이에 소유면적에 변동이 있었던 내용은 <표 3-3>과 같다. 증가한 5건중 구입에 의한 확장은 2건 1,72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묵혔던 산전의 재개간에 의한 것이다. 감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4건중 3건은 산전의 휴경에 따른 것이며, 이촌자녀에 농지를 증여한 것이 1건이고⁴⁾ 판매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즉 산간마을에서는 농지거래는 거의 없는 반면, 노동력 기타 조건의 변화에 따른 휴경, 재경작이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2 농지소유구조

단위 : 호, 평

	1985			1988		
	호 수(%)	총면적 (%)	호 당 평균면적	호 수(%)	총면적 (%)	호 당 평균면적
무 경 지	6(12.0)	0(-)	0	4(8.7)	0(-)	0
0.5 ha미만	13(26.0)	12,610(12.0)	970	12(26.1)	11,960(11.7)	997
0.5 ~ 1.0	18(36.0)	39,808(37.7)	2,212	18(39.1)	40,188(39.4)	2,233
1.0 ~ 1.5	10(20.0)	36,984(35.1)	3,698	10(21.7)	38,324(37.6)	3,832
1.5 ~ 2.0	3(6.0)	16,061(15.2)	5,354	1(2.2)	5,501(5.4)	5,501
2.0 ha 이상	0(-)	0(-)	-	1(2.2)	6,020(5.9)	6,020
계	50(100.0)	105,463(100.0)	2,109	46(100.0)	101,993(100.0)	2,217

1) 이 표는 비농가를 포함한 것으로 뒤에 나오는 농가대상 분석과는 다름

4) 이 농가의 경영주는 68세로 결혼한 차남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이촌한 장남에게 상속물으로 900평을 명의이전해 주었으며 식량조로 쌀 80kg 3가마 정도를 보내주고 있다.

표 3-3 농지소유 변동가구의 개황

증감 구분	가 구 번 호	경 영 주 연 (변동시)	소 유 면 적(평)		변 동 년도	비 고
			변동전	변동후		
증 가	4	31	1,500	2,620	1987	논 1,120 평 구입 (이촌한 친척땅 구입)
	9	49	3,170	4,230	1988	목혔던 산전 재개간 (1,060 평, 고추재배)
	11	68	1,000	1,200	1988	목혔던 산전 200평 재개간
가	38	49	5,420	6,020	1986	논 600평 구입.
	39	47	1,000	2,400	1987	목혔던 산전 1,400 평 재경작
감 소	22	68	3,060	2,160	1988	이촌한 장남에게 논 900평 증여 .아들에 게 임차료조로 식량보내줌.
	35	53	5,140	3,340	1986	부치던 산전 1,800평 경작포기
	39	46	2,400	1,000	1986	산전 1,400평 휴경
	41	42	1,350	950	1986	산전 400 평 휴경

다. 경작규모 및 임대차

대양 2리의 농가호당 경지면적의 변화는 <표 3-4>와 같다. 3년간 소유면적은 평균 158평이 증가하였고, 경작면적은 349평이 증가하여 경작면적의 증가폭이 크다. 호당 소유면적이 증가한 것은 이촌농가의 소유지가 적었던 때문이며, 호당 경작면적이 늘어난 것은 마을의 총 경작면적은 변화가 없지만 농가호수가 46호에서 41호로 감소한 때문이다.

경작 규모계층별로 보면 0.5 ha 미만층이 크게 감소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88년의 경우 규모계층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0.5 ha 미만층의 비율이 14.6%로 매우 작은 반면 중간층인 1.0~1.5 ha 층이 31.7%로 비교적 많고 2.0 ha 이상층은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중농표준화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토지생산력이 낮고 농외소득의 기회가 매우 작은 입지여건 때문에 영세농의 존립기반이 약하여 이촌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면, 경지의 분산도가 심하고 기계화가 어려워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경영은 제약된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양 2리는 자연부락에 따라 경작규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평탄지가 넓은 명고동과 두문동의 호당 경지면적이 오히려 작고 삼방과 유곡의 경작면적이 넓은 것은 생산성 차이에 따른 인구부양력 때문으로 보인다. 담률도 자

연부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명고동은 50 %가 넘는 반면, 삼방, 유곡은 25 % 내외에 불과하다.

표 3-4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구 분	단위 : 평 / 호				
	1985	1986	1987	1988	88/85
소 유 면 적	2,170	2,224	2,289	2,328	1.07
임 대 면 적	150	150	76	73	0.49
임 차 면 적 (A)	801	1,002	1,018	1,003	1.25
경 작 면 적 (B)	2,830	3,060	3,232	3,179	1.12
임차지율 : A/B%	28.3	32.7	31.5	31.6	-

표 3-5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전국 % ¹⁾
0.5 ha 미만	10(22.2)	10(12.3)	5(12.2)	6(14.6)	29.5
0.5 ~ 1.0	16(35.6)	12(27.9)	13(31.7)	15(36.6)	34.3
1.0 ~ 1.5	13(28.9)	13(30.2)	19(46.3)	13(31.7)	20.6
1.5 ~ 2.0	4(8.9)	6(14.0)	2(4.9)	6(14.6)	9.0
2.0 ha 이상	2(4.4)	2(4.7)	2(4.9)	1(2.4)	6.6
계	45(100.0)	43(100.0)	41(100.0)	41(100.0)	100.0

1) 전국은 1988년 기준임. 농림수산주요통계

표 3-6 자연부락별 경작규모 계층, 1988

단위 : 호 (%)

구 분	명 고 동	삼 방	유 곡	두 문 동	계 또는 평균
경 작 규 모 계 층	0.5 ha 미만	4(17.4)		1(16.7)	1(12.5)
	0.5 ~ 1.0	10(43.5)	1(25.0)	1(16.7)	3(37.5)
	1.0 ~ 1.5	7(30.4)	1(25.0)	2(33.3)	3(37.5)
	1.5 ~ 2.0	1(4.3)	2(50.0)	2(33.3)	1(12.5)
	2.0 ha 이상	1(4.3)			1
계		23(100.0)	4(100.0)	6(100.0)	8(100.0)
평균경작 면적 (평)	논	1,458	1,075	892	1,361
	밭	1,420 ¹⁾	3,252	2,583	1,890
	계	2,878	4,327	3,475	3,250
	답 율 (%)	55.4	24.8	25.7	41.9
					41.5

1) 이중 248 평 (총면적 5,700 평)은 외지에서 임차한 농지임. 따라서 답율은 이를 제외하고 계산.

표 3-7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구 분	가 구 번 호	경영주연령 ('85기준)	경 작 면 적 (평)			변 동 사 유
			1985	1988	증 감	
규 모 확 대 (1,000 평이상)	1	28	2,300	3,500	1,200	이촌농가의 농지 임차(노동력은 감소)
	3	26	1,700	2,700	1,000	겸업농가의 농지 임차
	7	34(여)	0	1,000	1,000	임대지 일부 환수
	10	21	700	1,700	1,000	이촌가구의 농지 임차
	14	36	600	2,400	1,800	외지에서 농지 임차하여 인삼재배 확대
	19	59	0	2,100	2,100	임대지 환수(고용노동 의존)
	28	65	3,650	4,650	1,000	이촌 조카의 농지 임차(아들과 함께 영농)
	32	62	3,900	5,800	1,900	노령가구 농지 임차(아들과 함께 영농)
	44	45	1,257	2,557	1,300	노령가구 농지 임차
	50	44	2,600	5,300	2,700	이촌 동생의 농지 임차
규 모 축 소 (1,000 평이상)	23	49	6,270	4,400	1,870	임대인이 농지 환수
	29	50	4,058	2,858	1,200	임차지 반납
	31	59	5,000	4,000	1,000	노동력 부족(아들 이촌)으로 임차지 반납
	34	49	3,100	800	2,300	임차지 반납
	35	52	4,810	3,590	1,220	버섯재배로 노동력 부족하여 산전경작 포기

3년간 경작면적이 1,000평 이상 변동한 농가를 보면 증가한 농가가 10호, 감소한 농가가 5호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작면적의 변화는 대부분 임대차의 변동에 의해 일어나지만 경영 주의 연령조건이나 가족노동력과는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농가의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인적사항, 특히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표 3-8>에서와 같이 대양2리에서는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경작규모와 소유규모 계층을 대비해 보면 <표 3-9>와 같다. 총 41호중 17호(41.5%)의 농가가 임차를 통하여 계층상승을 하였고 4호(9.8%)는 소유지를 임대함으로써 계층하강이 일어났다.

대양 2리의 경지임대차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1985년의 임차지비율은 28.3%였으며 1986년에는 32.7%로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그후 임차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딥율이 낮은 관계로 자연 밭에서의 임대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8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구 分	단위 : 호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세이 상
0.5 ha미 만		1	1	1	1	2
0.5 ~ 1.0	2	2	2	2	6	1
1.0 ~ 1.5		1	3	3	6	
1.5 ~ 2.0			2	2	2	
2.0 ha이 상		1				
계	2	5	8	8	15	3

표 3-9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경작규모 소유규모	단위 : 호					
	0.5 ha미 만	0.5~10	1.0 ~ 1.5	1.5 ~ 2.0	2.0 ha이 상	계
무 경 지	1	1				2
0.5 ha미 만	3	4	4			11
0.5 ~ 1.0	2	9	2	3	1	17
1.0 ~ 1.5		1	7	1		9
1.5 ~ 2.0				1		1
2.0 ha이 상				1		1
계	6	15	13	6	1	41

표 3-10 임차면적의 변화

구 分	단위 : 평				
	1985	1986	1987	1988	'88/'85
논	12,484	13,084	12,030	13,760	1.10
밭	23,540	30,003	29,716	27,366	1.16
계	36,024	43,087	41,746	41,126	1.14
임 차 지 비 율	28.3	32.7	31.5	31.6	-

그러나, 임대차에 따라 농가를 구분해 보면 자작농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임차농(자차농 포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순임차층은 감소한 반면 자차농은 16호에서 26호로 증가하여 '88년에는 무려 63.4%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임차지율의 변동에 비해 임차농가수의 증가가 심한 것은 임차농의 임차면

표 3-11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¹⁾

구 分	1985	1986	1987	1988
임 대 농	2(4.4)	0(-)	0(-)	0(-)
자대농(지주겸자작)	3(6.7)	2(4.7)	2(4.9)	5(12.2)
자 작 농	21(46.7)	16(37.2)	13(31.7)	8(19.5)
자차농(자작겸소작)	16(35.6)	22(51.2)	24(58.5)	26(63.4)
임 차 농 (순소작)	3(6.7)	3(7.0)	2(4.9)	2(4.9)
계	45(100.0)	43(100.0)	41(100.0)	41(100.0)

1) 임대와 임차를 동시에 하는 농가의 경우 임대면적이 크면 자대농으로, 임차면적이 크면 자차농으로 구분하였음.

표 3-12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구 分	1985	1988
0.5 ha 미만	12(26.7) ¹⁾	19(46.3)
0.5 ~ 1.0	4(8.9)	6(14.6)
1.0 ~ 1.5	1(2.2)	2(4.9)
1.5 ~ 2.0	1(2.2)	0(-)
2.0 ha이상	1(2.2)	1(2.4)
계	19(42.2)	28(68.3)

1) 백분율은 전체농가수에 대한 비율임.

표 3-13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구 分	1985 (A)	1988 (B)	B/A
재 촌 지 주 ¹⁾	17,450(48.3)	14,000(34.0)	0.80
부 재 지 주	14,124(39.2)	22,000(53.5)	1.56
증 중 토	3,550(9.9)	4,226(10.3)	1.19
국 공 유 지	900(2.5)	900(2.2)	1.00
계	36,024(100.0)	41,126(100.0)	1.14

1) 지주가 조사부락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지주에 포함시켰음.

적 규모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임차농의 임차규모는 1,500 평 미만이었지만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차농의 평균 임차면적은 1985년의

1,846 평에서 1988년에는 1,447 평으로 감소하였다.

지주의 성격을 보면 1985년에는 재촌지주의 소유지가 부재지주 소유지보다 많던 것이 1988년에는 역전되어 나타난다. 즉 마을에 있는 농가간의 임대차는 오히려 감소하고 부재지주의 소유지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조사연도내에도 이촌농가가 발생하였고, 반면 마을내에서는 농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던 농가가 임대지를 환수했거나, 경지조건이 나쁜 일부 임차지의 경작이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재촌 임대가구의 노동력 조건을 보면 <표 3-14>와 같다. 비농가 3호를 포함하여 5호가 20~59세의 남자노동력이 없어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이 경지임대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59세의 남자영농종사자가 있는 3호중 1호는 경영주 질병으로, 2호는 원거리에 있는 일부 농지를 임대한 경우다. 부재지주의 농지취득경우를 보면 대양 2리에서는 절대다수가 마을에서 이촌한 가구의 보유지이다.

표 3-14 임대가구의 노동력 조건, 1988

단위 : 호

구 분	호 수
20~59 세 남자농업종사자 있음	3
20~59 세 남자비농업종사자 있음	0
20~59 세 여자농업종사자 있음	1
20~59 세 여자비농업종사자 있음	1
20~59 세 노동력 없음	3 ¹⁾

1) 모두 비농가임.

표 3-15 부재지주의 농지취득 경위, 1988

구 분	건 수	면 적 (%)	전 국 (%)
이 촌	21	18,430 (83.8)	{ 65.9
상 속	5	2,270 (10.3)	
구 입	4	1,300 (5.9)	34.1
계	30	22,000 (100.0)	100.0

임대차 관행에 있어서도 양연도 사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5년도에는 논에서는 생산물의 일정비율(상답 50%, 하답 33%)의 현물을 임대차료로 지불하는 타조가 일반적이었고, 밭에서는 콩이나 벼로 평당 일정량을 지불하는 현물정조가 관행이었으나, 1988년에는 이것들이 각각 정조화, 현금화되어 있다. 1988년의 임차료 수준을 보면 논의 경우 정조는 평당 304원(주로 중하답, 200평당 80kg 0.7가마 정도로 수확량의 1/3 내외에서 결정)이고, 타조는 평당 667원(주로 상답, 200평당 1.5가마 내외)이다. 밭의 임차료율은 평당 116원이다. 이밖에도 이촌가구의 선산관리, 제사준비 등을 위한 위토가 많은 것이 특징이나 그 면적은 영세한 편이다.(21건에 9,146평으로 건당 436평, 총임차면적의 22.2%).

1988년의 총 지불임차료는 866만 9천원으로 임차농가 호당 31만원이다. 이중 부채지주에 대한 지불액은 591만 3천원으로 68.2%를 점하고 있다.

표 3-16 임차료 지불형태

단위 : 건 (%)

연도		1985		1988	
구 분	지 목	논	밭	논	밭
정 조	현 금	1 (5.9)	3 (15.0)	5 (27.8)	11 (36.7)
	현 물	3 (17.6)	8 (40.0)	4 (22.2)	2 (6.7)
타 조 (현 물)		11 (64.7)		5 (27.8)	
제사, 선산관리등		2 (11.8)	9 (45.0)	4 (22.2)	17 (56.7)
계		17 (100.0)	20 (100.0)	18 (100.0)	30 (100.0)

표 3-17 농지임차료 지불액,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임 차 료 액 (%)
재 촌 지 주	2,371 (27.4)
종	385 (4.4)
부 재 지 주	5,913 (68.2)
계	8,669 (100.0)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대양 2리의 답율은 41.5%이며 경지의 대부분이 해발 300~500m의 곡간지에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일조시간과 무상일수가 짧고 서리도 빨리와 냉해피해도 더러 받으며 토지생산력이 낮다. 따라서 대양 2리는 작목선정과 그 경제성에 있어 비교적 불리한 농업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중요한 작물은 미곡, 두류, 고냉지채소와 인삼, 담배, 참깨 등의 특용작물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인삼은 마을경제의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 주요작목의 변천

대양 2리의 관행적인 논의 작부체계는 수도 단작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답리작으로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으나 조생종 벼품종이 보급되면서 점차 감소하여 지금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기술적 요인 이외에도 보리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쌀 생산 증가로 인한 식량문제의 해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고냉지채소의 재배를 위해 논을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작물이라 할 수 있는 인삼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45년 해방 전후라고 한다. 금산읍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경지를 임차함으로써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마을사람들이 기술을 익혀 참여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였다. 인삼은 연작피해가 심해 한번 심은 땅에는 10년 이상 재배가 힘들며, 이 때문에 산기슭을 새로 개간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연작피해가 적은 논에서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밭을 논으로 바꾸는 개답은 대체로 인삼재배를 위한 경우이다.⁶⁾ 1984년부터는 경북 상주, 충남 연기 등 외지에 나가 밭을 임차하여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인삼은 백삼으로 제조하여 금산읍 시장에 내다팔고 있으며, 상인이 들어와 수삼상태로

5) 이 마을은 토지생산력이 낮고 호당 논면적이 적어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급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조생종 통일계통의 도입과 그에 따른 기술향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1977년부터는 자급수준을 넘었다.(추곡수매량 '76년 42가마에서 '77년 222가마로 증가)

6) 1988년 18번 농가가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1,400평을 개답하였다. 해당 농가가 입지 한 곳은 마을 바로 앞으로 평가액이 평당 8,000원 정도이다.

구입해 가기도 한다.

담배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보급이 확대되어 중요한 수익작물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는 노동집약적 작물로 수매에 의한 판매보장으로 '60, '70년대에는 15~20호가 5~6ha를 재배함으로써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작농가와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이에 따라 건조기(벌크)를 도입한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우기 1986년의 담배 수입 자유화에 따라 경작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양잠은 일제의 정책에 의해 1950년까지는 크게 성행하였으나 6.25 전쟁 중 마을의 소개로 잠실이 모두 없어지고, 식량생산에 우선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거의 중단되었다. 1970년대초에 정부의 장려정책으로 상전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70년대 말까지는 20~30호에서 1~2ha의 상전을 조성하게 되었다. 1978년부터 잠경의 해외 수출이 부진하게 됨에 따른 여파로 잠경생산이 다시 감소하여 거의 소멸하였으며 현재는 3가구에서 2,600평의 상전을 조성한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 있다.

1983년에는 정부의 복합영농정책이 마을에 도입되어 양연도에 걸쳐 한우와 대추나무, 참깨, 콩 등이 복합영농작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참깨를 제외한 다른 작목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격파동 등으로 실패하여 마을의 작목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한우자금은 1984.4~7월 사이에 19가구에서 38마리분 2,280만 원을 융자받았지만 대부분 이미 1~2마리씩의 소를 기르고 있었고 또 소값이 비싼 시기여서 (암소 성우 120만원, 암송아지 60~80만원대) 대개 1마리씩만 추가 입식하였다. 그러나, '85년 이후 소값 파동으로 대부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며 이후 한우 사육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우와 함께 복합영농작목으로 지정된 대추는 14농가에서 참여하여 4,000평 기준 2,650주분 1,053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농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의심하여 7) 식재를 회피하여 신청 입식주수의 절반정도만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척박한 공한지나 밭두렁 등에 심고 비배관리와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육이 나빠 실패로 돌아갔다. 참깨는 원래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던 작물이었으나 1984년 복합영농작목으로 지정되어 단기 영농자금이 배정됨에 따라 면적이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양2리에서의 복합영농사업은 실질적인 작목반 구성이나 새로운 작물의 도입이 아니고 기존 작물의 약간의 확대와 그에 따른 농가 자금공급 확대 형태로 이루어

7) 그전에 심은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 수확이 개무하였다.

졌다.

198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된 고냉지채소가 마을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3년경이다. 이웃한 전북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일대에서는 '80년 경부터 고냉지채소를 재배하였으며 마을에서는 유곡의 길창희(37번 가구)가 처음 도입하였다. 이의 파종기는 6월이고 8월에 출하하고 있어 노동력 수요가 수도작과 겹치지 않는 현금소득원이 되고 있다. '85년 이후에는 명고동, 삼방, 두문동에도 보급되어 '87년에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도작을 포기하고 논에 심기도 한다. 판매는 주로 금산에서 상인들이 들어와 밭떼기로 사가며, 개인이 대전 시장에 직접 출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심하여 밭떼기의 경우 '86년에는 평당 800원, '87년에는 1,500원을 받아 수익성이 좋았으나, '89년에는 가격폭락으로 대부분 출하를 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유곡에서 1호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이웃 주천면 사람이 처음 도입하였으나 마을사람이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부터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약 1만본 내외(조수입 500만원선)의 규모이다. 판로는 청양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며 남이면의 재배자 3~4명이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다.

나. 조사기간중 작목구성의 변화

1985~88년간 작목별 식부면적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면적이 늘어난 주요 작목은 고냉지채소와 인삼이고, 감소한 작목은 미곡, 맥류, 두류 등 곡물과 담배, 참깨, 들깨 등의 특용작물이 해당된다. 고냉지채소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이는 '86~'87년의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높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으로 두류재배경지가 전환되고 일부 논에서도 배추를 심었기 때문이다. 1988년도에 논을 수도작 이외에 전용한 면적은 총 12,405평(전체 논면적의 22.9%)으로 이중 고냉지배추에 3,778평, 인삼재배에 8,327평을 할당하였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작물인 인삼도 매년 그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논의 전용에 의한 것이다. 논에서의 인삼재배는 미곡보다 수익성이 높은데다 밭은 연작 피해가 커 재배적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삼이외의 주요한 경제작물이던 담배도 198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부족 이외에도 양담배수입개방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깨와 들깨가 감소한 것은 참깨영농단지로 지정되면서 받았던 영농자금지원이 중단된데다 수확기의 날씨조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등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4년에 처음 도입된 오미자는 재배면적에 변화가 없다. 이는 수확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건조에 많은 품이 드는데 비해 전국적으로 재배가구의 확대되어 판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고버섯 재배농가(35번)는 1986년 처음 4,800분의 묘상을 설치한 이래 1987년에는 1,800분을 1988년에는 비닐하우스에 2,000분을 추가 설치하여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밖에 상전은 '86년에 1가구에서 600평을 조성한 이후 '88년에 2가구에서 2,000평을 조성해 총 2,600평으로 늘어났다. 1988년의 양잠규모는 8장으로 수입은 86만원에 이르고 있다.

축산은 한우만 사육하고 있다. 한우는 비육과 역우 겸용으로 사육된다. 한우는 풍부한 초자원을 이용할 때 많은 두수의 사육이 가능하나 가격하락에다 경운기 보급으로 역우로서의 이용가치가 감소되어 점점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 1985년에는 총 77두를 사육하였으나 1986년에 41두로 급격히 줄은 이후 해마다 약간씩 감소하여 1988년에는 30마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마리 이상 사육농가수도 29호에서 7호로 줄어들

표 3-18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단위 : 평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
				호당평균		
미 곡	49,475	49,845	41,911	41,670	1,016	84.2
맥 류	13,105	14,651	12,568	9,611	234	73.3
잡 곡	0	100	400	1,660	40	-
두 류	26,640	26,916	30,896	22,404	546	84.1
채 소	2,750	4,490	2,530	3,350	82	121.8
	3,780	3,380	8,958	20,776	507	549.6
담 배	17,300	16,670	11,387	4,900	120	28.3
특 용	6,480	13,730	17,762	19,758	482	304.9
	12,685	19,670	13,620	8,819	215	69.5
작 물	3,700	5,876	2,114	2,616	64	70.7
오 미 자	1,000	1,500	1,500	1,500	37	150.0
기 타	200	0	263	300	7	150.0
서 류	400	640	525	500	12	125.0
총식부면적	137,515	157,468	144,434	137,864	3,363	100.3

표 3-19 가축사육 두수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호당평균	단위 : 마리
						B/A×100 %
한 우	77	41	33	30	0.73	39.0
돼 지	1	1	0	0	0	-
축산농가수*	29 호(64.6%)	6 호(14.0%)	7 호(17.1%)	7 호(17.1%)	-	-

* 축산농가는 소 2마리 또는 돼지 6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하였음.

었으며, 최대사육두수는 3마리이다. 이러한 한우 사육두수의 감소는 농가의 중요한 현금수입원의 하나가 축소된 것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한봉을 기르는 농가가 4호 있는데 1988년에는 총 17통에 274만원으로 규모는 영세하다. 이 외에도 석청, 약초 등의 채취도 일부 농가들의 현금수입원이 되고 있다.

다. 농업기술의 변화

대양 2리는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어 토지조건과 기후가 농업에 불리하며 기술보급에 있어서도 낙후된 편이다. 기술수준의 낙후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낮은 교육수준에도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작의 기술수준을 보면 필지당 면적이 작고 농로가 미발달되어 기계화 보급수준이 낮고 주로 역우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온못자리는 1975년경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제초제의 사용은 '80년대 초반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호미에 의한 중경제초를 하였다. 경운기가 처음 보급된 것은 1972년이었으나 처음엔 주로 운반수단⁸⁾으로 사용되었으며 경운작업에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아직도 경지조건이 나쁜 30%의 논은 역우에 의한 경운,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앙, 수확은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탈곡은 1930년대 이후 족답식 탈곡기로 작업하다 경운기 동력을 이용한 반자동식 탈곡기가 도입된 것은 1975년이다. 조제작업이 풍석에서 팔랑개비로 바뀐 것은 1967년이고, 도정작업이 디딜방아에서 정미소 도정기로 바뀐 것은

8) 마을과 면소재지 사이의 운반수단으로 쓰였다. 처음 구입한 정진원씨는 벼 등의 농산물과 연탄 등의 생필품을 운반해 주고 상당한 운임소득을 벌었다 한다.

1960년경이다.⁹⁾

밭작물은 대부분 노지 직파를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5년 정영택씨가 고추모 재배를 시작하면서 일부 채소에 실시하였고 '88년에는 버섯재배에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멀칭은 담배, 고추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밭의 경운작업은 아직 역우에 의존하는 면적이 절대이나 일부 담배, 인삼밭, 보리밭의 경지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경운기를 사용한다. 밭의 제초작업은 1984년경부터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운반작업은 아직 지게사용이 많은 편이다. 인삼밭의 설치는 주로 자가노동을 이용하여 지주목과 덮개를 자가생산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노동력이 점차 부족해짐에 따라 1988년부터는 P.V.C. 덮개와 짚으로 만든 덮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노동력 구조와 이용

가. 농업노동력 구조

마을주민 전체를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표 3-20>과 같다. 산간마을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농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업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이다. 또한 총인구중 취업인구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15세 미만의 소년부양인구총과 학생수가 작다는 인구구조적 원인 외에도, 경지기반의 특성상 노동력 부족이 심하여 노령층의 부분적 영농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5년의 경우를 보면 총 인구 182명 중 119명 (65.4%)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인 116명이 농업종사자이고, 비농업종사자는 3명에 지나지 않았다. 1985~88년간에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어 취업인구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비농업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농업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호당 영농종사자수도 1985~88년간에 2.56명에서 2.24명으로 감소하였다.

9) 정미소는 이웃 대양1리에 있다.

표 3-20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8		
		농 가	비농가	계	농 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70	12	182(100.0)	143	7	150(100.0)
15 세 미 만	인 구	39	5	44(24.2)	33		33(22.0)
15 세 이상	취업 인 구	114	2	116(63.7)	85	1	86(57.3)
	농업 + 비농업	1		1(0.5)	7		7(4.7)
	비농업	1	1	2(1.1)			0(-)
	소 계	116	3	119(65.4)	92	1	93(62.0)
인구	비취업 학생			0(-)			0(-)
	주부	4		4(2.2)	2		2(1.3)
	노령	1		1(0.5)	2		2(1.3)
	기타(질병, 군복무)	8	3	11(6.0)	11	5	16(10.7)
	소 계	2	1	3(1.6)	3	1	4(2.7)
		15	4	19(10.4)	18	6	24(16.0)

표 3-21 영농종사자수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농 가 호 수		45	43	41	41
농 가 가 구 원 수 (A)		170	167	146	143
영 농 종 사 자 수 (B)		115	107	94	92
호당평균영농종사자		2.56	2.49	2.29	2.24
영농참여율 (B/A %)		67.6	64.1	64.4	64.3

농업노동력 증감의 내용을 보면 증가가 12명, 감소가 35명으로 총 23명의 순감소가 있었다. 감소의 원인은 전출이 1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가구전출이 6명(3가구)이고 11명은 단신전출로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노동력이다. 노령화에 따른 탈농도 3년간 1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촌탈농은 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도 비농업취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으로 자영을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퇴역 노동에 종사하게 된 특별한 경우이다. 증가요인중에는 전입이 7명인데 이중

2명은 혼인 전입한 여성이고, 5명은 도시에 나갔다가 귀환한 자녀 등의 가족원이다. 재촌전업중에는 비농업종사자의 영농참여가 1명, 나머지 4명은 주부, 또는 노령자로서 가족원중 일부가 이촌함에 따라 부족노동력을 보완 또는 전담하게 된 경우다.

영농종사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60세 이상 노령노동력에의 의존도가 큰 것은 다른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반면 30세 미만의 젊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985년의 경우 30세 미만이 총 29명으로서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특성상 고등교육과 도시 문물에 접할 기회가 적어 잔류인원이 많았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1985년 현재 30세 미만의 남자 영농종사자중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은 6명, 부와 함께 영농하는 사람은 11명이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 이촌자도 3명 생기고 연령도 높아져, 1988년에는 30세 미만 영농종사자는 16명 (17.4%)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경작규모별로 영농종사자수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영농종사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비례적이 아닐 뿐 아니라 농가별로는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계층간, 농가간 농지-노동력 비율의 차이로 농가 사이의 노동력 고용, 피고용 관계가 발생한다.

표 3-22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구 分		'85/'86	'86/'87	'87/'88	단위 : 명
(A)	전 입	5	1	1	7
	전업(재촌)	1	1	3	5
	소 계	6	2	4	12
(B)	전 출	5	9	3	17
	노령화	7	5	3	15
	재촌탈농	2			2
	사망		1		1
소 계		14	15	6	35
순증감(A-B)		△8	△13	△2	△23

표 3-23 영농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증 감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60 세 이상	15	11	26(22.6)	14	9	14	6	13	9	22(23.9)	△ 4
50 ~ 49	7	12	19(16.5)	8	11	6	15	7	14	21(22.8)	+ 2
40 ~ 49	12	17	29(25.2)	10	15	9	11	8	10	18(19.6)	△ 11
30 ~ 39	5	7	12(10.4)	8	6	10	5	10	5	15(16.3)	+ 3
30 세 미만	18	11	29(25.2)	16	10	10	8	9	7	16(17.4)	△ 13
계	57	58	115(100.0)	56	51	49	45	47	45	92(100.0)	△ 23

표 3-24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단위: 호, 명, 평

구 분	0.5 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ha 이상	계 또는 평균
영 농 종 사 자 수	1	1	2	1		4
	2	4	11	8	3	26
	3	1	1	4	1	8
	4		1		2	3
호 수	6	15	13	6	1	41
평균종사자수(A)	2.00	2.07	2.23	2.83	3.00	2.24
평균경작면적(B)	1,096	2,418	3,746	4,984	8,920	3,179
M/L비율(B/A)	548	1,168	1,680	1,761	2,973	1,419

나. 고용노동과 노동관행

대양 2리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노동력의 교환, 고용도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적 농작업집단인 두레도 호수가 비교적 많고 논면적이 넓은 명고동과 두문동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레는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구가 1명씩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수도작의 김매기 작업을 2회에 걸쳐 하였다 한다. 이러한 두레조직은 두문동에서는 1957년경, 명고동에서는 60년대초에 소멸하였다.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농업노동 고용·피고용관계는 전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작은 호당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농가는 모내기 때는 자가노동력 또는 품앗이로 해결하고 있으며 벼베기는 거의 가족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담작에서의 고용관계는 경운, 정지, 방제 등의 기계 임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기간중 큰 변화가 없고 수도작의 기계화도 진전되지 않아 미작에서의 고용노동은 260일内外로 유지되고 있다.

전작에서는 인삼, 담배 경작농가에서 고용관계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1986년에 고용일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경북 상주, 충남 연기 등 외지에서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연부락별로는 <표 3-26>과 같다. 두문동에서는 고용관계가 거의 없이 품앗이에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삼방과 유곡은 품앗이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전작에서 고용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50명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한 농가는 총 9호로서 이중 노령가구인 20,31번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삼, 담배, 고추, 버섯 등의 경제작물재배에서 고용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표 3-25 고용노동일수

단위 : 연인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총고용노동일수 (A)	800	1,667	1,423	1,258	1.57
미 작	254	283	264	265	1.04
미 작 외	546	1,384	1,159	993	1.82
피고용노동일수 (B)	470	242	253	237	0.50
순고용일수 (A-B)	330	1,425	1,170	1,021	3.09
호당	총 고 용	16.0	38.8	34.7	1.92
평균	순 고 용	6.0	33.1	28.5	4.15
외부노동력고용일수 (C)	0	538	135	210	-
C / A %	0	32.3	9.5	20.6	-

표 3-26 자연부락별 고용노동일수, 1988

단위 : 연인원

구 분		명 고 동	삼 방	유 족	두 문 동
총 고 용 노 동 일 수 (A)		774	251	200	33
미 작		207	41	0	17
미 작 외		567	210	200	16
파 고 용 노 동 일 수 (B)		237	0	0	0
순 고 용 일 수 (A - B)		537	251	200	33
호 당	총 고 용	33.7	62.8	33.3	4.1
평 균	순 고 용	27.7	62.8	33.3	4.1
호 당 품앗이 일 수	모 내 기	9.0	0.8	0	7.8
	벼 베 기	0.2	0	1.7	1.1
	기 타	3.4	0	3.3	7.3
	계	12.6	0.8	5.0	16.1

자연부락별 고용노동력 수급을 보면 두문동은 자급수준이고 삼방과 유곡은 부족 노동력을 주로 명고동에서 조달하고 있다.¹⁰⁾

대양 2리에서는 경작자가 작물재배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청부 경작의 형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을 쓰는 경우에도 경작자의 참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경운, 정지, 방제, 털곡 등의 기계작업에서만 수탁자의 책임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모내기 작업을 전면적으로 위탁한 경우가 처음 나타났는데 65 세의 고령농가(32번 가구)가 1,000 평의 로타리와 모내기를 14 만원에 위탁한 사례가 있다.

농업노임은 1988년에도 남자 6,000원, 여자 4,000원(모내기 때는 6,000원)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논의 면적이 작아 이앙기에도 노동력 부족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앙기때의 여자노임은 1985년에는 남자와 차별이 있었으나 1987년 이후 같은 임금이 지불되고 있다.

10) 고용, 피고용의 합계가 같지 않은 것은 외자노동력의 고용, 농업노동자가구의 고용이 있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노동력 판매일수에 대한 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7 50명이상 고용농가의 성격, 1988

자연 부락	가구 번호	경작면적 (평) (형)	가족노동력	고용 일수	주 요 작 목	고 용 내 용
명 고 동	4	8,920	남 30,31 세 여 65 세	110	인삼(4,000평 경북 상주)	삼장관리 및 이식 현지인 고용
	9	4,560	남 49, 여 45세	184	수도 1,990 평 고추 1,990 평	수도이앙 등 40 명 고추이식 및 수확 125 명
	15	3,550	남 41 세, 여 60,33 세	60	인삼 900 평	인삼 수확 및 가공
	20	2,150	남 65, 여 56 세	54	인삼 1,390 평 수도 660 평	인삼파종 및 수확 30 명 벼 묘판, 이앙, 방제 등
	23	4,370	남 52,여 48세	100	담배 2,400 평	담배 파종, 제조, 수확, 건조 등
삼 방	28	4,650	남 68,26 세 여 62,22 세	70	담배 1,000 평 오이 1,000 평	담배 파종, 제초, 수확 등. 오이 이식
	29	2,858	남 53,32 세 여 51,24 세	100	인삼 800 평 배추 938 평	인삼 포장설치 및 수확
	31	4,000	남 62,여 51세	61	벼 1,800 평 담배 1,500 평	수도작 41 명. 담배등 전작 제초 20 명
유곡	35	3,590	남 55,29 세 여 50 세	160	배추 2,610 평 벼 7,000 본	배추 파종, 수확 30 명 벼 7,000 본, 종균심고, 수확 130 명

표 3-28 농업 노임

단위 : 원 / 일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남 자	모내기	5,000	5,000	6,000	6,000	1.20
	기타	5,000	5,000	6,000	6,000	1.20
여 자	모내기	3,500	3,500	6,000	6,000	1.71
	기타	3,000	3,000	4,000	4,000	1.33

다. 농업기계화

대양 2리는 논면적이 작고 소필지로 분산되어 있어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단지, 운반수단으로서 경운기의 보급률은 31.7% (1988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를 자연부락별로 보면 비교적 경지가 평坦하고 농로가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는 명고동에 11대가 있고 유곡에는 1986년도에 처음으로 2대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1대는 담배건조기의 동력사용 목적임) 삼방과 두문동에는 1대도 없다. 경운기는 1986년도에 2대가 증가하였으나 그후에는 신규 구입농가가 없어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경제력을 감안해 볼 때 그 보급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건조기는 198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6년도에 2대가 신규도입되어 담배경작농가의 노동력 절약을 가져왔다.

표 3-29 농기계 보유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단위 : 대
경 운 기	11	13	13	13	
이 앙 기	-	-	-	-	
콤 바 인	-	-	-	-	
동 력 탈 곡 기	2	3	3	3	
동 력 분 무 기	1	1	2	2	
건 조 기	1	3	3	3	

표 3-30 수도작 기계작업 면적, 1988

단위 : 평 %

구 분	명 고 동	삼 방	유 곡	두 문 동	계
경 운	25,127 (86.0)	1,400 (40.0)	980 (100.0)	1,400 (16.2)	28,907 (68.3)
정 지	26,603 (91.1)	3,200 (91.4)	980 (100.0)	3,500 (40.6)	34,283 (81.0)
이 앙	0 (-)	0 (-)	580 (59.2)	0 (-)	580 (1.4)
수 확	0 (-)	0 (-)	0 (-)	0 (-)	0 (-)

수도작의 이앙과 수확은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운, 정지작업은 명고동은 대부분 경운기 작업으로, 삼방과 두문동은 부분적으로 명고동 사람들의 임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역우로서 감당하고 있다. 유곡은 논면적의 대부분을 고냉지채소에 할당하고 있어 수도작면적은 980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580평은 한 농가가 장래 이주를 위해 외지(충북 제원)에 구입해 놓은 땅이다. <표 3 - 30>에 이앙기 작업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임작업료는 경운이 평당 25원, 로타리가 20~25원이며, 방제는 1회에 4~7원 내외로 조사기간 중 임료의 변화는 없었다. 탈곡작업의 임료는 4%로 의뢰자가 보조노동력의 조달과 비용을 부담한다. '88년의 경우 임작업을 주로 담당한 사람은 이영우(3번, 29세, 경운, 방제, 탈곡), 이정식(17번, 31세, 경운, 정지), 정진원(23번, 52세, 탈곡), 강이연(22번, 31세, 경운, 정지)이다.

4. 겸업화와 농외활동

대양 2리는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경제활동은 대부분 농업에 치우쳐 있어 비농업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1985년의 경우에 총가구 50호중에서 농업외의 직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비농업가구는 1호도 없으며, 겸업농도 3호에 불과하였다. 겸업농은 그후 약간 증가하여 1988년에는 6호에서 7명이 비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항상적인 직원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으며 일시적, 부분적 취업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8년 농외종사자 7명의 활동내역을 보면 2명은 일용노동, 2명은 행상, 1명은 중개업, 마을내 가게 1명, 하숙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는 30대가 5명이며 40대, 50대가 각각 1명씩이다. 또한 겸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면적 3,000평 미만의 영세농층으로 평균 경작면적은 1,729평에 불과하다. 14번 가구는 마을안에서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막걸리 등의 술, 담배가 주요 품목이고 기타 식료품, 과자 등의 잡화를 약간 취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구들의 금산을 출입이 많기 때문에 이용율은 저조하다.

표 3-31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명 고동	삼 방	유 곡	두문동
비농업	호 수	0	0	0	0	-	-	-	-
	종사인원	0	0	0	0	-	-	-	-
겸업농	호 수	3	3	7	6	5	-	-	1
	종사인원	3	3	8	7	6	-	-	1

경영주는 연기군 부강 등 외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삼장용 임대차지의 중개, 인삼 매매, 중개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16번 가구의 경영주는 금산, 옥천 등지에서 소를 구입하여 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1983 ~ 85년에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도 했지만 소파동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아져 중간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두문동에 사는 42번 가구는 저녁 9시에 들어와서 아침 6시에 나가는 군내버스 운전사의 숙박과 식사, 세탁을 맡아주고 있다. 일당 2,500원의 차례를 받고 있다.

1번 가구의 경영주는 31세의 노총각으로 9월 수학기 전에 농사일은 노모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난 케이스다. 적당한 직업을 찾으면 결혼도 하고 이촌할 생각이었으나 직장을 찾지 못하고 낱품노동을 하다 작업중 허리를 다쳤으며 이듬해 (1989년) 초에 귀향하였다.

7번 가구의 경영주는 남편을 여원 여성가장으로 노모 ('89년, 68세)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1987년까지는 읍에 있는 인삼조합에 일용노동자로 다니며 농사를 지었으나 소득이 작고 (일당 3,500원 수준) '86년, '87년에 차례로 아들,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금산읍에서 거주하게 되자 '88년 3월부터 읍에 있는 식당에 취직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노모가 병환이 들어 마을에 있는 자녀 3명의 뒷바라지도 할겸 귀향하여 집안일을 맡고 다시 인삼조합에 다니게 된 경우이다.

표 3-32 경업농의 농외활동 내용, 1988

가구 번호	경지면적(영)		농 외 활 동 종 사 자								
	소유	경작	농외활동내용	관계	성	연령	종사일수	취업지	연간소득(만원)	비 고	
1	1,000	3,500	날품운동	본인	남	31	100	서울	100	임시출타 (이촌목적)	
7	1,600	1,000	식당종업원 날품운동 (인삼조합)	본인	여	37	180 90	금산읍	120 30	임시출타 통근(영농참여)	
14	0	2,400	인삼관련 증개업	본인	남	39	90	충남일원	150	임시출타	
			가 계	처	여	38	365	마을내	100		
16	1,140	1,140	소 장 사	본인	남	49	100	충청일원		거의 소득을 얻지 못함	
21	900	900	인삼장사	아들	남	30	100	금산군내	50	트럭구입	
42	770	1,433	하숙(버스 기사)	처	여	54	365	마을내	91		

이 밖에 21번 가구는 아들이 트럭을 구입하여 이촌한 형과 함께 인삼장사를 4 달 가량 하다 중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양 2리의 농외활동은 일시적, 부분적인 것으로 마을경제에서 갖는 위치도 미약한 편이다. 또한 마을의 입지조건을 감안할 때 그 확대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5. 가계구조

자급자족적 경제구조하의 농가가 상품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해마다의 농가의 수입과 지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된다.

생산측면에 있어서 주요 지출항목인 종자, 비료, 농약 등의 투입이 증가되고 그 대부분의 현금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하며, 음식, 의복, 광열 등의 소비지출도 점차 구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장고,

T V, 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편익시설과 정보전달매체, 자녀 교육비 등은 농가의 자금수요를 확대하고 그 운용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농가가 어느 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가에 따라 농가의 발전지향이 다양화된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수입, 소비지출, 투자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나, 조사의 한계로 인한 자료의 제약상 농업고정자산투자, 농업외 투자, 내구소비재 구입, 교육 및 의료비, 이전 수입 및 지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의 부채 및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한정키로 한다.

가. 농업투자

대양 2리에서 농업고정자산투자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4년간 총 투자액은 3,396 만원으로 호당 81 만원에 불과하다. (농가경제조사의 1988년 평균액수는 160 만원). 이는 마을의 입지가 산간오지에 속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유인이 작기 때문으로 보이며 농지구입에 대한 투자가 4년간 3건(1,880평)에 불과한 것에서도 이러한 사정의 일단을 볼 수 있다.

표 3-33 농업고정자산 투자액¹⁾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농 지 구 입	1	1,040	1	280	1	5,500	0	0	3	6,820
농 기 계	2	1,810	4	4,873	1	260	3	1,600	10	8,543
농 지 기 반	0	0	2	145	1	450	16	11,845	19	12,440
기타시설물	3	1,750	2	3,710	0	0	1	700	6	6,160
계	6	4,600	9	9,008	3	6,210	20	14,145	38	33,963
호당평균액 ²⁾	-	102.2	-	209.5	-	151.5	-	345.0	-	808.2 ³⁾

1) 대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농업고정자산으로 분류되나 그 구입, 판매의 변동이 심하고 또 비육목적이 강하여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2) 농가만의 평균임

3) 매년의 평균액을 합계한 것임

농업투자중 건수에서나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이 농지기반에 대한 투자이다. 4년간 19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1988년에 집중) 객토가 13건, 관정 4건, 개답 2건, 농로 1건 등이다. 농기계 구입은 총 10건으로 작지 않은데 경지조건상 트랙터, 콤바인 등의 구입이 없어 액수로는 854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가 5대 (1대는 중고품)로 가장 많고 탈곡기 2대 (1대 중고품), 분무기 2대 (1대 중고품), 벗짚절단기가 1대이다. 기타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비닐하우스(버섯재배용) 1건, 담배건조기 3건, 기타 삼장비용 등이다.

나. 농업외투자 및 내구소비재 구입

농가지출중 한 분야는 농업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얻거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고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지출부문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민이 화폐경제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대양 2리의 농업외 자산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약하다. 조사기간중 건물의 증개축이 4건 있었으며, 트럭을 구입한 가구가 2호 있어 4년간 총투자액은 6건 910만원에 불과하다. 건물에 투자한 4호중 1호(29번 가구)는 금산읍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위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타자가 늘어나 방을 1개 증축한 경우고 나머지 3호는 마을내의 거주가옥을 증개축한 경우다. 트럭구입 가

표 3-34 농업외투자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 지	-	-	-	-	-	-	-	-	0	0
건 물	-	-	2	900	1	4,000	1	1,700	4	6,600
주식 및 유가증권	-	-	-	-	-	-	-	-	0	0
기 타	-	-	1	1,500	-	-	1	1,000	2	2,500
계	0	0	3	2,400	1	4,000	2	2,700	6	9,100
호 당 평균	-	0	-	49.0	-	87.0	-	58.7	-	194.7

구는 10번(1986년 구입, 가구주 22세), 13번(1988년 구입, 가구주 34세) 가구로 배추 등의 농산물 운송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에서는 통신수단인 전화, 가정주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냉장고, 가스렌지가 견수에서나 금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화는 명고동과 두문동에 공중전화가 각 1대씩 있었으나 1987년에 회선증설로 양연도에 걸쳐 25가구가 새로 전화를 놓았다. 가스렌지와 냉장고도 1987년 이후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탈수기와 세탁기도 점차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¹¹⁾

표 3-35 내구소비재 구입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7		198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승	용	차	-	-	-
오	토	바	-	-	-
전		화	17	3,860	8
T	.	V	1	30	-
냉	장	고	6	1,755	4
세	탁	기	2	250	4
가	스	렌	8	943	12
장		지	-	-	1
기		농	-	-	3)
		타	-	-	90
		계	34	6,838	32
호	당	평	-	148.7	-
		균			108.8

1) 1대는 탈수기

2) 4대 모두 탈수기

3) 전축, 자전거, 전기밥통 각 1대

11) 내구소비재의 보급현황은 4장 4절 참조.

다. 교육 및 의료비

농가의 가계비 중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등은 그 절대액수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는 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대양 2리에서 중학교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88년 현재 모두 33명 (호당 0.72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외지에 출타해 유학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비는 대부분 마을에 있는 본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도시에서 취업한 동생, 출가한 자매가 부담하는 경우도 각각 한 경우씩 있었다. 유학생이 많지만 마을의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대부분 방을 빌려 자취를 하고 형제가 여려명 출타해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1인당 생활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1988년의 전체 교육비 부담액은 2,464만원으로 중학생 이상의 학생이 있는 21가구에서 평균 117만원이 지출되었다. 마을의 총교육비 지출액은 1987년에 비해 21.9% 증가하였으며, 1988년 경우 연간 200만원 이상 지출 가구가 4호(14,35, 46, 50번 가구), 100~200만원 지출가구는 6호에 이르고 있다.

표 3-36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 1988

단위 : 천원

구 분	학 생 수		학 비 부 담		학생 1인당연간비용 ¹⁾			마 을전체의 교育비부담
	통 학	출 타	분 가	기 타	납 입 금	생활비 ²⁾	계	
중 학 生	1	14	15 ³⁾	0	166	390	556	8,342
고등 학 生	1	11	12 ⁴⁾	0	292	488	779	9,349
대 학 生	0	6	4	2	583	575	1,158	6,950
계	2	31	31	2	-	-	-	24,641

1) 농촌본가에서 부 담한 액수

2) 자택에서 통학하는 경우의 숙식비는 포함시키지 않음

3) 이중 7명은 영세민가구 자녀로 학비 감면

4) 이중 1명은 영세민가구 자녀로 학비 마련

표 3-37 교육비 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7			1988		
	총 액 수	호당평균	지출호당	총 액 수	호당평균	지출호당
납 입 금	-	-	-	9,484	206	452
생활비	-	-	-	15,157	330	721
계	20,067	436	1,115	24,641	536	1,173

표 3-38 의료보험 여부

단위 : 호 %

구 分		1987	1988
직장	경 영 주 본 인	-	-
의 보	출 타 자녀	4 (8.7)	6 (13.6)
직장 + 지역		-	-
지역 의 보		-	7 (15.9)
의 료 보 호		28 (60.9)	20 (45.5)
의 료 부 조			11 (25.0)
일 반		14 (30.4)	-
계		46 (100.0)	44 (100.0)

- 1) 1호는 불확실, 1호는 주민등록상 분리가 안되어 2가구가 1가구로 지역 의보에 편입되어 있음.

1988년은 농촌에 지역의료보험이 적용된 첫해로 농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양 2리는 소득수준이 낮아 영세민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의보 실시 전에도 의료보호나 의료부조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았으며, 1988년에는 이 숫자가 더욱 늘어나 44호중 31호(70.5%)가 해당되어, 지역의보에 가입된 가구는 7호에 불과하다. 이들의 평균 의보료는 8,314 원으로 부담가구들이 액수가 많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6호는 도시에서 취업한 자녀들의 직장의보

표 3-39 의료비 지출

구 分		1987	1988 단위 : 천원
지 출	가 구 수	15	12
의 药 비 액 수		11,210	5,660
호 당 평 균		244	123
의 * 료 비 지 출 규 모	10 만 원 미 만 1 0 ~ 2 0 2 0 ~ 5 0 5 0 ~ 100 100 만 원 이 상	2 2 5 4 2	2 3 2 1 4

* 의료보험료 제외, 자부담액

표 3-40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988

가구 번호	환자		의료비 (천원)	병 명	가구 번호	환자		의료비 (천원)	병 명
	성	연령				성	연령		
2	여	68	1,000	중 풍	37	여	68	300	중 풍
6	남	61	200	고혈압	38	남	51	1,000	위궤양
7	여	68	1,150	횡달(사망)					
8	남	15	1,000	신경쇠약					
22	남	68	500	중 풍					

에 피부양자로 보험대상이 되어 있다.

의료비 지출은 1987년에는 호당 24만4천원, 1988년에는 12만3천원 수준이나 가구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88년에는 연간 10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가 4호로 늘어났다. 연간 2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의 상병을 보면 중풍이 3건으로 가장 많다.

라.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농촌가족중 도시로 나간 출타가족(도시분가)과 농촌본가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 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취학출타자는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본가에 의존함으로써 농촌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업출타자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본가에 송금을 하거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일시적 실직, 질병 등의 상황에서는 본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향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분가한 형제, 자녀의 경우에 농촌가족과의 사이에 증여 등의 경제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이전수지로 처리).

〈표 3-41〉은 출타, 분가가족과의 경제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대양 2리에서는 유입에 비해 유출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으로 유출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취학출타자의 관계를 보면 19 가구에서 37 명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받는 보조액은 총 2,596 만 6 천원으로 해당 136 만 7 천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

도시에 나가 취업한 출타가족은 총 48 명중 6 명만 본가에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852 만원이다. 반면 본가에서 식량을 보내주는 경우도 3 건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대양 2리의 경우 농촌본가와 취업출타자녀 사이에 경제적 의존관계가 미약한 것을 말해준다.

이전수지에서는 마을전체로 보아 수입은 330 만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912 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출이 많은 것은 자녀, 형제의 결혼시 분가몫으로 도시정착자금을 지원하거나 혼인비용을 부담하고 농지를 상속몫으로 이전해 준 경우가 많다.

표 3-41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단위 :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보 조 (A)	26,220	23,166	23,139	26,646
	피 증 (B)	0	1,900	3,500	8,520
이전수지*	수 입 (C)	—	—	700	3,300
	지 출 (D)	0	2,840	5,775	19,120
순 유 입 (B+C-A-D)		—	—	- 24,714	- 33,946

* 1985,86년의 이전수입은 조사되지 않았음.

표 3-42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취학출타자수	그중보조받는수	총 보조액	학생 1인 당보조액	보조가구당 평균 부담액
37 *	34	25,966	764	1,367

* 숫자가 앞의 <표 3-36>과 다른 것은 국민학생 4명과 학원생 2명이 포함 되기 때문임.

표 3-43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총 액	1인 당액수	가구당액수
보 조 (A)	3	680	227	227
파 증(송금, B)	6	8,520	1,420	1,420
A - B	-	7,840	-	-

표 3-44 이전수지, 1988

단위 : 건, 천원

구 분	현 금	농 산 물	농 지	기 타	계
이전수입	건 수	2	0	0	7 1)
	액 수 (A)	1,500	0	1,800	3,300
이전지출	건 수	7 2)	5	1 3)	0
	액 수 (B)	13,950	1,570	3,600	19,120
순 수 입(A-B)	- 12,450	- 1,570	- 3,600	1,800	- 15,820
호당평균	수 입	33	0	39	72
	지 출	303	34	78	416
	순 수 입	- 270	- 34	- 78	- 344

1) 냉장고 3대, 한약재 1건, 가스렌지 1건, 전기밥통 2건

2) 이중 5건 13,400 천원은 분가물 또는 결혼비용

3) 상속물임. 논 900 평

기 때문이다. 이들은 총 6건에 1,700 만원으로 전체 이전지출의 88.9 %에 이르고 있다. 이전수입에서는 생활비 보조외에 생활용품의 증여가 많고, 이전지출에서는 분가몫을 제외하면 식량보조가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대양 2리의 이전수지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는 마을주민들의 경제력이 낮고, 쌀 생산량이 작으며, 분가한 가족들의 도시에서의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저축 및 부채

농가의 연간 총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부채 및 저축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대양 2리의 부채규모와 그 구성은 전국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1985년의 평균 부채액은 235만 천원으로 이중 사채의 비중은 37.4 %였다. 연도간 변화를 보면 제도금융의 액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 243만 7천원으로 늘어난 반면(연 평균 증가율 18.3 %) 사채는 46만 5천원으로 총부채중 차지하는 비중은 16.0 %로 감소하였다.

가구별 부채규모를 보면 상당수의 가구가 부채가 전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반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부채농가도 많다. 특히 부채가 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85년의 1호에서 3호로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1988년말 현재 부채가 500만원 이상인 9호의 부채발생이유를 보면 3호(4, 20, 35번 가구)는 농업투자가 주된 경우이며 나머지 6호는 병원비, 교육비 등의 소비지출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농가에 있어서도 복합영농 등 영농의 실패로 인한 농가수입의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5 호당 평균 부채

단위 : 천원

	1985 (A)	1986	1987	1988 (B)	B/A×100%
농 협 *	1,473	1,677	2,091	2,437	165.4
사 채	878	823	606	465	53.0
계	2,351	2,500	2,697	2,902	123.4

* 은행등 기타 금융기관 포함

표 3-46 부채규모별 가구수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농 가	비 농 가
0	12	12	17	9	4	5
100 만원미만	3	4	2	7	7	
100 ~ 200	10	9	5	7	7	
200 ~ 300	14	11	9	8	8	
300 ~ 500	4	8	7	6	6	
500 ~ 1,000	6	3	5	6	6	
1,000 ~ 1,500		1		1	1	
1,500 ~ 2,000	1			2	2	
2,000 만원이상		1	1			
계	50	49	46	46	41	5

반면, 부채가 없는 가구는 영세농이거나 비농가가 대부분이다. 비농가중 2호는 지대수입으로, 3호는 노임소득과 영세민 보조사업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노령가구로서 낮은 소비수준 상태에 있다.

농촌가구의 저축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교육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보험의 판매가 농촌지역에까지 확산된 것에 연유하며, 농가들도 부채의 증가속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가구도 있고, 장래예의 준비의식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대양 2리에서 1988년에는 19가구가 총 2,670만원의 저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총 부채액의 20%에 불과한 액수이지만 저축농 가당 140만5천원에 달하며 198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에는 저축액이 3백만원이 넘는 가구도 3호 포함되어 있다.

저축과 부채를 합하여 순저축, 순부채 액수로 가구를 구분한 것이 <표 3-50>이다. 23.9%의 가구가 부채·저축이 생계되는 수준에 있는 반면 65.2%는 순부채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저축이 많은 가구는 5호에 불과하다. 가구성격별로는 비농가가 저축·부채가 전혀 없는 반면, 겹업농은 순부채가 88만8천원, 전업농은 289만8천원으로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채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고액부채가구의 개황, 1988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경지면적		부채 액 (천원)	비고
		소유	경작		
4	32	2,620	8,920	16,000	후계자자금(800 만), 농지구입자금(600) 등 농업투자
5	61	2,406	2,922	5,300	자녀대학 학비, 인삼농사 실패
8	52	4,217	4,217	5,000	병원비 ('87년 700 만원)
9	49	4,230	4,560	16,693	영농실패(참깨, 담배, 소, 대추), 자녀교육비 (연 180 만원)
20	65	2,050	2,150	6,000	영농자금(삼장시설)
35	55	3,340	3,590	10,550	경운기구입, 트럭구입자금(아직 미구입)외 영농자금
37	66	3,482	3,972	6,000	서울거주 아들 보조, 부인 병원비
42	63	770	1,433	5,500	아들 대학 재학, '88년 아들 결혼(200 만원 보조)
46	50	1,413	2,847	5,250	자녀교육비(4명 출타, 연간 350 만원 지출)

표 3-48 부채없는 가구의 개황, 1988

구분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가구 원수	경지면적		농외활동		비고
				소유	경작	내용	연간수입	
농 가	10	24	2	700	1,700	소장사	-	경운기 판매, 출타자녀 보조(56 만원)
	11	68	2	1,200	1,800			
	16	49	3	1,140	1,140			
	39	48	2	2,900	2,900			
비	24	79 (여)	2	1,960	0			임대료수입(90 만원)
	25	61 (여)	1	0	0			농업노임수입(50 만원), 2종영세민
농 가	27	79 (여)	1	0	0			거택보호자
	33	78 (여)	1	4,200	0			임대료 수입
	47	77	2	400	0			임대료 수입(10 만원), 2종영세민

표 3-49 호당 평균 저축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B/A × 100 %
금융기관	56	131	159	559	998.2
계 (契)	0	0	0	0	—
사 채	34	34	39	22	64.7
계	90	165	198	581	645.6

표 3-50 순부채·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단위 : 호 %

구 분		계	전 업 농	겸 업 농	비 농 가
순 부 채	1,000 만 원 이 상	3 (6.5)	3		
	500 ~ 1,000	3 (6.5)	2	1	
	300 ~ 500	6 (13.0)	6		
	200 ~ 300	9 (19.6)	8	1	
	100 ~ 200	9 (19.6)	8	1	
중 간 (-100 ~ 100 만)		11 (23.9)	5	1	5
순 저 축	100 ~ 200	3 (6.5)	2	1	
	200 ~ 300	1 (2.2)	1		
	300 ~ 500	1 (2.2)		1	
	500 만 원 이 상				
계		46 (100.0)	35	6	5
평 균 순 저 축 (천원)		△ 2,321	△ 2,898	△ 888	0

제 4 장

사 회 구 조

대양 2리는 행정적 자치기구로서 행정리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명고동과 두문동에 대동계가 있어 명고동과 이에 부속된 자연부락과 두문동이 각기 별개의 사회조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양 2리의 자치조직은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행정이 외의 경제 사회적 조직은 명고동과 두문동의 대동계를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남이면의 명고동과 두문동이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되었으나 두 자연부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리라는 강제적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경제·사회단위로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자치기구로서 행정리는 1인의 이장과 5개 반으로 구성된다. 리개발위원회는 이장 등 마을의 지도자를 선출하며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구역 할¹⁾을 한다. 자생적 자치기구로서 역할해 오던 대동계는 명고동과 두문동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리를 이루었으므로 행정리에 마을자치기능을 넘겨주고 산체를 집전하는 등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회의 유지와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협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각종 사회집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 중에서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 등 사회적 통과의례에 마을 사람들끼리 상호부조하는 계조직이다.

1) 대양 2리는 4개의 자연부락이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모이는 마을 총회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발위원회는 마을총회의 대의 기구역 할을 한다.

마을주민들이 당하는 상사는 위친계를 통해서, 혼례는 결혼계 등을 통해서 상호부조 하며 동갑계, 친목계 등을 통해서 마을주민으로서 정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애경 사에 부조하는 기체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사회망은 공간적으로 자연부락별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또래집단에 의해 의사교환망을 형성한다. 마을주민들의 지도력구조도 명고동과 두문동으로 나뉘어져서 나타난다.

대양2리는 마을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지배적인 성씨는 없다. 1950년 대 이전에는 두문동에 潘南 朴氏가 지주노릇을 했다고 하나 그들은 모두 이촌했다. 다만 명고동에 東來 鄭氏와 海州 吳氏가, 삼방에는 南原 梁氏, 유곡에는 海平 吉氏와 晋州 姜氏가, 그리고 두문동에는 玄風 郭氏가 타성 보다 큰 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혈연조직을 이룰만큼의 세는 아니다.

대양2리는 산간오지 마을로서 전통적인 무교적 신앙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공동신앙으로 명고동과 두문동은 각기 별도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고, 주민들은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 마을주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무교적 신앙을 실천하는 가구는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교적 관습과 세시풍속은 6.25전쟁 이후 많이 사라졌고,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이농과 함께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보급된 TV와 전화의 보급으로 대양2리 주민들은 산간오지의 고립성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가스렌지 등의 보급으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1. 사회집단

대양2리는 명고동, 삼방, 유곡, 두문동의 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삼방, 유곡 등에는 양씨, 길씨 등이 지배적 성씨로 거주하고 있으나 문중을 조직할 만큼 큰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양2리에는 사회집단으로 혈연집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집단으로 대동계와 행정리가 있다. 대동계는 대양2리의 자연부락인 명고동과 두문동에 각각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행정리는 이 두 대동계를 포함한다.

두 대동계는 명고동과 두문동의 마을 역사와 같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마을 원로들은 증언한다. 그것은 이 마을 동체의 대상인 神木¹⁾ (등구나무)의 수령 추정으로도 가능하다. 이 두 대동계의 존재는 명고동과 두문동이 과거에 각각 독립된 자치행정을 갖춘 마을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지만 8.15 해방과 6.25 전쟁, 화전정리사업, 새마을운동, 산업화에 의한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 1945년 이래 계속되어 온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두 마을은 한낱 한 행정리를 구성하는 작은 자연부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자연부락의 대동계도 자치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산체의 공동집전을 준비하기 위한 마을회의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두 대동계는 계날 마을의 일년간의 남·여 노임단가 등을 결정하며 마을공동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염출하고 마을 대소사의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한다.

행정리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행정리동설치에 관한 군조례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명고동과 두문동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각기 독립된 두 마을이었으며 지리적 거리도 2.7 km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행정리가 된지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의 행정리로서의 실질적 통합²⁾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행정리 속에 두개의 대동계의 존속으로 인해서 마을지도자의 선출, 마을 공동재산의 소유, 주요의사결정 등 마을자치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있어 미묘한 갈등이 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대양 2리에 결성된 자생적 이익집단의 총수는 25개로 나타난다. 이를 연대별 집단별로 분류해 보면 <표 4-1>과 같다. 산간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의 종류는 상사관련 계로서 전체의 52.0%를 차지하며 혼사 및 친목관련 계가 각각 20.0%, 38.0%를 차지한다.

연대별로 가장 많은 이익집단이 조직된 때는 1970년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를 고비로 80년대에는 그 집단의 조직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1)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백제가 패망한 후 그 유민들이 금강을 타고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이 전통적인 산신제를 동체로 지켜오고 있으며 마을앞 동구나무의 수령이 400년 혹은 7~8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마을의 역사는 구전되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매우 오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2) 두문동과 명고동은 농작업시 서로 노동력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회집단이 두문동 거주자와 명고동 거주자로 구분되어 조직되고 있다.

1945년 이후 최초로 나타난 자생적 이익집단은 喪事관련 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친계가 대종을 이룬다. 위친계는 1956년, 즉 6.25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고 1980년대에는 다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의 인구가 이촌 등의 이유로 70년대 이후 크게 줄어 들어 위친계를 조직할 또래집단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내 또래집단의 위친계가 형성되지 않는 반면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을내 혹은 마을밖 사람들과 구성되는 친목계가 위친계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표 4-1 이익집단의 조직현황, 1945~86

년대 구분	집 단			수 *
	상사관련 계	혼사관련 계	친목관련 계	
1950년대	3	-	-	3(12.0)
1960	3	-	-	3(12.0)
1970	6	4	5	15(60.0)
1980	1	1	2	4(16.0)
계	13 (52.0)	5 (20.0)	7 (38.0)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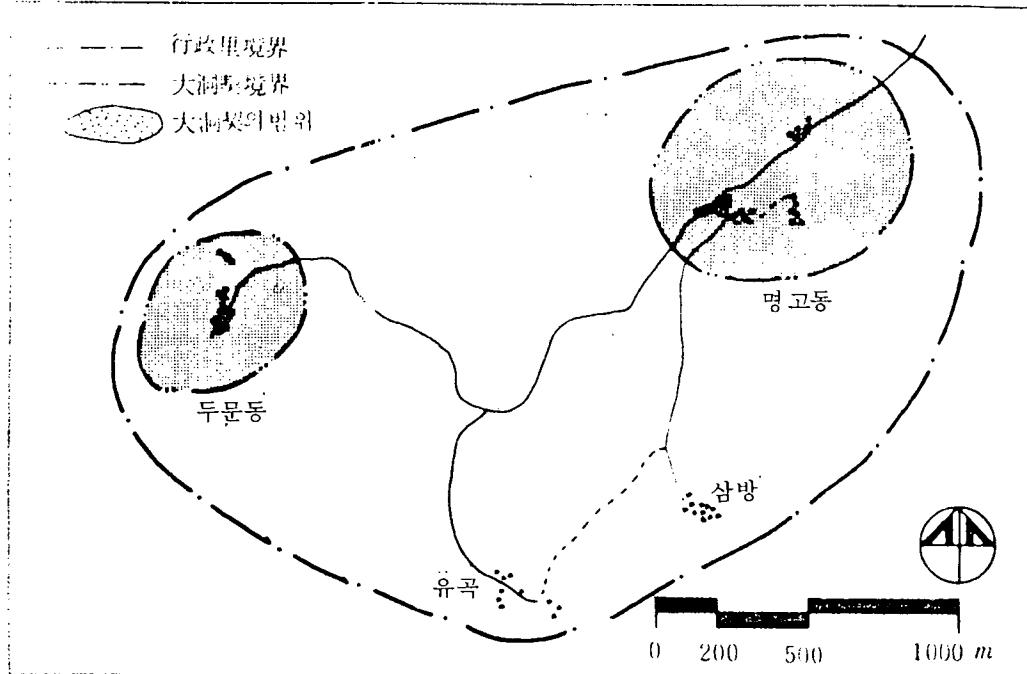
* 이 표에 나타난 집단수는 1945~86년 사이에 조직되었다가 해체된 집단수까지 포함한 전체수임.

혼사관련 계는 1971년부터 1983년까지 5개가 꾸준히 나타난다. 혼사계는 대부분 喪事계나 친목계보다 집단의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 조직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 그러나 혼사계도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조직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양2리에 있어서 친목관련 계는 197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6년까지 7개가 꾸준히 조직되어 왔다. 친목계의 조직은 198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보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喪事계나 혼사계 보다는 많이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에서 喪事계나 혼사계가 담당하던 사회경제적 협동 역할을 친목계가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양2리에 가장 먼저 결성된 비자생적 이익집단은 1962년도에 조직된 대양리 농업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대양리 농업 협동조합도 대양 1, 2리를 통합하여 조직한 집단이

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문동과 명고동이 하나의 행정리로 통합되면서 마을 자치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산체를 주관하는 제사기구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양 2리가 아직도 마을 공동체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대동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부락의 노임단 가 결정, 마을행사 등 자치기능의 일부도 함께 존속되고 있다.

그림 4-1 대양 2리의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의 공간적 분포



나) 구성원

명고동 대동계는 명고동, 개양골, 도통골 주민 27명으로 구성되며 두문동 대동계는 두문동 주민 11명으로 구성된다. 명고동 대동계원과 두문동 대동계원은 농사일 등에 있어서 대동계 내에서는 노동력 등의 교환이 일어나지만 두 대동계원 간에 농사일에 의한 노동력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집단 구성에 있어서 일부집단은 두 대동계 집단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는 모두 대동계의 공동재산이 없고 또 마을성원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주해 오는 입주자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이사오거나 분가해서 새 가구를 차릴 경우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관습은 기억되고 있다.

다) 기 구

명고동과 두문동의 대동계는 내부조직이 명시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지 않고 원로들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계의 대표자도 없고 계업무를 추진하는 하부구조도 없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대동계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계를 한다. 대동계의 계는 명고동, 두문동 모두 음력 설날 스무날에 갖는다. 계날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 이는 계가 마을 공동신앙인 산제를 지내기 위한 모임이므로 산제가 마을의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계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사랑방에서 개최된다. 계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어 오전 중에 끝난다. 대동계는 계장 등 형식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계는 관례에 따라 마을 원로들이 주도한다. 따라서 계의 진행에 형식이 없으며 많은 토론 끝에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사항은 산제 祭主 선발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주민 중에서 선발한다.

- ① 깨끗한 사람.
- ②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큰 흥이 없는 사람.
- ③ 적어도 40세 이상의 중년이어야 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제주로 추천될 만큼 덕을 갖춘 사람.

제주는 계에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는 원로들이 결정하면 중장년층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주가 결정되면 祭需費를 산출하여 산제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마을 주민 각호에 균등 분할 배당한다. 만약 마을이 특정인으로부터 기부금이 있었거나 마을공동기금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주민 부담액이 줄어든다. 대동계에서 산출된 제수비용과 각호 부담금은 반장이 수합하여 제주에게 전달한다.

제주선정과 제수비용의 산출이 끝나면 마을의 중요한 대소사를 논의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는 명년도 마을의 임금의 결정이다. 마을의 남녀 임금의 결정은 ①마을내 노동의 수요와 공급, ②쌀값 등 물가의 오름세, ③인근 마을과의 형평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동계에서 논의하는 다른 사항들은 마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간 공

표 4-2 사회집단의 조직변천과정, 1945~86

지 역 집 단	자 생 적	명고동 대동계 두문동 대동계
	비 자 생 적	행정리 '72 리개 발위원회
이 익 생 집 적 단	자 생 적	'56 ← 위친계 → '56 ← 위친계 → 해체 '86 '56 ← 위친계 → '57 ← 위친계 → '60 ← 위친계 → '60 ← 위친계 → '63 ← 위친계 → '70 ← 위친계 → '70 ← 위친계 → '71 ← 친목계 해체 '86 '72 ← 결혼계 → '74 ← 위친계 → '74 ← 동갑계 → '76 ← 위친계 → '84 '77 ← 결혼계 해체 → '78 ← 결혼계 → '78 ← 광목계 → '78 ← 친목계 → '78 ← 결혼계 → '78 ← 친목계 → '78 ← 친목계 → '79 ← 위친계 → '81 ← 위친계 → '82 ← 동갑계 → '83 ← 친목계 → '87 놀이계 →
비 자 생 적		'62 ← 리협동조합 → '72 해체, 남이면단위농협으로 통합 '77 ← 새마을영농회 → '77 ← 새마을부녀회 →
		'45 '50 '55 '60 '65 '70 '75 '80 '85

고 그 사무실과 조합장이 대양 1리에 있었으므로 대양 2리의 사회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양리 농협의 조합원은 모두 10개의 자연부락에 흩어져 있었고 한 자연 부락에서 다른 한 자연부락의 사이가 10km를 넘는 경우도 있어 사회집단으로서 농업협동조합구 성원의 결속력이 매우 약했다. 또한 미약한 행정력과 자금의 영세성으로 농업협동조합 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비료의 구입이나 영농자금의 배정 등은 다른 마을과 다름없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조합비를 출자하기도 했다. 대양리 농업협동조합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1972년 남이면 농업협동조합의 발족과 더불어 이에 통합되었다.

새마을영농회는 1977년에 발족하였다. 새마을영농회 발족 당시 정부의 훈령은 마을 단위에 기 조직되어 있는 농사개량 구락부와 협동회 등 농민들의 사회집단을 통합하여 하나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1977년 당시 농사개량구락부와 협동회의 활동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7년에 발족한 새마을 부녀회는 기존의 부녀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조직된 부녀회는 모심기, 밭매기, 벼베기 등 공동작업과 절미·저축운동 등을 추진하여 부녀회 공동자금을 만들고 이를 새마을사업 추진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5년을 고비로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자 부녀회 활동도 멈추게 되었고 1977년도의 부녀조직의 통합·개편은 사실상 명목상의 일이었다.

1987년 대양 2리 새마을부녀회는 부녀자 45명으로 다시 조직되고 조직목적도 정부가 제시하는 예규에서 벗어나 1가구 1통장 갖기운동의 저축증대 운동으로 단순화시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가. 지역집단

① 대동계

가) 조직목적

대양 2리의 대동계의 조직목적을 알려주는 문헌기록이 없어 조직년대와 당시의 목적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가 각각 산제의 집전, 마을노임 단가의 결정, 기타 마을 내 주요 행사, 업무에 대한 협의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명고동과 두문동의 마을자치를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4

동작업, 예를 들면 도로보수와 도로신설, 마을내 해묵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는 주관자가 없고 계가 소유한 공동기금 등이 없으므로 계가 끝난 후 음식이나 술 등에 의한 향연이 없다. 다만 마을 반장이나 유지들이 계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준비된 술(막걸리)이 2~3되 정도 간단한 안주와 함께 제공된다.

대동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다. 명고동 대동계의 의사결정은 마을 원로들의 의사가 크게 존중된다. 그러나 두문동의 경우는 구성원 수도 적고 노인들도 없기 때문에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다같이 존중된다.

마) 경비의 분담과 이익의 분배

대동계의 운영에 있어서 계원의 경비분담과 이익의 분배는 평등주의적 원칙이 적용된다. 산체집전을 위해서 경비를 가구별로 부과할 때에는 모든 가구에게 균등하게 부과한다.

바) 재산관리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는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명고동 대동계는 1930년대까지 임야 40ha정도를 마을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일제의 공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팔아 공동전답을 구입했으나 1930년 큰 홍수로 대부분 유실되고 남은 토지를 처분하여 이를 기금으로 부인회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이 기금도 관리부실로 1945년 이전에 없어졌다.

사) 규범과 통제

대동계의 계날은 계의 성원들을 공동체적 연대의식으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명고동과 두문동의 대동계는 모두 불문률로서 계날을 정하고 있지만 마을내의 전 가구주는 이날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내부조직이 없어도 성원들이 모이고 그들 공동의 과제인 산체집전 계획과 마을 일들을 논의하며 공동체 성원으로서 결속을 다진다.

산체의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된 그날부터 집대문에 금줄을 치고 祭日까지 당사자 부부는 물론 전 가족이 몸을 단정히 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 접근하지 않으며 심신을淨하게 다듬는다. 마을 주민들도 제주의 집에 금줄이 쳐지는 순간부터 그 집을 드나드는 것을 삼가하고 온 마을 전체가 제를 치르는 기분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피

를 보는 일 3) 말다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 한다.

그러나 명고동과 두문동 대동계는 이 계에 참석 하지 않은 성원에 대한 제재수단은 갖지 않는다. 또 산체준비기간에 이를 어긴 성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다. 그러나 모든 성원은 이러한 규범을 어기는 것이 본인의 안위에 좋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② 행정리

가) 조직 목적

대양2리⁴⁾로 불리는 행정리는 지방자치에 따른 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본위의 리자치행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자치행정의 기반을 잊고 행정수행을 담당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던 리동장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성원

행정리의 구성원은 행정리의 경계내에 거주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빌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행정리에 있어서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빌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가구원 중의 일부는 행정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을내의 자치행정에서는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되나 행정처리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등록은 빌하고 있으나 실제로 마을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은 행정업무 처리기준에는 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나 리의 자치행정에서는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리에 새로이 구성원으로 입주하는 가구는 관할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리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그는 마을내에서 실질적인 구성

3) 마을내에서 돼지나 닭 등을 잡는일 등을 말한다.

4) 두문동, 명고동, 유곡, 삼방 등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양리로 통합되었다. 다시 1949년 9월 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 32호)으로 행정리의 설치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대양2리는 금산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행정리다.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상호 이웃을 확인하는 사회적 입주신고를 해야 한다.

다) 기 구

행정리는 리자치보다도 시군과 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행정지시 또는 정보를 전체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행정 리의 주요기구로 리장, 반장 및 리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의 설립근거는 각군의 리동장 인사규칙, 반설치조례 및 반운영규칙, 리동개발 위원회 설립규정 등이 있다. 군조례에 따르면 리장은 리개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해서 면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조례에 정해진 이장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일반 예비군 또는 재 향군인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농어촌 개발의 시대적 사명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①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또는 여자로서 한다. 다만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남자와 여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

③ 전기 ①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한편 리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임명권자인 면장에 의해서 직권 면직된다.

- ①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이장 인사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③ 신체 및 정신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④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장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5조 및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받으며 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①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리주민의 지도

- ② 행정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 ③ 주민거주 동태 조사 파악
- ④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
- ⑤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배분
- ⑥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 ⑦ 민 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지도 실시

반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30호 단위로 리내에 설치하며 2년 임기의 반장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반원의 지도
- ②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③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반적부의 관리
- ④ 각종 사실 확인
- ⑤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 ⑥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 ⑦ 홍보 및 주민 계도
- ⑧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
- ⑨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리개발위원회는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향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2년부터 군조례로 각 리동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② 리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③ 리민의 복지 문화 후생에 관한 사항
- ④ 리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 ⑥ 리동 방위 및 리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읍, 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군조례에 의한 리동개발위원회는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리동대장 등 3명의 당연직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읍면장이 위촉할

리개발위원은 리장이 추천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행정리는 지역공동체로서 사회집단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단의 목표설정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리는 년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대양 2리의 경우는 두문동과 명고동이 2.7km나 떨어져 있는 바와같이 전체 주민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리개발위원회가 주민총회를 대신 한다.

리개발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마을지도자가 되며 부녀지도자, 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기타 개발위원 11명은 각 반별로 추천을 받아 이장이 면장에게 추천하면 면장이 개발위원으로 위촉한다. 반면 이장은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따라서 개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지도자의 선출
- ② 마을 회계결산
- ③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 ④ 마을개발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 및 결정

마) 경비의 분담과 이익의 분배

행정리는 거주지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원이 결정되므로 마을행정이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모두 구성원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 부담은 대동계와는 달리 차등적이다. 즉 정부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하며 영세농가 생활보호대상 등은 부분적 또는 전면 면제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리정세는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부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정리는 본래 정부의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므로 마을 주민들이 행정리의 자치활동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바) 재산관리

대양 2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새마을회관과 창고 및 대지 뿐이다. 새마을회관은 1978년도 퇴비시상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바탕으로 하여 15평 규모로 건립하였다. 새마을회관 부지 69평은 가구당 2,000원씩 약출하여 50,000원에 구입한 것이다. 새

마을 창고는 1983년 정부에서 보조받은 시멘트 블럭 700장으로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들 회관과 창고는 마을 풍물 등을 보관하고 있을 뿐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들 공동재산은 등기되지 않고 있어 소유가 불분명하다.

나. 이익집단

① 위친계

가) 조직목적

위친계는 마을이라는 대면적인 작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성장해온, 또는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친상등에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통한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친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위친계는 이러한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자금을 조성하여 공동관리하고 그 잉여금으로喪을 당한 계원에게 보좌하며 계원일동이 상례에 참여하여 노력지원은 물론 친상과 다름없이 동정한다. 위친계는 그 명칭이 위친계, 광목계, 마포계 등으로 불리워진다.

위친계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많이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 3 위친계의 조직현황, 1986

집 단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집 단 의성	구성 원수	집 단의 재 산	보 좌 조 건
위 친 계	손종우	1957	남	12	—	쌀 5말, 술 2말, 노력지원, 마포 1필
위 친 계	양진 규	1960	남	14	현금 162,200원	쌀 7말, 술 2통, 마포 3필, 노력지원
위 친 계	강길용	1960	남	15	현금 240,800	쌀 1吠, 마포 2필, 노력지원
위 친 계	정진관	1963	남	12	현금 128,300	쌀 1吠, 노력지원
위 친 계	길병하	1974	남	15	현금 240,800	쌀 1吠, 노력지원
위 친 계	정경모	1979	혼성	10	쌀 1吠	쌀 1吠, 노력지원
위 친 계	곽영어	1972	남	15	현금 970,000	쌀 10말 술 10말, 노력지원
마 포 계	전상례	1977	여	21	현금 900,000	삼베 5필
위 친 계	정진원	1978	남	17	—	쌀 1가마, 광목 2통, 노력지원
광 목 계	정진원	1978	여	16	현금 250,000	광목 2통
위 친 계	오시동	1956	남	17	현금 159,500	쌀 7말, 노력지원
위 친 계	박승렬	1956	남	14	현금 144,000	쌀 2.5말, 술 2말, 마포 1필

나) 구성원

위친계는 마을 내에서 성장한 또는 성장한 후에라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자주 어울리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들 간에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위친계의 구성원은 부모의 친상을 대비해야 하는 공통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30 ~ 40대에 위친계를 조직한다. 위친계의 구성원은 또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원 수가 작다. 대양 2리의 위친계 구성원 수는 평균 11 명이다.

계원은 탈계, 제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원자격을 잃는다. 또 그 구성원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즉 한번 또래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면 구성원의 탈퇴나 제명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계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계원이 사망, 탈계 등으로 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의 연고자가 그를 대신하여 계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원은 대체될 뿐이며 추가적 가입은 아니다. 따라서 또래 집단적 褒事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구성원의 사망, 탈계, 제명 등으로 계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위친계 집단의 성격이 내적으로 응집력이 강하며 타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그 구성원이 또래 중심이며 추가 가입에 의한 계의 보존과 노력지원 등의 사회적 관계를 수학적 계산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친계의 계원은 60 ~ 70년대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공업화, 직업의 분화에 따라 이촌이 속출하여 그 구성원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위친계원의 이촌율이 높은 계는 구성원이 30 ~ 40대에 있는 경우이며 50 ~ 60대에서는 이촌율이 낮게 나타난다.

다) 기 구

대양 2리 위친계의 기구는 대부분 계장, 부계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나 재무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유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 유고시에 계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유사는 당해년도 계쌀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책임을 지며 당해년도 계날 계의 장소를 제공하고 참석자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또 유사는 당년도 계의 활동을 계책에 기록하고 보관하며 계쌀 등 계의 재산과 함께 이를 다음 유사에게 인계한다. 따라서 위친계에서 계장과 유사는 핵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계장과 부계장 등 임원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는다. 계장과 부계장은 최고령자가 되

므로 계장과 부계장의 유고시에는 자동적으로 그 차고령자가 추대되며 총무와 재무는 본인의 사임, 또는 계원의 불신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유사는 전체 계원이 1년마다 윤번제로 담당한다. 유사를 담당하는 순서는 계원의 명부순이며 이는 연령순서와 일치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방법

회의는 정기적으로 년 1회 개최한다. 즉 년 1회 개최하는 계날이 정기총회가 된다. 이러한 계날은 대부분 음력 10월과 11월 중에 정해진 날자에 개최된다.

계는 당년도 유사집에서 개최된다. 계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경에는 끝난다. 계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계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에 논의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년간 계의 결산보고
- ② 계쌀의 대출과 수납에 관한 사항
- ③ 보좌지급에 관한 사항
- ④ 계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계규의 계정과 계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계운영에 관한 사항

또래집단적 喪事계의 의사결정 방법은 합의제다. 계원중에서 최고령자는 계장에, 그 차고령자는 부계장에 자동적으로 추대되며 총무와 재무는 계원들의 구두 추천에 의한 전원 합의로 계장이 임명한다. 계무의 처리도 기본적으로 전체 계원들의 합의하에서 결정·집행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또래집단적 喪事계는 계 구성당시 契資米를 약출하여 계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증식시켜 계원의 상고에 보좌하고 계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계의 대출금은 대부분 현물인 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폐경제의 확산에 따라 현물에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자규모는 쌀 1 말 규모이다. 반면 계원이 상을 당했을 때 받는 보좌의 종류는 <표 4-3>과 같이 계별로 상이하다.

보좌와 함께 노동력을 지원하는 경우 남성의 위친계에서는 예외없이 노동력 지원을 의무 규정화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위친계는 이를 자유의사에 맡긴다. 다만 대양 2

리가 산간오지이고 또 이 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지원의 의무적 참가는 면내로 한정한다. 상사 장소가 면 밖에서 일어났을 때 계원들의 노동력 지원은 상주의 경비지원 하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계도 있다.

한편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보좌지급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보좌 액수와 회수를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각 계원은 계의 성립 시기에 계책에 보좌대상자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된 보좌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좌가 완료되면 계활동도 따라서 완료되고 계는 해체된다.

바) 재산관리

위친계의 공동재산은 각 계원이 각각 출한 계쌀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계는 각 계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 계쌀을 대출해 주고 소정의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계의 공동재산을 증식시켜 왔다.

계쌀에 부과한 이자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長利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리율은 1977 ~ 1983년에 4 할로, 1983 ~ 1985년 기간에는 3 할로 적용되어 오다가 1986년 이래 년 2 할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계쌀의 대출수요는 절대 식량이 부족하고 화폐경제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1960 ~ 70년대에는 많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 및 화폐경제체제의 확대 그리고 농가경제의 확대와 질적향상 등 일련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라서 현물인 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고 이에 따른 현물수요도 줄어 계쌀의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의 재산액을 일정 한도이상 넘기지 않게 하거나 계자금을 농협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그 이자로 보좌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 규범과 통제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그 구성원이 또래로 구성된다는 특성으로부터 규범이 형성된다. 첫째로 모든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계날 모임에 불참하는 성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상사계는 계모임에 참석함을 제1의 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에 불참하는 성원에 대해서는 성인 한품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유없이 3회 불참하는 경우 제명토록 계 규에 명문화하고 있다.¹⁾

1) 과영어 계는 상사 1일 불참에 2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계날에 2회 불참하면 제명한다.

둘째로 모든 계원은 계원이 당하는 상사에 참석하여 서로 동정하고 친상과 같이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마을에 따라 또는 집단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집단은 계원이 상고를 당했을 때 모든 계원에게 褒事에 3일간 참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여성집단은 이를 자유의사에 맡기며, 불참시에도 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셋째로 계원이 보좌를 하고 이사하여 탈계할 경우 계는 보좌액을 회수한다. 다만 계원이 기본 계쌀로 출자한 액수 만큼 공제해 준다.

넷째로, 계원이 보좌를 받지 않고 탈계할 경우 본인이 기여한 만큼 반환해 줌과 동시에 계의 진행도에 따라 보좌액을 가감 지급한다.²⁾

② 혼사계

가) 조직 목적

혼사계는 나이찬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주부들 사이에 조직되며 자녀들의 결혼시에 경제적·사회적 협동을 위하여 조직된다. 즉 자녀의 결혼을 맞으면 계원은 계로부터 정해진 보좌를 받게 되고 계원들로부터 혼사준비에 따른 노력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혼사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를 결성함과 동시에 계자미(또는 현금)를 양출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증식으로 보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좌가 끝나면 계는 해체된다.

혼사계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조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혼기에 있는 자녀들이 도시로 진학 또는 취업·이촌하고 있으며 혼사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경제·사회적 관습이 변화하는 데에서 오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구성원

혼사계의 구성원은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주부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혼기에 있는 자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혼사계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혼기를 앞둔 자녀

2) 길병하 계는 계원이 이주로 탈계할 경우 그가 보좌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계원의 보좌지급이 전체계원의 1/2 이상 진행되었다면 보좌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란 약혼등 결혼을 곧 눈 앞에 둔다는 의미는 아니며 5년 또는 멀리는 10년 후에 결혼할 수 있는 자녀를 둔 주부들도 그 구성에 가담한다.

혼사계의 구성원도 혼기를 앞둔 자녀를 갖는 주부라는 점에서 또래적 성격이 강하다.

표 4 - 4 혼사계의 조직현황, 1986

계구분	조직년도	집단 의성	구성 원수	집단의 재산	재산 조성 방법	보좌조건
이석만 계	1977	여	16	현금 147,500원	2,000 원씩 각출 증식 시킴	쌀 1 가마 *
김정순 계	1978	여	12	현금 117,000	2,000 원씩 각출 증식 시킴	쌀 1 가마 *
전상례 계	1983	여	14	현금 1,600,000	매년 1 만원씩 각출, 적립시킴	쌀 1 가마

* 이석만, 김정순 계의 계원은 결혼당일 각자가 국수 1 관, 콩 1 되씩 혼사를 갖는 계원에 계 지원한다.

그러나 또래적 특성은 위친계보다 약하다. 혼사계의 구성원 규모는 위친계보다 크다. 계원의 자격은 탈계, 제명, 사망 등에 의해서 자격을 잃는다. 혼사계도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번 결성된 계는 가급적 계원을 추가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계원이 탈계, 제명, 사망 등에 의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연고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 계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다) 기 구

혼사계의 주요 임원은 계장과 부계장이 있으며 전체 계원이 1년에 한번씩 윤번제로 맡아야 하는 유사를 두고 있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리 한다.

유사는 계책의 순서 또는 보좌를 지급받는 순서에 따라 1년씩 윤번제로 담당한다. 유사의 직무는 계의 재산인 당년도 계쌀(또는 현금)을 관리하며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계의 장소를 제공하고 참석한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계장과 총무 등 임원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는다. 계장은 계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자동적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계장의 임기는 계장이 사망, 탈퇴, 제명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혼사계는 년 1회⁵⁾ 계를 한다. 계는 당년도 유사 집에서 개최된다. 계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경에 끝난다. 따라서 오후 1시까지 계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불참자로 간주되고 월금이 부과된다. 계에 상정되는 안은 다른 계와 비슷하다. 계장은 1년간의 계 업무를 보고하고 계쌀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며 계쌀 또는 계금의 대출계획을 확정한 후 계가 끝난다. 계가 완료되면 유사는 계원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한다. 상계와 달리 혼사계는 계먹이를 유사가 부담한다.

혼사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에 의한다. 계장은 최고령자가 맡게 된다. 계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결정도 계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혼사계는 계 결성시에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증식시켜 그 수익금으로 보좌한다. 이들 계가 출자한 금액은 <표 4-4>와 같다. 이들이 지급하는 보좌기준은 모두 쌀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계는 계원별로 국수 1관과 콩 1되를 별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지급하는 보좌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혼사계는 보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조직되기 때문에 보좌가 끝나면 계가 해체된다.

바) 규범과 통제

혼사계는 제반 규범이 상사계보다 약하다. 그러나 계의 운영에 따른 규정만은 엄격히 지켜진다. 계원은 모두 계날 참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불참자는 월금을 물어야 한다. 월금은 월 1에 대해서 성년 여성 1일 품삯을 기준한다. 계에 3회 불참하면 제명의 사유가 된다.

계원이 제명되거나 탈계할 때 계원이 기여한 금액은 반환해 준다.

혼사계는 계원자녀의 혼사에 전체 계원이 참석 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혼사에 참여하여 축하해 주고 각종 노력을 지원해 준다.

5) 그러나 전상례의 계는 년 2회 계를 한다.

③ 친목계

가) 조직 목적

친목 관련 이익집단으로는 친목계, 동갑계, 놀이계 등이 있다. 이들 집단들은 그 명칭과 조직·운영은 약간씩 다르나 기본적인 목적이 구성원의 “친목도모”라는 점에 서 같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제일 목적은 구성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를 조직하고 약간의 공동재산을 조성하여 계 운영 및 활동 경비로 충당한다.

친목계의 특성은 계가 정한 특정한 보좌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조직의 목적이 계원들 “자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계 집단과 다르다. 따라서 계는 각 계원들이 사망, 탈계, 제명 등에 의해서 조직의 성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친목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다른 계들의 기능을 대체해 가기도 한다. 즉 친목계는 본인들의 친목도모 이외에 계원들이 당하는 애경사에 함께 참여하여 상조하는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다.

표 4 - 5 친목계의 조직현황, 1986

집 단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집 단의 성	구 성 원 수	집 단의 재 산	보 좌 조 건
우인친목계	박 공 서	1968	남	8	현금 150 만원	애경사시 쌀 1 가마 술 5 말
친 목 계	신 선 교	1970	남	6	현금 60 만원	쌀 5 말, 술 20 말, 심배 1 필
동 갑 계	양 맹 규	1974	남	9	현금 16 만원	애경사시 술 5 말
친 목 계	박 공 서	1978	남	7	현금 35 만원	애경사시 쌀 1 가마 술 10 말
친 목 계	남기수	1978	남	7	현금 60 만원	애경사시 쌀 1 가마 술 10 말
동 갑 계	안예순	1981	여	10	현금 8 만원	년 2회 놀이
친 목 계	오기선	1982	여	20	현금 30 만원	년 2회 놀이
놀 이 계	정진원	1987	혼성	9	현금 2 만원	년 2회 놀이

나) 구성원

친목계의 구성원은 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동갑계의 구성원은 출생년도가 같은 동갑끼리의 집단이므로 구성원의 연령이 같다. 따라서 그 집단 구성원의 수도 다른 계보다 적게 나타난다. 동갑계는 남·여 집단이 각각 하나씩 나타났으나 이들의 구성원 수는 각각 9명, 10명이다. 동갑계는 나이가 같은 동갑들로만 구성하는 친밀도가 매우 높은 사회집단이다.

친목계의 구성원도 대개는 또래들로 이루어진다. 친목계는 또래 이외에도 직업·취미·사회활동 등에서 동질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구성되기도 한다.

여성의 친목계는 남성집단보다 구성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또래 형성의 범위가 남성보다 넓게 이루어 지는데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의 놀이계는 조직의 주목적이 관광이나 봄, 가을의 들놀이 등이므로 그 구성원의 연령 폭이 넓고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목관련계 중에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개방하는 개방성의 순서는 놀이계, 친목계, 동갑계 순이다. 즉 동갑계와 친목계의 구성원은 그 성격이 또래집단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폐쇄성이 강하다. 모든 친목계는 계원이 추가로 가입할 때 기존 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계가 보유한 계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계가 정하는 입계금을 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입계는 계가 갖는 동질성, 상징성에 부합할 때 가능하게 된다. 즉 동갑계는 연령이 같은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친목계는 그 대부분의 구성원과 비슷한 또래 또는 동질성이 인정되는 특정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계원의 자격은 본인의 사망, 탈계, 제명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친목관련계는 계원의 감소로 계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해체된다.

1970년대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이촌은 또래 중심의 인적 구성원을 갖고 있는 친목관련계의 구성원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했다.

다) 기구

친목계의 임원도 혼사계의 임원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사의 역할은 다르다. 친목계는 계를 일년에 2~4회 개최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일년에 계를 4회 개최하는 계에는 유사가 최소한 4명이 필요하며 그들의 역할도 계(회)의 모임 형태에 따라 다르다.

라) 회의와 의사결정

친목계는 최소한 정기적인 계를 일년에 2번이상 개최한다. 일년에 2번 계를 개최하는 친목계는 첫번째 계를 봄놀이로 하고 두번째 계를 유사 집에서 개최한다. 따라서 봄놀이 유사는 놀이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가을 유사는 집에 모인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친목계의 계경비는 유사가 부담한다.

친목계의 의사결정도 합의제에 의한다. 계장, 부계장은 연령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대되며 총무는 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친목계가 결정하는 제반 사업과 운영방안도 합의제에 의한다.

마)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친목계는 계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의 공동자금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계원들이 균등 부담하며 조성된 자금은 은행에 정기 예치하거나 계원들에게 대출되어 증식된다.

증식된 계자금은 자신들의 놀이경비 이외에 계원들이 당하는 애경사에 부조하며 이려한 부조액은 보좌규정에 정해 있다.

바) 재산관리

친목관련 이익집단의 공동재산은 평균 규모에 있어서 타 이익집단의 공동재산 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은 친목관련 이익집단이 어느 집단보다도 원초적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고 또 그조직 목적 자체가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조직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친목관련 계가 보유한 공동재산의 관리는 계원에게 대출하여 증식하는 방식 이외에 농협 등 금융기관에 기금을 적립하여 증식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사) 규범과 통제

친목관련 이익집단이 갖는 특성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매우 원초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규범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친목관련 계는 구성원의 응집력을 가장 중요시 하므로 계에 참석하는것을 의무화하고 불참계원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한다. 불참계원에 대한 벌과금은 대부분 일당의 품삯으로 결정하나 예외적으로 강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예도 있다. 또한 계에 3회 이상 불참시에는 제명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계원의 친상에 모든 계원의 참여를 의무

화 하지는 않는다.

둘째로 친목관련 이익집단은 놀이계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추가적 가입을 금지한다. 그것은 친목관련 계가 또래집단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원초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적 응집력이 타인에 대해서 강한 폐쇄성을 갖는다.

셋째로 계원이 탈계할 경우, 그리고 계가 정한 보좌를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계에 기여한 기본계금(원금)을 반환해 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의 목적이나 놀이 등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된 친목계 및 놀이계는 기본계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 계원이 제명을 당했을 때는 모두 기본계미(금)를 반환하지 않는다.

넷째로 대부분의 친목계의 계규는 본인의 사망시 보좌규정을 갖고 타인에 대한 보좌보다 중히 여긴다.

④ 새마을부녀회

가) 조직 목적

새마을 부녀회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 141호 의거 전국적으로 기존의 마을 단위 여성 사회집단들을 통합하여 조직하였다. 대양 2리에서도 1977년 7월에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마을단위 여성 사회집단을 새마을부녀회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마을부녀회는 1987.1월에 재조직된 것이다.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자들의 복지향상과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로 건전한 가정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조직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교양사업, 소득증대사업, 인보활동, 저축증대, 가족계획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부녀회 육성지침을 ①근검절약, ②저축의 생활화, ③가족계획의 실천, ④인보복지사업, ⑤가정생활의 과학화 ⑥부녀 부업의 확대로 정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의 규약(예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 ② 자녀교육에 관한 사업
- ③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 ④ 환경 및 의·식·주 생활개선(공동취사장 운영, 고정가구 부설 등) 및 가정의 간소화에 관한 사업

- ⑤ 농촌영 양개 선사업
- ⑥ 부녀자 영농지도사업
- ⑦ 농기계 조작 사용 훈련사업
- ⑧ 국민건강 및 국민영양사업
- ⑨ 가족계획 및 국민영양사업
- ⑩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 (예: 구판장 운영)
- ⑪ 농촌 복지문화사업
- ⑫ 협동 봉사사업 (공동작업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 ⑬ 농번기 유아원 운영
- ⑭ 저축사업 (금고사업, 절미저축, 폐품수집)
- ⑮ 가정부업 및 공동부업 개발

⑯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부녀새마을 사업 및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그러나 대양 2리 부녀회는 정부가 제시한 예규와는 달리 새마을 부녀회의 조직목적을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운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양 2리 새마을 부녀회의 조직목적이 단순 명료한 것은 정부가 예시한 복잡하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조직목적 및 활동지침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양 2리 새마을 부녀회는 1 가구 1 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구성원

새마을 부녀회의 예규는 마을내에 거주하는 20 ~ 60 세의 부녀자들로 새마을부녀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양 2리 새마을부녀회는 26 ~ 67 세의 부녀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각 가구의 주부들이다.

다) 기구

예규에 따르면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 ~ 2인, 감사 1인, 총무 1인 및 부장⁶⁾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마을에게 나타난 새마을부녀회의 기구는 회장과 총무 뿐만이 확인된다.

6) 새마을 부녀회 예규에 나타난 부장은 저축부, 환경 · 생활개선부, 가족계획부, 교양활동부, 소득개발부 등이 있다.

새마을부녀회가 이와 같이 내부기구의 기능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의 업무가 단순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새마을부녀회는 자생적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및 농협등과 빈번히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행정지시와 지도⁷⁾를 받는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회의 제반 기록보관과 회계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는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방법

예규에 규정된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대양 2리 새마을부녀회는 총회를 연초에 개최한다. 예규에 나타난 총회에서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약의 승인 및 변경
- ② 임원의 선출
- ③ 결산 및 예산 승인
- ④ 임원의 해임 및 제명
- ⑤ 본회사업의 기본방침 및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저축을 위해서 매월 15일 각 반장 집에 각자의 저축액을 맡기고 있으며 회장이 각 반장 대액을 순회하며 각자의 저축액을 수합하여 이를 농협에 정기 예금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월례회의 성격이 아니다. 새마을부녀회의 의사결정은 재적회원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녀회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임원의 선출은 물론 모든 사업계획이 회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은 계집단의 계장선출과는 달리 연장자순보다는 지도력, 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장이 면, 지도소, 보건지소, 농협 등 유관기관을 수시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교육에 참석해야하고 또

7) 정부기관인 군은 사회과장은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 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사업 및 새마을부녀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새마을부녀회 군협의회는 군부녀아동계장, 새마을계장, 군보건소방역계장, 농촌지도소 개발계장, 농협군지부 기획지도과장으로 구성한다.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계획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는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한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새마을부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만 이것은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부녀회의 공동기금은 절미저축운동, 공동작업 등을 통해서 조성하고 이 기금은 새마을부녀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다.

비자생적 집단으로서 새마을부녀회는 농촌부녀자들의 사회활동과 생활향상을 위한 학습단체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농촌환경개선, 의식주등 생활개선, 유아원 운영,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및 보건에 관한 계몽·지도·실천·가정의례계몽·실천지도, 건전가정 육성지도, 각종 교육, 농촌 복지문화사업·사회봉사 사업등은 새마을부녀회의 주요 학습활동의 내용이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는 이와 같은 학습활동에는 매우 미온적이며 저축활동 등 경제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회로부터 받는 이익은 저축활동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이며 학습활동에서 얻는 경제외적 이익은 미약하다.

바) 규범과 통제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의사에 맡긴다. 따라서 회에 불참했을 때 다른 집단과 같은 제재가 없다.

2. 사회망과 지도력

가. 사회망구조

대양2리 주민들의 사회망 (social network) 구성은 주민들의 연령구조와 자연부락에 의한 공간적 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양2리가 산간오지마을로서 산업사회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아직도 20~30대 연령층이 또래집단을 이를만큼 남아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으며 4개의 자연부락으로 넓게 분산되어 자연부락간의 공간적 분리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사교환망의 분리로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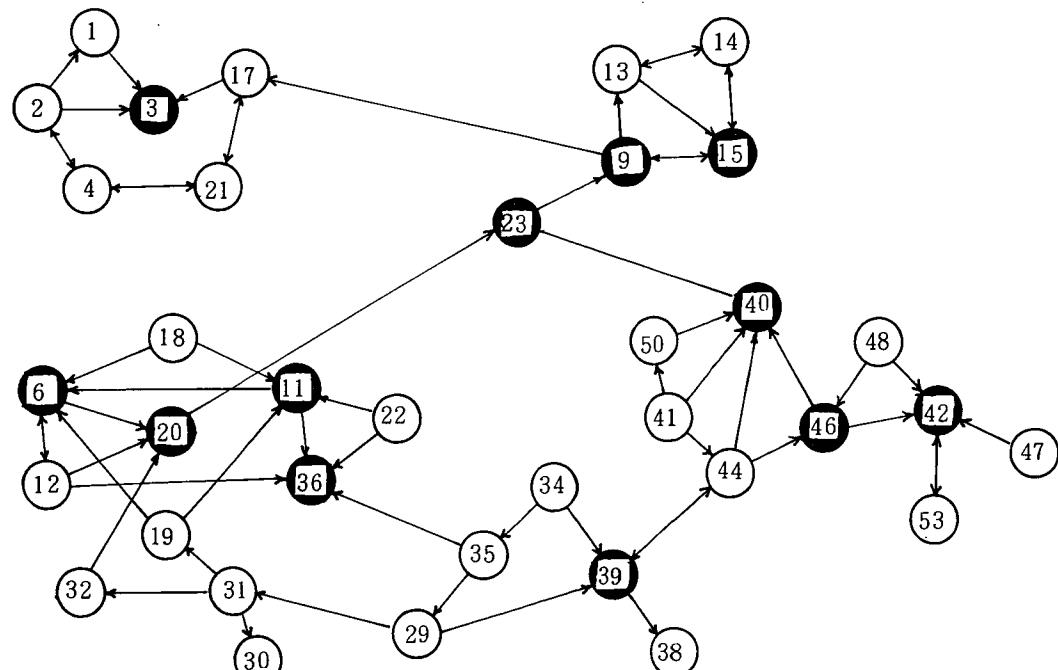
마을주민 중 남성경영주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의사교환망 (Communication net-work)⁸⁾ 을 작성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이 의사교환망을 분석해 보면 6개의 연령별 의사교환망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3개의 의사교환망으로 나타난다. 대양 2리 주민들의 의사교환망의 공간적 분리는 ① 명고동과 삼방, ② 유곡, ③ 두문동으로 구분된다.

① 명고동과 삼방의 의사교환망

명고동과 삼방은 별개의 자연부락이고 상호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교환망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명고동과 삼방에는 3번 가구주, 15번 가구주 그리고 11번과 20번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이 나타난다.

3번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의 구성원은 평균연령 30세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의 50%인 3가구는 결혼한 상태이고 3가구는 미혼이다. 이 의사교환망의

그림 4-2 사 회 망



8) 이 의사교환망은 총 조사대상자 39명 중 33명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4 - 3 명고동의 사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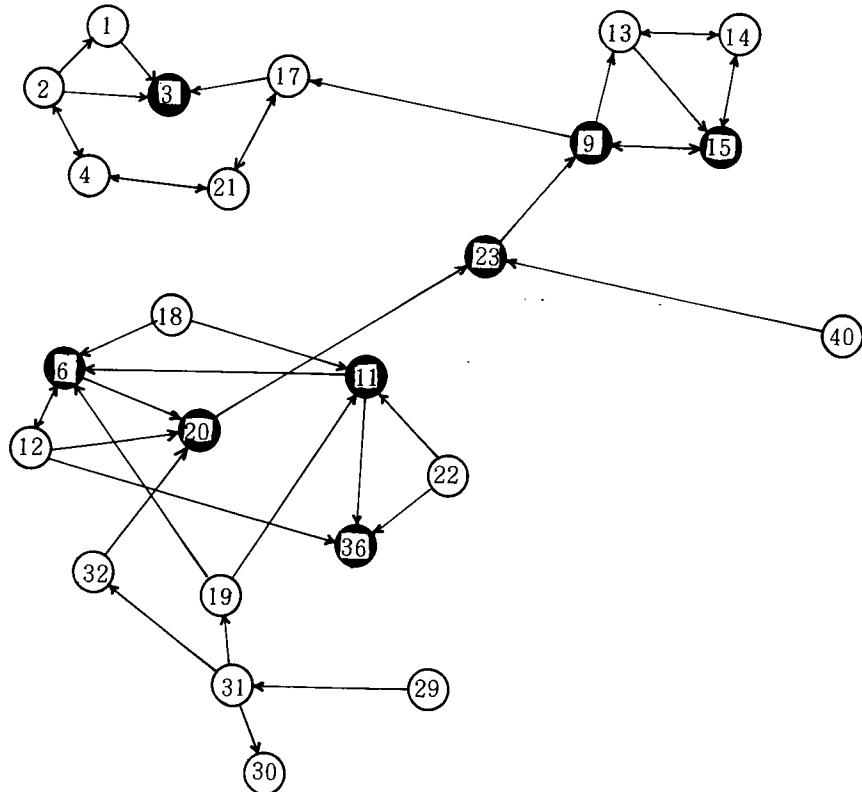


그림 4 - 4 유곡의 사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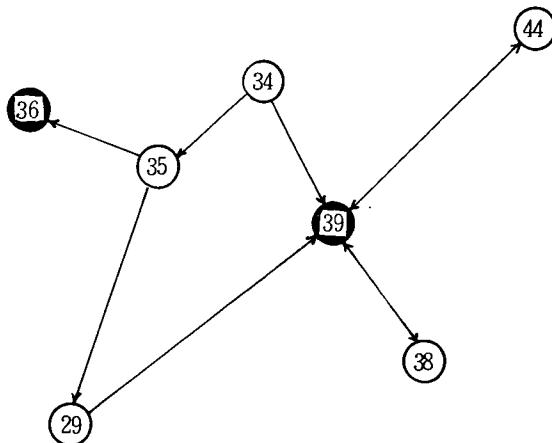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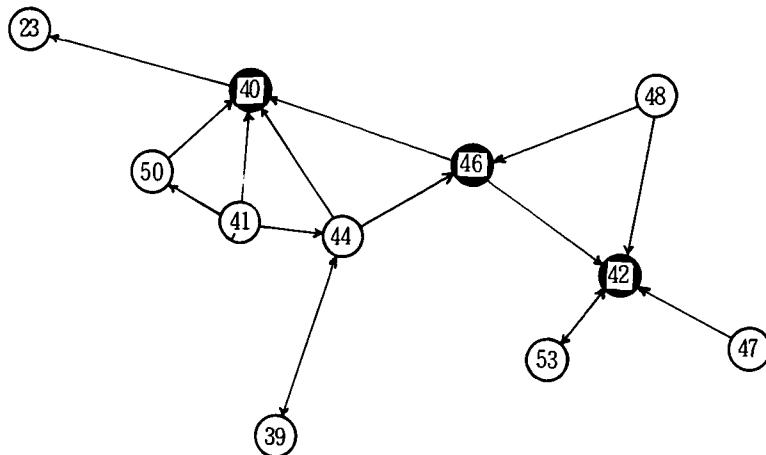


그림 4 - 5 두문동의 사회망



중심인물인 3 번 가구주는 현재 마을의 반장이며, 리개발위원회 위원이다.

15 번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의 구성원은 평균연령이 43세인 장년층으로서 인삼, 고추, 배추 등 고소득 경제작물을 경작하는 소위 독농가들이다. 이들은 경제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품종선택, 재배기술, 생산물판매 등과 관련된 제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수시로 만나 협의하는 친밀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마을내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개발위원 등을 담당하는 중추적 인물들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 장년층은 9번 가구를 통해서 30대의 연령층과 연결되고 있고, 23번을 통해서 60대의 노년층 및 두문동의 40번 가구와 연결되어 있어 마을에서 젊은층과 노년층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번과 20번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은 평균연령이 64세에 달하는 노년층이다. 30대의 청년들과 40대의 장년층이 명고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집단인 것과는 달리 이들 노년층은 명고동과 삼방의 노년층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36번 가구는 유곡에 거주하면서도 명고동의 의사교환망의 중요한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들 노년층의 중심인물인 20번 가구주는 1960년대에 오랫동안 이장직을 역임했으며 6번 가구주는 명고동의 동체의 제관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장로이다. 한편 36번 가구주는 유곡에 거주하고 있으나 왕성한 대내외 활동으로 명고동에 거주하는 연노한 장로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곡과 명고동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들 노년층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출타하고 영농후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② 유곡의 의사교환망

유곡은 5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가구주들은 50대의 장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교환망은 또래집단의 성격을 갖고 하나로 나타난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36번 가구주를 통해서 명고동과, 35번 가구주를 통해서 삼방과 그리고 39번 가구주를 통해서 두문동과 연계되어 지역적 고립성을 벗어나고 있다.

③ 두문동의 의사교환망

두문동의 의사교환망은 유곡과는 달리 공간적 분리도가 비교적 강하다. 두문동의 의사교환망은 40대의 장년층과 60대의 노년층으로 양분되어 있다. 40대의 장년층의 의사교환망의 중심인물은 40번 가구주이다. 40번 가구주는 현 개발위원이며 두문동 동체의 제관을 여러번 역임했다. 또한 그는 비교적 대농으로 인삼농사를 짓고 있으며 명고동의 23번 가구주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60대 노년층의 중심인물은 42번 가구주이다. 그는 영농규모는 적지만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의 집은 주변 가구들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한다.

한편 46번 가구주는 전임 이장으로서 마을여론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지만 의사교환망에서 40번과 42번 가구주 보다는 약한 중심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40대와 60대를 연결하는 교량역 할을 하는 주요 인물이다.

<그림 4-2>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3, 6, 11, 15, 20, 36, 39, 40, 42번 가구주와 9번, 23번, 46번 가구주는 마을의 의사교환망의 핵심 인물로서 마을내 여론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지도력구조

대양2리의 지도력구조는 명고동에 거주하는 13번, 15번 가구주와 두문동에 거주하는 40번 가구주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는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로 대양2리의 지도력구조는 크게 명고동과 두문동이라는 자연부락 단위로 공간적 분리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두문동

표 4-6 소시오메트리에서 나타난 여론지도자의 특성

가구번호	연령	학력	경지 규모		마을내 직위	비고
			소유면적	경작면적		
3	29	중졸	1,700	3,100	반장, 개발위원	
6	61	무학	1,600	3,600	—	동제의 제관
9	49	무학	2,340	4,300	개발위원	
11	68	무학	1,000	1,000	—	
15	41	무학	3,550	3,550	새마을지도자원 개발위원장	
20	65	국졸	2,050	3,550	전이장	
23	52	국졸	2,100	3,200	개발위원	
36	51	국졸	5,400	4,000	개발위원	
39	48	무학	1,500	2,700	—	
40	48	국졸	3,445	3,445	개발위원	동제의 제관
42	63	무학	600	1,200	—	
46	50	무학	1,340	2,774	전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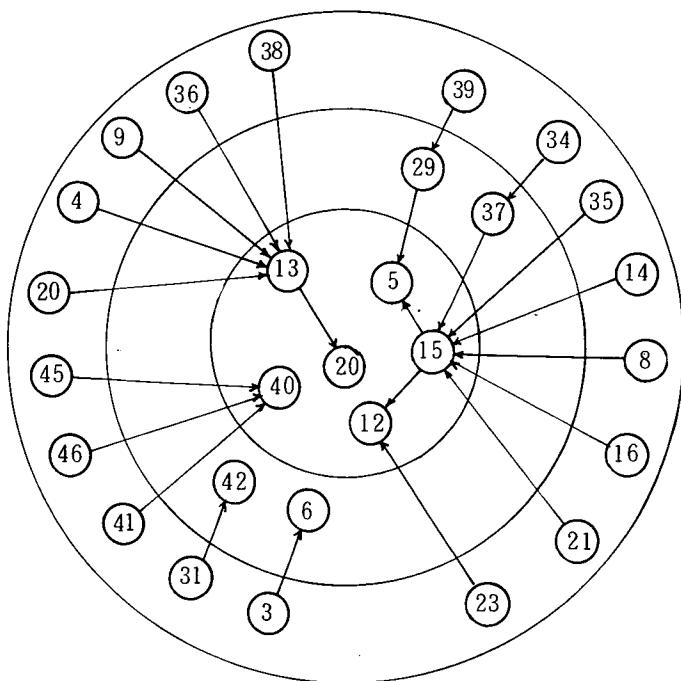
주민들은 모두 두문동에 거주하는 40번 가구주를 존경할 지도자로 선택한 반면 유곡과 삼방의 주민들은 명고동의 주민들과 함께 명고동의 현재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마을에서 존경할 지도자로 선택하고 있다.

둘째로, 현직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5번, 12번 그리고 20번 가구주를 각각 존경할 마을지도자로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의 현시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현 마을지도자들이 존경하는 마을의 원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마을지도자들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마을에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시적인 지도자들은 30~40대의 장년층이고 비현시적인 마을 원로들은 60대의 노년층이다. 이들 노년층들은 젊었을 때 마을일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지도층이었다. 이들은 현재 마을의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현직의 마을지도자들이 마을일을 처리할 때, 항상 의논하는 정신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대양2리의 마을지도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전국적으로는 중하의 범주에 들지만 마을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중·상층에 속한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이들이 과거에 담

그림 4-6 대양 2리의 지도력 구조



당했던 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마을내에서의 정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양 2리의 지도력 구조에서는 6번, 29번, 37번 및 42번 가구주도 작은 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지도력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마을내 의사교환망의 핵심인물들과는 거의 일치한다.

대양 2리의 지도력 구조는 자연부락이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과 지리적 고립도에 따라서 명고동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두문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으로 구분되는 공간적 분리가 나타난다.

한편 지도자는 마을내의 중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30~40대의 장년층의 현시적 지도자와 마을내에서 직책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현직 지도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비현시적인 장로로서 구분된다.

대양 2리의 지도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도력 형성에 있어서 혈연적 유대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 7 마을지도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가구번호	연령	학력	경지 규모		마을내 지위	비고
			소유	경작		
13	34	중졸	2,778	2,778	이장, 리개발위원장	
15	41	무학	3,550	3,550	새마을지도자회 리개발위원회 부위원장	
40	48	국졸	3,445	3,445	개발위원	
5	61	국졸	2,406	2,406	-	
12	65	무학	1,897	1,897	-	
20	65	국졸	2,050	3,550	-	전직이장

3. 종교 및 문화활동

가. 종교생활

대양 2리는 산간오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무교와 동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와같은 종교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신앙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

① 개인 신앙생활

대양 2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개인신앙으로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가 기독교와 불교신자라고 답변하고 있다. 마을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 %가 기독교신자라고 답변하고 13.7 %가 불교신자라고 답변할 뿐 응답자의 70.6 %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응답자의 5.9 %인 3 가구주가 무교를 기타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⁹⁾ 그러나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41.7 %인 16 호가 집안의 수호신들에게 고사를 지내고 있고 계절제와 관련된 무교적 행사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무교를 실천하는 가구로 볼

9) 이들은 무교(Shamanism)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과 동등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신봉하고 있다.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신자 중에는 무교를 실천하는 가구가 없지만 불교신자 중의 85.7 %인 6 가구도 무교를 신봉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자의 49.0 %가 무교를 실천하는 가구로 나타난다.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가 매주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신자들은 응답자의 57 %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예불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절에 가는 신자가구가 1호, 연간 1~2회 절에 가서 불공드리는 가구가 2호 있을 뿐이다.

표 4-8 종교별 가구분포

종교별	가구수	예배(예불) 참여 횟수별 가구수				
		주 1회	년 10회이상	년 5~9회	년 5회미만	하지 않음
기독교	5	5				
천주교	-					
불교	7		1		2	4
기타	3					
무종교	36					
계	51	5	1		2	4

10월 고사는 家神에 대한 제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믿는 가신은 집안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수호신 (tutelary deity)의 성격으로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업신 조상신, 측간신, 우마신, 수문신, 삼신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와같이 여러 가신들을 모두 믿고 모시는 가구는 무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3 가구 뿐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이들 수호신 중의 일부를 고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양 2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고사를 드리는 수호신은 터주신으로 22 가구가 고사를 드리고 있으며 다음이 성주신, 조왕신, 조상신, 삼신 등의 순이다.

② 공동신앙

- 명고동과 두문동 주민들은 각각 별도로 동제를 지낸다. 이들이 지내는 동제는 산신제¹⁰⁾

10) 산신을 믿는 산신신앙은 단군신화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매우 오래된 한국민족의 공동신앙이다. 대양 2리의 산신신앙도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표 4-9 수호신에게 고사지내는 가구수

수 호 신	성주신	터주신	조 왕신	조 상신	업 신	측 간신	우 마신	수 문신	삼 신
가 구 수	10	22	6	4	3	3	3	3	4

- 1) 성주신 : 집안의 가장을 수호하는 신으로 신역은 대청마루나 가장이 거쳐한 안방이다.
- 2) 터주신 : 집의 택지신으로 농사도 관장한다. 터주신의 신역은 장독대이며 터주가리를 짚으로 만들어 세우고 그안에 좁쌀이나 볍씨등을 모신다.
- 3) 조왕신 : 주부를 수호하며 가정사를 관장한다. 신역은 부뚜막이다. 주부는 매일 깨끗한 물을 조왕에 떠 놓고 집안의 무사태평과 액운을 면해주기를 기원한다.
- 4) 조상신 : 가의 번창과 풍요를 관장한다. 신역은 안방 윗목의 시렁이다.
- 5) 삼 신 : 자녀의 출산을 관장한다. 신역은 안방 아랫목 주부가 거쳐하는 공간이다.
- 6) 업 신 : 가의 재물을 관장한다. 신역은 장광(부엌옆의 곡식 저장간)이다.
- 7) 측간신 : 액운, 질병등을 관장한다. 신역은 측간(변소)이다.
- 8) 우마신 : 농경과 목축사회에 중요한 마소를 관장한다. 신역은 마굿간이다.
- 9) 수문신 : 가구원의 출입에 따른 액운을 관장한다. 신역은 대문이다.

로서 이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신의 현시적 존재는 호랑이다. 현실적으로 호랑이는 산중의 맹수로서 산골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산신신앙은 호랑이를 신격화하여 산신으로 모시고 그 숭배의 보상으로 마을주민들을 수호해 주기 를 기원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산신제를 지내는 신당 또는 당산으로 부른다.

동제는 마을 전 주민이 동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끝날때까지 모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킨다. 산신은 마을 주민 모두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산신제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준비단계나 제사단계에서 잘 못되었을 경우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믿고 있다.

산신제는 명고동과 두문동 모두 정월 초이튿날 저녁에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로, 매년 음력 선달 스무날 산제를 모시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 대동계를 한다. 이날 대동계는 전 가구에서 한 사람씩¹¹⁾ 참석하여 제주를 선출하고 산제 모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이를 각 가구로부터 각 출하여 제주에게 전달한다. 제주로 선발되는 사람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

11) 산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대동계에는 남자 가장이 참석한다.

고 있어야 한다.

- ① 깨끗한 사람¹²⁾
- ②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큰 흥이 없는 사람
- ③ 적어도 40세 이상의 중년이어야 하며 마을사람으로부터 제주로 추천될 만큼 덕을 갖춘 사람.

두번째로 제주는 제주로 선정되는 날부터 외지 출입을 삼가하고 집에 외부인의 출입도 금한다. 따라서 제주의 집에는 금줄¹³⁾이 쳐지고 마을 주민들도 제주 집의 출입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건네지도 않는다.

세번째로 제주는 산제 모시기 바로 전장을 보아 제사에 필요한 제물¹⁴⁾을 구입한다. 이때 제주는 제물 구입시 가격을 깎는 등 흥정을 하지도 않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

네번째로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된 날부터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부부가 냉수로 매일 목욕을 한다. 과거에는 시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매일 저녁 목욕을 했다고 하나 최근에는 제를 지내는 날 또는 그 2~3일전에 한해서 목욕을 한다. 또 신당을 찾아 청소하고 금줄을 쳐 둔다. 마을 주민들도 산제를 지내는 일을 돋기 위해서 산신당까지의 길을 다듬고 주변 청소일을 담당한다. 명고동 주민들은 산신제를 올리는 동안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산신제 지내는 당일 신당 부근에 나무 장작을 쌓아 놓는다.

다섯째로 제를 지내는 날 부부는 제물을 준비해서 해가 질 무렵 집을 나서서 신당에 도착하여 제사준비를 한다. 제사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당에 촛불을 밝히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 ② 부부가 시냇물로 목욕한다.
- ③ 제물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
- ④ 밥과 국 등을 요리해서 제물을 준비한다.

여섯째로 제를 지내는 일이다. 제는 자정을 지나서 지내고 첫닭이 울때쯤이면 마치

12) 깨끗한 사람이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상처등이 있어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 여자의 경우 월경중에 있지 않은 사람, 산제를 전후하여 가족중에 해산하는 일이 없는 사람,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13) 금줄은 새끼줄에 소나무가지를 끼워서 대문의 양 기둥에 매어 늘어 뜨린다.

14) 주요 제물은 돼지머리, 명태, 나물 등이다.

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0시경에 제를 지내고 자정 이전에 귀가한다. 제를 지내는 절차는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제사와 같이 강신, 참신, 헌작을 한 다음告祝을 한다.

고축은 각 가정별로 하며 가정별로 소지를 올린다. 고축의 주요 내용은 가장의 건강과 가구의 소원을 빈다. 고축의 순서는 제주 당사자를 가장 먼저하고 다음에는 이웃의 순서대로 한다.

명고동의 동제는 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제례행사가 끝나지만 두문동의 동제는 산신제를 지낸 다음 마을 어귀에 있는 둥구나무 아래에서 다시 노제¹⁵⁾를 지낸다. 노제를 지내기 수일전에 제주는 둥구나무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한 황토를 떠다가 둥구나무 아래에 뿌리고 둥구나무에는 흰종이를 꿰 원새끼를 금줄을 맨다. 노제를 지낼 때에도 같은 제물을 준비하며 제사지내는 순서도 같으나 가정별 고축은 하지 않는다.

산제는 남이 보지 않도록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를 지내는 동안은 신당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고동에서는 신당에서 좀 떨어진 장소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화톳불을 밝혀 산제를 지내는 일을 도운다. 제가 끝나 하산할 때에는 풍물을 치며 기를 돋우기도 한다.

일곱째로 제가 끝난 다음날은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제물을 나누어 먹고 음복하며 풍물을 치며 하루를 즐긴다. 그러나 최근에는 풍물놀이가 사라졌다.

한편 대양2리 주민들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두문동 뒷산 500m정도의 고지에는 일제시대 초기까지 단군을 모시는 산제를 금산군, 진안군, 완주군 군수와 지방유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내던 신단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말엽부터 지방 군수들이 지내는 산제는 금지되었고 신단 마저도 황폐되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문화와 세시풍속

대양2리는 산간 오지마을로서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비교적 적은 마을이다. 더우기 두문동은 이름 그대로 문을 걸어 닫고 살아가는 은둔마을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삼방과 유곡도 지리적 고립도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하다.

15) 이 둥구나무가 마을어귀를 지키는 신수라고 믿기 때문에 노제를 지내고 이곳을 드나드는 마을주민들이 액을 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그러나 평화롭고 고요했던 이 마을은 1950 ~ 53년의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두문동 뒷 산에 공비가 주둔하였고 이를 소탕하기 위해 주민들이 소개되고 마을의 집들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의 대부분은 1953년 이후에 건축된 것이다. 또한 대양 2리는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한 마을의 초토화로 생활이 극히 어려워졌고 또 당시 주민들의 대부분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민속이 축소 또는 소멸된 것이 많다. 그나마 전해지고 유지되어 오던 세시풍속도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이농과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및 생활 양식의 변화로 많이 사라졌다. 1950 ~ 60년대에 대양 2리 주민들이 실행했던 세시풍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 월

○ 설날

설날에는 각 가정별로 4대조까지의 차례를 올린다. 차례는 당내의 장손집에서 지내며 차례가 끝나면 함께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이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 안택

정월 14일 저녁에 주부들이 떡 등 음식과 정안수를 상에 차려서 촛불을 밝히고 除禍招福을 기원한다. 안택행사는 무당을 불러서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주부 혼자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택기원도 6.25 이후 대부분 사라졌고 일부 가정에서만 실시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마을 농악꾼들에 의한 안택굿¹⁶⁾이 있다. 안택굿은 정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터주신, 조왕신, 성주신 등에게 안택과 제액을 기원한다. 이러한 농악에 의한 안택굿은 명고동과 두문동은 물론 삼방과 유곡에도 있었다고 하나 다른 마을은 6.25 이후 사라지고 지금은 명고동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안택을 위한 농악은 팽가리, 장고, 북, 징 등 사물이 중심이 되며 상쇠의 인도로 안택기원을 노래한다. 농악대의 방문을 받은 가정은 안택굿이 끝난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와 별도로 쌀이나 돈을 기부한다.¹⁷⁾ 이때 수집된 기부금은

16) 이 안택굿을 지신밟기라고도 한다.

17) 1989년 안택굿에서는 각 가정별로 쌀 0.5~1 말 또는 5~10천원을 기부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쓰인다.

○ 정월 보름

정월 14일은 산채 등 각종 나물종류와 오곡밥을 지어먹고 보름날 새벽에는 밤, 호두 등을 깨어먹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긴 겨울기간 동안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 무기질, 지방질 등을 보충해 주고 건강에 유의하기 위한 관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오곡밥만 지어 먹는다.

정월 보름날을 전후해서 성행했던 윷놀이, 널뛰기 등 민속도 6.25 전쟁 이후 사라졌다.

○ 춘축

입춘날 대문이나 장광의 문에 “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의 문귀를 써 붙이고 송축하는 행사가 있었으나 6.25 전란 이후 점차 사라져 지금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¹⁸⁾

○ 용왕제

정월 보름부터 그믐까지 각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용왕에게 가구주와 가구원들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비는 용왕제가 있다. 주부들은 가정별로 별도의 날을 잡아 밥과 국, 떡 등 음식을 차려서 해질무렵에 마을 앞 시냇가 바위앞에 차려놓고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는 각 가정별로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다. 1987년 현재 13호가 용왕제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 영등맞이

바람신(風神)인 영등할머니는 이월 초하루날 내려와서 보름과 이십일 사이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 주부들은 이 기간 동안 정안수를 떠놓고 근신하며 바람이 순조로워서 농사일이 잘되고 가내가 평안하길 비는 영등맞이제를 지낸다. 영등맞이제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올 때 잡곡밥과 떡을 찬장에 차려놓고 기원하며 또 영등할머니가 올라갈 때도 떡을 해서 제물로 바치고 기원했다. 1987년 조사에서 영등맞이제를 지키는 가정은 9호로 나타나고 있다.

○ 노래기날

이월 초하루날은 콩을 볶아 콩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볶은 콩을 감나무에 매단다.

18) 1987년 입춘에는 한 가구(3번)만이 춘축을 했다.

이때 콩을 볶으면서 “콩 볶자 노래기 볶자, 콩 볶자 근잠복자” 등의 주문을 외우는데 노래기나 근잠벌레를 박멸하기 위한 주문이라고 하며 이는 동국세시기에 “香娘閣氏速去千里”라는 부적을 써서 추녀에 붙이면 노래기가 없어진다는 풍속과 연관이 있다.

◦ 경침먹기

경침을 전후해서 대양리 주민들은 개구리알을 건져다 먹는 경침먹기를 한다. 대양리의 계곡에는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정월부터 개구리를 잡아 끓여먹는 풍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③ 삼 월

◦ 한식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④ 사 월

◦ 초파일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지만 대양 2리에는 불교신자가 많지 않고 또 불교신자라고 해도 절에 불공을 드리는 신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초파일날은 마을 주민들이 넷가에 모여서 천렵을 했다. 그러나 천렵도 6.25 전란 이후로 점차 사라져 지금은 하지 않는다.

⑤ 오 월

◦ 단오절

단오는 전통적으로 큰 명절이기 때문에 대양 2리 주민들도 등구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하루를 즐겼다. 그러나 단오날 그네 타는 풍속은 1970년대초부터 사라졌다.

⑥ 칠 월

◦ 칠석과 백중

칠석날에는 각 가정별로 치성을 드리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쉰다. 치성은 장독대에 정안수를 띠 놓고 가족들의 무병과 재앙을 면해 달라고 빈다. 대양 2리는 공동우물이 없어 마을 시냇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므로 별도로 우물치기 등의 공동행사는 없었다. 1987년 조사에서 칠석제를 지내는 가구는 17호로 나타났다.

백중날은 원래 머슴이 쉬는 날이라 하여 이 날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쉬고 놀았다.

특히 백중날은 두레먹이를 하고 농악놀이로 하루를 즐겼다. 백중놀이도 6.25 전쟁 이후 없어졌다.

이밖에 추석은 현재와 별로 다름없이 지내왔으며 10월 고사는 전술한 바와같이 현재도 많은 가구가 실시하고 있다.

동지날도 중요한 명절로서 팔죽을 쑤어 악귀를 쫓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동지날 팔죽을 쑤어먹는 관습만 남아있다.

4. 문화생활 및 에너지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전기는 1975년도에 처음으로 명고동, 두문동, 유곡에 가설되었다. 곧이어 1979년도에는 삼방에도 가설되었다. 대양 2리에 있어서 전기보급은 농업생산 등 경제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기 및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생활양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기와 함께 보급된 전기제품은 TV다. 대양 2리는 각 가정이 모두 흑백 TV는 갖추고 있지만 칼라TV는 보급율이 낮다. 1985년도에 칼라TV를 갖고 있던 가구는 3호였으나 1988년도에는 13호로 아직도 평야지대의 농촌마을에 비하면 보급율이 낮다. TV의 보급은 산간 오지마을의 외부사회로부터의 정보전달체계를 바꾸어 놓았다.¹⁾ 이제까지 외부사회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장을 통하여거나 외부사회에 자주 출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마을내에 전파되거나 신문을 구독하는 소수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형식을 갖고 있었으나 TV의 보급으로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제반정보가 TV를 통하여 전달됨으로서 정보 전달체계가 다원화되고 전달방법도 대량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뀌었다.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의 보급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동화된 전기밥솥(밥통)의 보급은 가정주부의 부엌일 손을 크게 덜어 주어 생산활동과 여가활동시간을 늘려주고 있다. 냉장고의 보급으로 조리, 가공기술의 보급과 함께 농촌주민들도 항상 신선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1) TV의 이와 같은 기능은 물론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1985년 당시 가장 높은 보급율을 나타낸 것은 전기밥솥으로 52호중 34호가 전기밥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냉장고를 보유한 가구는 3호에 불과했다. 1985~1988년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전기·전자 등 생활용품의 보급율을 나타낸 것은 냉장고와 가스렌지이다. 가스렌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표 4-10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구 분	1985 *		1988 **	
	보 유 대 수	비 율	보 유 대 수	비 율
칼 라 T V	3	5.8	13	28.9
냉 장 고	4	7.7	27	60.0
전 기 밥 솥	34	65.4	31	68.9
가 스 렌 지	-	-	25	55.6
V T R	-	-	-	-
전 자 렌 지	-	-	-	-
전 축	1	1.9	3	6.7

* 1985년도의 조사 대상 가구수는 52호

** 1988년도의 조사 대상 가구수는 45호

나. 교통, 통신수단의 보급

전화는 1975년도에 명고동에 그리고 두문동에는 1983년도에 각각 한대씩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전화는 전화국 소유로 설치된 행정전화였다. 대양2리에 각 가정별 전화가 가설된 것은 1987년도다. 1988년 현재 35대의 전화가 가설되어 전화보급율은 77.8%를 보이고 있다. 전화의 보급은 자연부락별로 고립되어 있던 마을주민들의 의사교환을 보다 활발하게 해 주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행정사항이 전화를 통해서 자연부락별로 전달되고 회의소집 등이 전화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특히 전화는 인삼, 배추, 고추 등 시장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농산물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양2리는 금산읍에서 운행하는 읍내버스가 1981년부터 하루 3회 명고동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그 중 마지막 1대는 두문동까지 운행된다. 교통이 불편한 만큼 개인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와 자가용을 확보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오토바이는 2대가 있

으며 자가용 트럭이 2대 있다. 자가용 트럭은 대양 2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반출과 물자구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는 19호로 비교적 많다. 이 중에서 일반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5호, 농업관련 전문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14호 있다. 또한 월간지를 구독하는 가구도 2호 있다. 이는 1985년도에 비해서 일반신문은 변함없으나 농업관련 신문은 7가구, 월간지는 2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다. 에너지이용

198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화목은 난방뿐만 아니라 취사연료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여름철 취사에너지로 전기를 쓰는 가구가 11호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가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연료로서 화목은 1985년도에 전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였으나 1988년도에는 가구의 55.6%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4.4%의 가구가 연탄을 이용하고 있다. 취사연료로도 화목이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1988년도의 경우 여름철 취사연료로 화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33.3%로 감소한 반면 가스를 쓰는 가구가 37.8%로 오히려 높아졌으며 전기를 쓰는 가구도 26.7%로 1985년도 21.2%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겨울철 취사 연료로 화목의 비중은 60%에 그치고 있으며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33.4%인 반면 전기를 취사연료로 이용하는 가구는 4.4%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이용구조는 화목에서 연탄, 전기, 가스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양 2리는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화목을 연료로 구하기가 쉬운편이지만 난방연료로 연탄과 취사연료로 가스와 전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이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키고 이용에 있어서도 간편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난방 및 취사연료

구 분		1985 *		1988 **		
난 방	화 목	52	(100.0)	25	(55.6)	
	연 탄	-		20	(44.4)	
	석 유	-		-	-	
취 사	여 름	화 목	41	(78.8)	15	(33.3)
		연 탄	-		-	-
		석 유	-		1	(2.2)
		가 스	-		17	(37.8)
	겨 을	전 기	11	(21.2)	12	(26.7)
		화 목	50	(96.2)	27	(60.0)
		연 탄	-		1	(2.2)
		석 유	-		-	-
		가 스	-		15	(33.4)
		전 기	2	(3.8)	2	(4.4)

* 1985년도의 조사대상가구는 52호임(출입농가 일부 포함).

** 1988년도의 조사대상가구는 45호임.

제 5 장

공 간 구 조

대양 2리는 노령산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군 남이면의 세 골짜기 중 하나의 가장 끝에 자리잡고 있는 산간마을로서 4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누어져 분산되어 있다. 이 중 중심이 되는 명고동은 4개의 자연부락중 가장 크고 평탄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명고동도 다시 명고동, 개양골, 도롱골이라고 불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세분화되어 분산되어 있다.

대양 2리는 그 한 자연부락의 이름이 두문동이듯 산간 오지에 자리잡고 있고, 중심 도시인 금산이나 대전으로의 접근도가 낮아 오랫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다. 그러나 1914년 이후 이 마을을 공간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 차례의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1914년 이전까지 대양 2리의 명고동과 두문동은 남이면을 구성하고 있는 里洞으로서 별개의 마을로 존립해 왔으나 1914년 전국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대양리, 명고동, 두문동이 하나의 리로 통합되어 대양리가 되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하나로 묶어 놓은 대양리는 결국 하나의 마을로 통합되지 못하고 다시 원대양을 대양 1리로, 명고동과 두문동을 대양 2리로 분할하였다.

대양 2리는 가구수가 1945년 이전에는 160여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었다. 그 중에서도 두문동의 가구수는 70호에 이르고 있어 가구수와 경작면적에서 명고동 보다 컸다. 두문동이 명고동 보다 산간 계곡에 자리잡고 있었으면서도 보다 많은 인구를 포용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문동 인근의 산림을 화전으로 개간하여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5년 해방을 전·후해서 이제까지 두문동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던 가구들이 대처

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이 마을을 떠난 것은 1950-53년의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공비소탕작전으로 마을이 불살라지고 주민들이 외지로 소개되면서부터였다. 이때 많은 가구들이 뿔뿔히 흩어지고 전란 이후 귀향한 가구는 80여 호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쟁 이전의 많은 택지들이 전답으로 변했고 대부분의 주택들이 새로 건축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화전정리사업도 이마을의 공간구조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원인이다. 대양2리에서 화전을 일구어 살아오던 가구들은 정부의 강력한 치산록화 사업에 의해서 화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화전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많은 가구들이 이 마을을 떠났다.¹⁾ 또한 이들이 개간해서 경작해 오던 화전은 다시 산림으로 환원되어 마을의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도 마을의 공간구조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다. 새마을운동이 마을공간구조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업은 마을안길확장사업²⁾이다. 대양2리는 4개의 자연부락이 널리 분산분포되어 있고 이를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겨우 2~2.5m로 우마차가 지날 정도로 협소해서 자연부락간 차량통행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금산읍내버스의 대양2리까지의 연장운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전 주민들은 마을 안길의 확장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4-75기간 동안 4개 자연부락간을 연결하는 마을안길 약 4km를 3~4m 폭으로 확장³⁾ 시켜 버스가 두문동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양2리의 새마을운동은 1972년도에 정부에서 제공한 세멘트 332포대로 담장개량과 부엌개량 등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양2리가 널리 분산된 4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졌고 각 자연부락마다 관심과 이해가 달라서 새마을운동의 추진은 부진했다. 그러한 중에서도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지붕개량 50동과 마을안길 4.1km

1) 화전정리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다. 행정기관에 보관된 기록으로는 정부가 이주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주시킨 대양2리의 화전민 가구는 1970년대에 10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양1리와 대양2리 입구까지의 마을간 도로는 1968년도에 군비로 확장했다.

3) 마을안길확장공사시 도로주변의 농지를 회사한 가구는 다음과 같다. 정영택, 송영환, 정길모, 오시동, 정진관, 박연예, 정진원, 김상홍, 길창하, 조기호, 길병하, 정전사, 정길모, 정쾌모, 정진홍, 이석만, 김대근, 양진규, 곽영채, 손종우, 박홍서, 안재수, 곽영어, 남기수

의 확장, 농로 확장, 암거·소하천 및 새마을회관 건립과 상수도 설치가 새마을운동이 달성한 주요 성과였다.

산간지역에 고립된 오지마을로서의 대양2리가 외부사회 특히 금산읍과 공간적으로 크게 접근하게 된것은 1981년 금산읍내버스가 마을까지 운행이 연장되면서 부터이다. 또한 1987년도에 개통된 전화선은 대양2리 주민들의 외부사회에 대한 통신망을 전국권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표 5-1 새마을운동의 주요성과

연 도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1972	담장개량	50 동	
	부엌개량	50 동	
1973-74	지붕개량	50 동	1974년이후 년차적으로 지붕개량을 추가실시 하였음.
1974-79	마을안길	4,100 m	4개 자연부락 및 대양1리와의 연결도로
1974	농로	370 m	명고동
1975-77	암거	16 m	두문동, 유곡
1978	교량	15 m	삼방선
"	마을회관	15 평	대지 69 평
"	상수도	49 호	
1985	소하천석축	85 m	
1987	암거	5 m	두문동

1. 주민생활권

대양2리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는 마을에서 22km 떨어진 금산읍이다. 금산읍은 군청, 경찰서, 교육청,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인삼조합 등 행정기관과 농민단체, 금융기관 등이 있고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며 중고등 교육기관, 고속 및 직행버스 터미널 등이 있어 대양2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특히, 금산시장은 5일장과 함께 인삼시장이 서고 있으므로 대양2리 주민들이 생산

한 인삼의 중요한 판매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금산시장은 우시장이 있고 쌀 등 농산물의 판매와 생산자재를 구입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한편 금산읍은 대양 2 리 주민들의 결혼식과 중요한 계모임 등을 갖는 사회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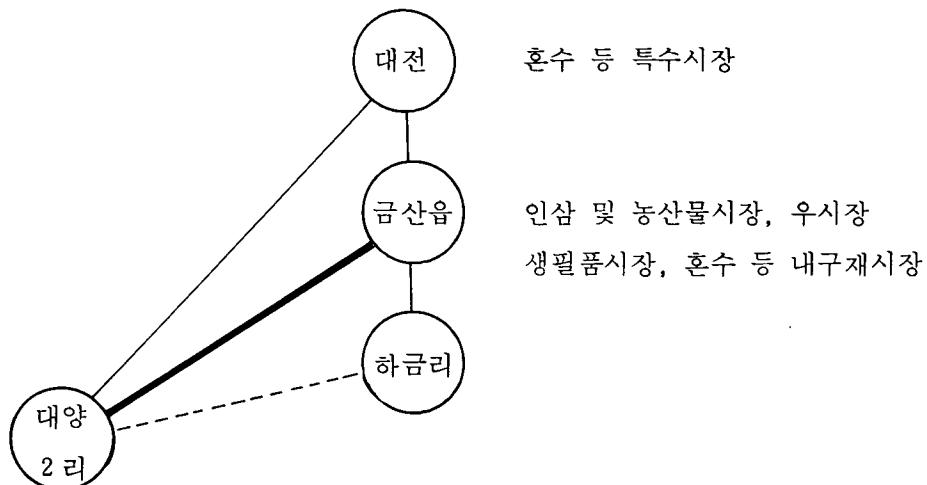
하금리는 남이면 소재지로서 대양 2 리 주민들에게 보조적 중심지 역할을 하니 시장 기능이 매우 미약해서 중심성이 약한 편이다. 하금리에는 면사무소, 경찰서지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있어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농협 단위조합과 연쇄점이 있어 금융서비스 및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도 한다. 하금리에는 음식점과 다방은 있으나 숙박시설은 없고 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유일하다. 한편 하금리에는 국민학교가 있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전은 대양 2 리에서 56.7 km 떨어져 있어 대양 2 리 주민들에게 직접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업과 일부 고등학교학생의 취학, 대학진학 등의 장소로서 광역 지역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가. 시장권

대양 2 리 주민들은 과거부터 금산시장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금산시장이 너무 멀어서 남이면 소재지인 하금리에 1 일과 6 일에 열리는 5 일장을 1965년부터 개설했다. 그러나 부지 335 평 규모로 열렸던 하금시장은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시장규모도 적어 수년간 개설되었다가 1972년도에 폐쇄되고 주민들은 다시 금산시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금산시장은 우시장, 농산물시장, 인삼시장, 의류시장, 장롱등 가구시장, 귀금속시

그림 5 - 1 시 장 권



장등 마을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취급한다. 일부주민들은 혼수등 특수상품을 대전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또한 여름배추등 단경기 농산물을 대전시장에 직접 수송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나. 교육권

대양 2리 주민들의 학구는 1945년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학교가 하금리에 개설된 이래 이 마을 아동들은 4km 떨어진 하금국민학교에 도보로 통학해 오다가 1981년부터 일일 3왕복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문동에서 출발하는 아침 버스가 새벽 06:1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국민학교 아동들은 등교시 이 버스를 이용하나 하교시에는 대부분 도보로 귀가 한다.

중고등교육은 금산읍 또는 대전에 있는 학교를 이용한다. 버스가 마을까지 운행되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금산으로의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전원 금산읍이나 대전에서 자취 또는 하숙을 한다.

다. 보건·의료권

의료보험에 의한 대양 2리 주민들의 1차 진료권은 금산군지역이다. 금산읍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병원의 역할을 대행하며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등 전문의가 있다. 하금리에는 1967년경부터 약방과 한약방이 개설되어 의료수요에 응해 왔었으나 1978년부터 보건지소가 개설되어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금리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료보호대상자 이외는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금산읍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그러나 종합진단이나 수술등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대전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원을 이용한다.

하금리에 보건지소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마을주민들이 급한 병이 발생했을 때 금산읍까지 가야하며 신속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위급환자가 하금리 보건지소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산까지의 교통수단도 마을내의 자가용 차량과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통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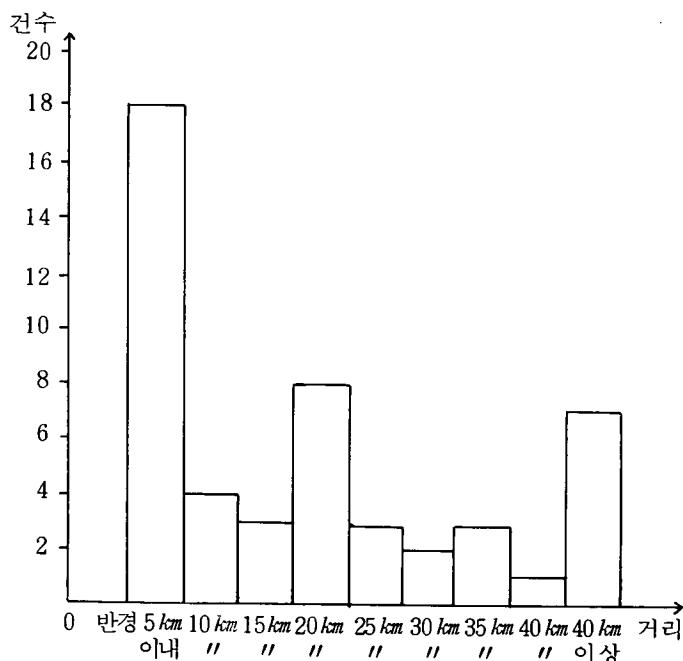
1985년 이전까지 대양 2리 주민들은 마을내 결혼이 27.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표 5-2>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전라북도 진안군과 완주군 지역과의 통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양 2 리가 진안군 주천면, 완주군 운주면과 경계하고 있는 지리적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대양 2 리 주민들은 인근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과 더불어 군내 지역 등 가까운 지역에서 75.9%의 가구가 혼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도에서의 통혼은 8.5%로 낮은 편이다.

표 5-2 통혼권의 변화, 1950~85

통 혼 지 역		1950 년 이전	1950-1969	1970-1985	계
도 내	마을내	2	9	2	13(27.7)
	면 내	1	-	-	1 (2.1)
	군 내	4	3	2	9(19.1)
	군	1	1	2	4 (8.5)
전라북도	진안군	4	3	1	8(17.0)
	완주군	2	2	1	5(10.6)
	기타군	-	2	1	3 (6.4)
기 타 도		-	1	3	4 (8.5)
계		14	21	12	47(100.0)

그림 5-2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2. 마을공간구조

가. 주거공간

① 주택분포구조

대양 2리는 鳴鼓洞, 杜門洞, 柳谷, 莓坊으로 불리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다. 명고동은 해발 250 ~ 270 m의 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울고지, 개양골, 도룡골로 불리는 3개의 차하위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다. 울고지가 토박이 말인 명고동은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15호의 주택이 도로변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울고지에는 새마을회관이 있고 마을상점이 있어서 대양 2리 4개 자연부락의 중심마을 역할을 한다.

개양골은 울고지 동쪽으로 50 m 정도 떨어진 곳에 북향으로 위치한다. 개양골에는 5호의 주택이 있다. 도룡골은 울고지에서 동북향으로 100 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룡골에는 7호의 주택이 있다. 따라서 명고동에는 도합 27호의 주택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26번 가구는 1987년도에 금산으로 이주하고 주택은 공가로 남아있다.

이 마을 주택들은 대부분 6.25의 피해로 모두 불타고 다시 건축되었다. 명고동 27호의 주택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축된 것은 불과 2호이고 25호가 6.25 이후에 건축되었으며 그 중 3호는 1970년대에, 1호는 1980년대에 개축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자연부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고려된다. 첫째로 주거에 필수적인 식량, 식수, 연료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락은 하천변, 또는 넓은 들판을 끼고 있어 주민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배산임수터가 제격이다.

두번째로 농업경영의 원리에 의해서 농가와 농경지는 가급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한다.

세번째로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은 하천범람, 해일, 태풍, 눈이나 산사태, 계곡바람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택하게 된다.

네번째로 외적의 침입을 피하거나 쉽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마을을 이를만큼 넓어야 한다. 특히 산간지방에서는 맹수의 위

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다섯번째로 주변 마을들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은 도보로 인근 마을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들 사이는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로 등)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부합해야 한다.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풍수지리설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울고지, 개양골, 도룡골 등의 세 자연부락이 적은 규모로 세분화된 것은 다분히 산간지 농경지가 길게 늘어진 지형적 조건에 따른 농업경영상의 고려와 좁고 경사진 계곡의 택지부족 문제 등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두문동은 마을이름이 말해주듯 외지와 격리되어 있는 오지마을이다. 대양리 계곡의 끝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명고동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700m의 노령산맥 준령의 300~350m 산기슭 완만한 경사지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문동도 웃말과 아랫말로 나누어진다. 웃말에는 13채의 주택(실제로는 6호만이 상주)이 있고 아랫마을에는 4채의 주택(3호 상주)이 있다. 그러나 <그림 5-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이전에는 70여호의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문동의 17채의 주택 중 4호는 공가⁴⁾이고 4호는 출입농이다. 이들 출입농⁵⁾은 봄철 농사가 시작되면 마을에 입주하여 농사를 짓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각자의 연고지로 돌아간다.

유곡은 버등골(또는 버들골)이라고 불리며 명고동에서 남서향으로 2.5km 떨어져 있고 좁은 계곡의 끝 급경사면에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주택은 10채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6호뿐이고 4호는 공가⁶⁾로 남아있다. 유곡에 있는 주택들은 모두 6.25 전쟁 이후에 재건축된 것이다.

4) 이들 4채의 공가중 51,55번 가구는 1986년도에 43,45번 가구는 1987년도에 각각 이주했다.

5) 이들 출입농가는 30,49,52,54번 가구다. 이중 30번 가구는 대전에, 49번 가구는 서울에, 52,54번 가구는 금산에 각각 거주한다.

6) 이들 4호의 공가는 1985년 이전에 전출한 사람들로서 본 조사대상이 아니다.

삼방도 유곡과 같이 좁은 계곡의 끝 급경사면에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명고동에서 1.2 km 남쪽에 위치한 삼방은 6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6.25 전쟁 이후에 건립되었다.

6.25의 참화로 대부분의 주택이 소실된 이 마을 주민들은 전쟁직후에는 <그림 5-24>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주택으로 임시거처를 삼다가 전쟁의 휴유증이 가신 1950년대 말부터 현재와 같은 3칸구조의 주택을 신축했다.

한편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농가경제가 향상되어 대양2리에도 부속사 등의 건축이 일어났다. 신축된 건물들의 내용을 보면 담배건조장, 축사, 창고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건물이 71.1%로 압도적이며 주거용은 14.5%에 불과하다. 특히 두문동, 유곡, 삼방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명고동에서만 주거용 건축물의 개축이 안채와 사랑채 각기 3건, 8건이 있었다. 두문동과 유곡 및 삼방에서 주택이 노후하고 조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와 함께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이 마을의 주택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산 등지에 자녀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들의 하숙이나 전세방에 투자한다.

이와는 달리 명고동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신·개축할 만큼 삶의 장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3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개축 현황, 1970~88

구 분	명 고 동				두문동	유 곡	삼 방	계
	울고지	개양골	도룡골	계				
안 채	1	1	1	3	-	-	-	3(6.7)
사 랑 채	5	1	2	8	-	-	-	8(17.8)
창 고	3	2	1	6	1	-	-	7(15.6)
담배건조장	2	2	1	5	1	5	4	15(33.3)
축 사	4	1	1	6	3	1	-	10(22.2)
기 타 *	2	-	-	2	-	-	-	2(4.4)
계	17	7	6	30	5	6	4	45(100.0)

*기타 건축물은 마을회관과 마을창고를 말함.

대양 2 리의 주택은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9%가 남향으로 33.3%가 동향을 취하고 있으며 11.1%가 서향을, 3.7%는 북향을 취하고 있다. 유곡과 삼방은 마을 향배가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향배는 동 또는 남향이 지배적이다. 두문동의 경우는 마을 자체도 동향이고 주택의 향배도 62.5%가 동향이다.

표 5 - 4 주택의 향배, 1988

주택의 향	계	명 고 동			두문동	유 곡	삼 방
		울고지	개양골	도룡골			
동	18(33.3)	3	-	1	10	3	1
서	6(11.1)	-	4	-	-	-	2
남	28(51.9)	11	1	6	6	3	1
북	2(3.7)	-	-	-	-	-	2
계	54(100.0)	14(25.9)	5(9.3)	7(13.0)	16(29.6)	6(11.1)	6(11.1)

그림 5-3 명고동의 주거 공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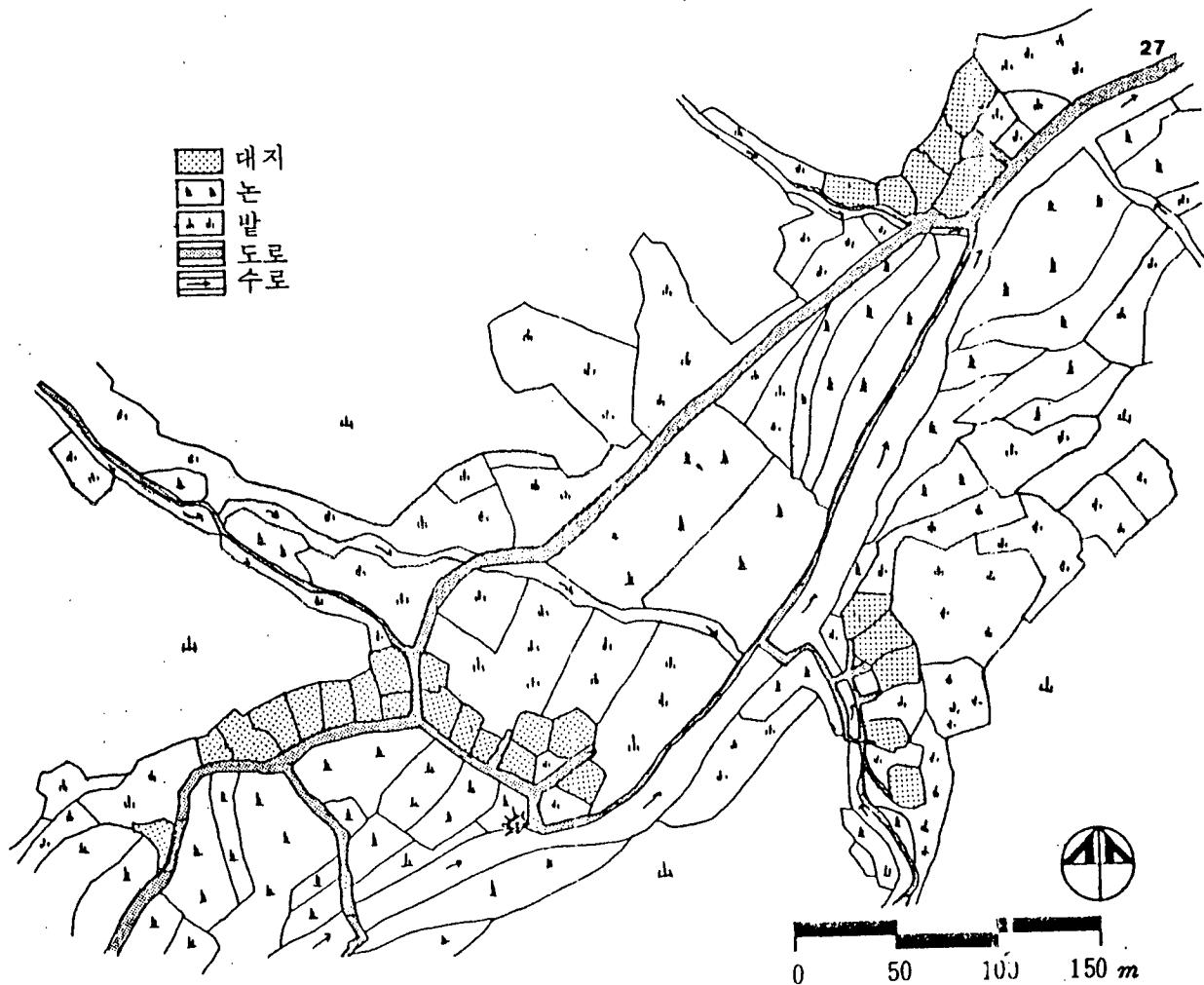


그림 5 - 4 명고동의 주거 공간,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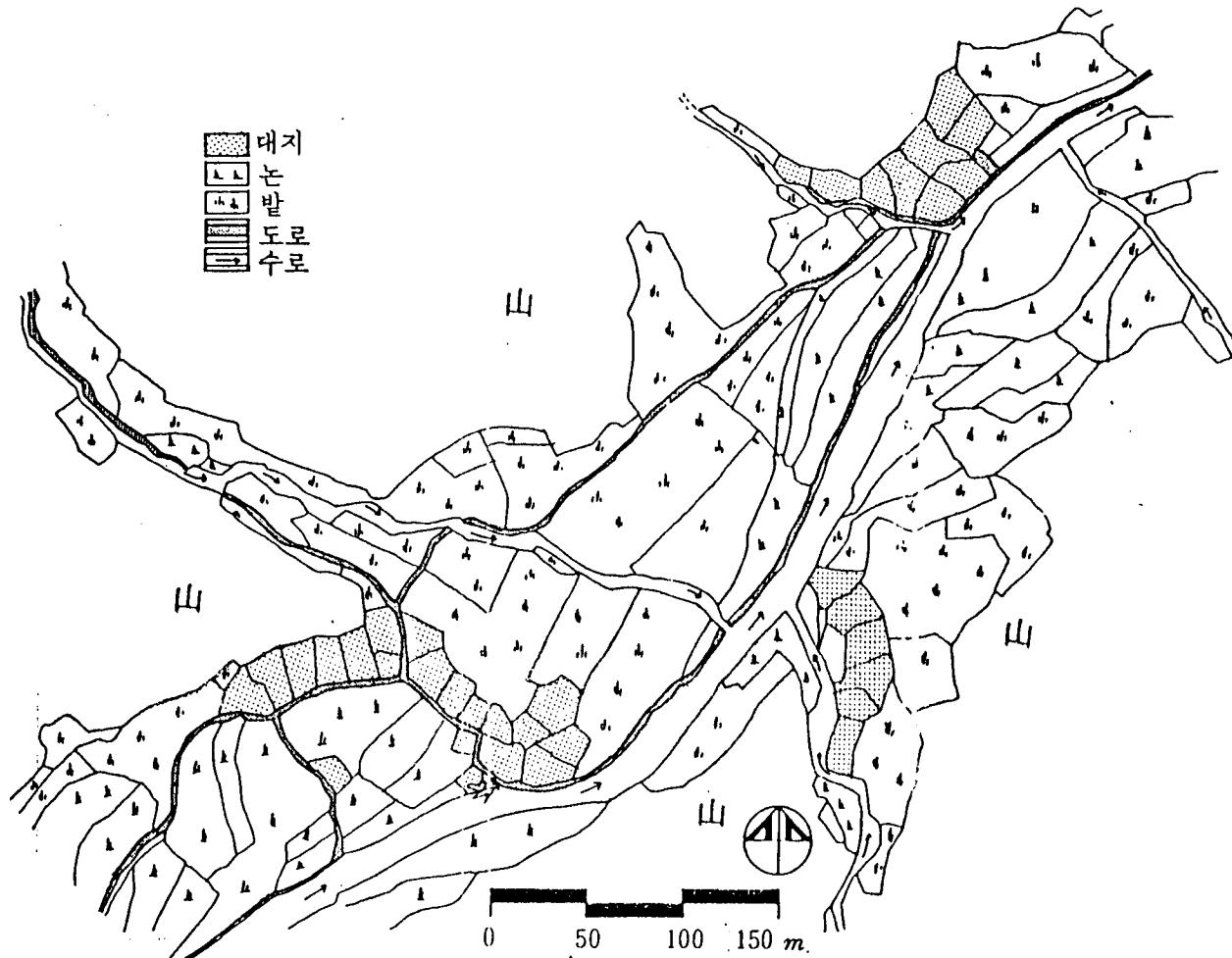


그림 5-5 명고동의 주택배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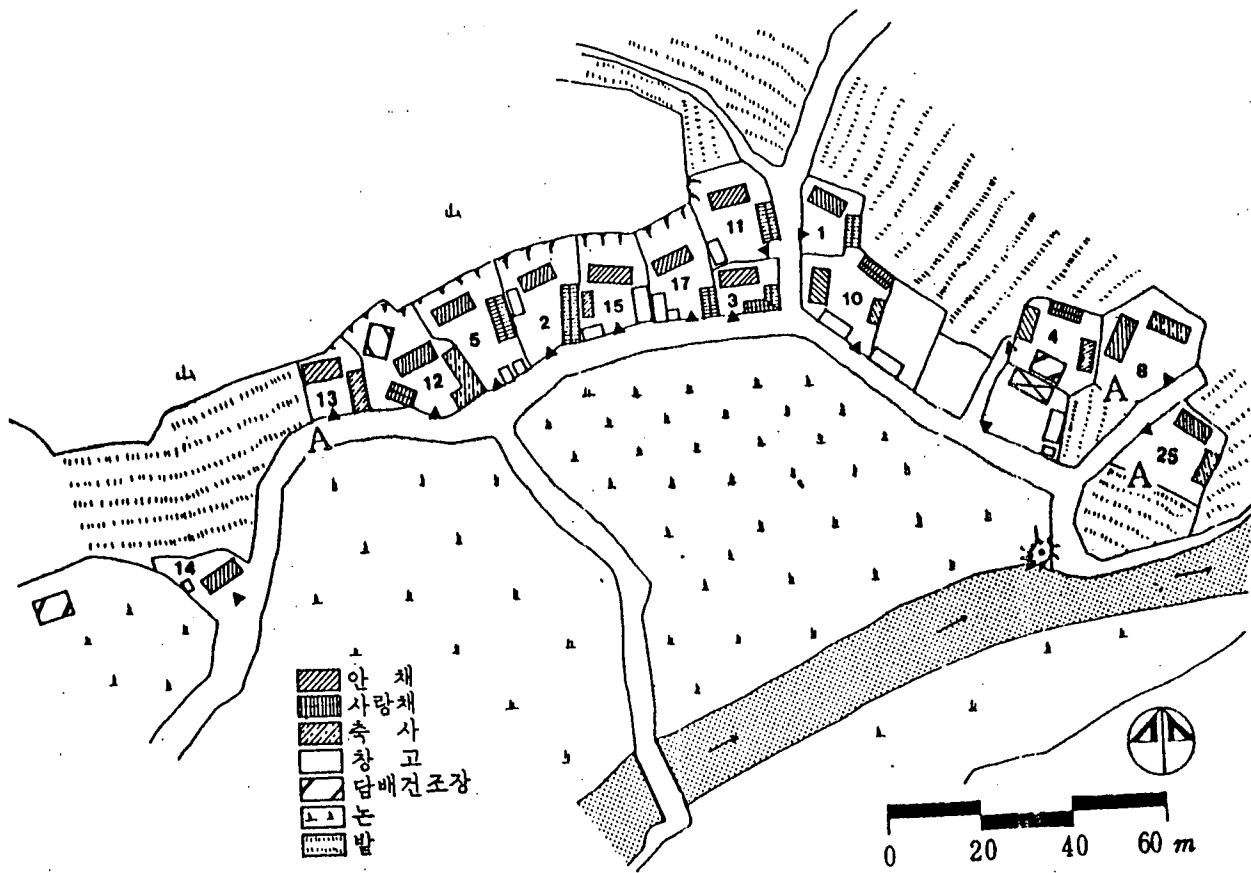


그림 5-6 명고동의 건축물증가, 19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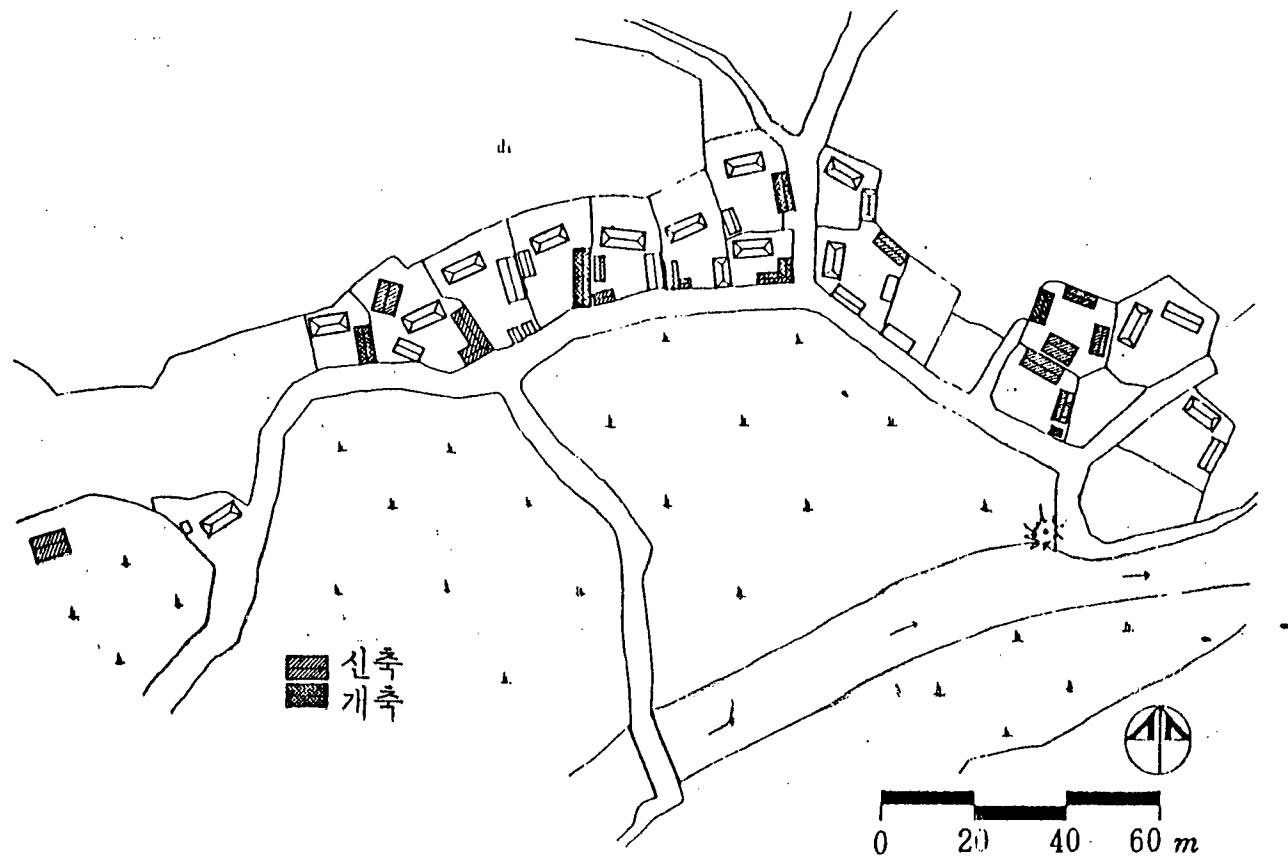


그림 5-7 개양골의 주택배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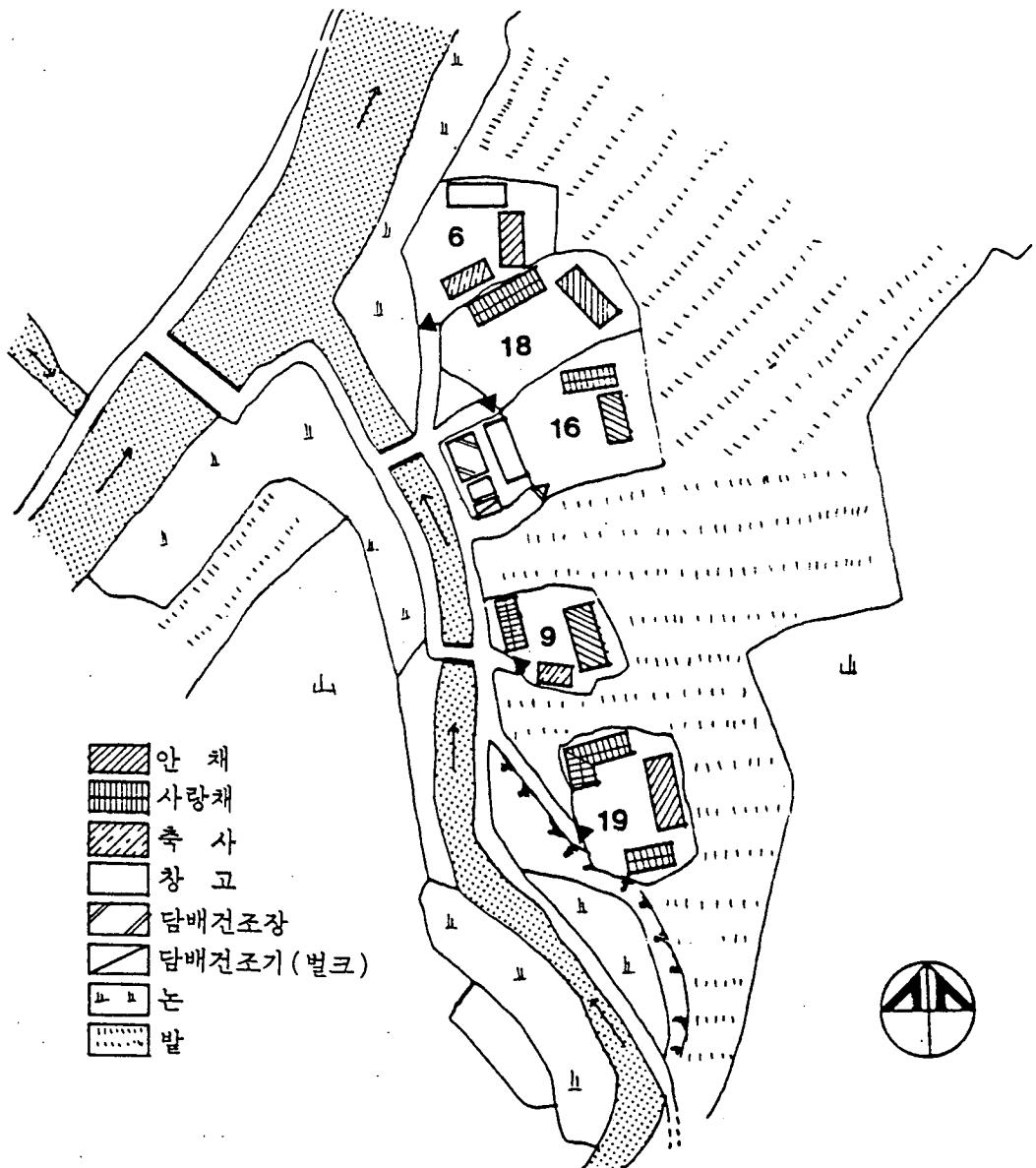


그림 5-8 개양골의 건축물 증가, 19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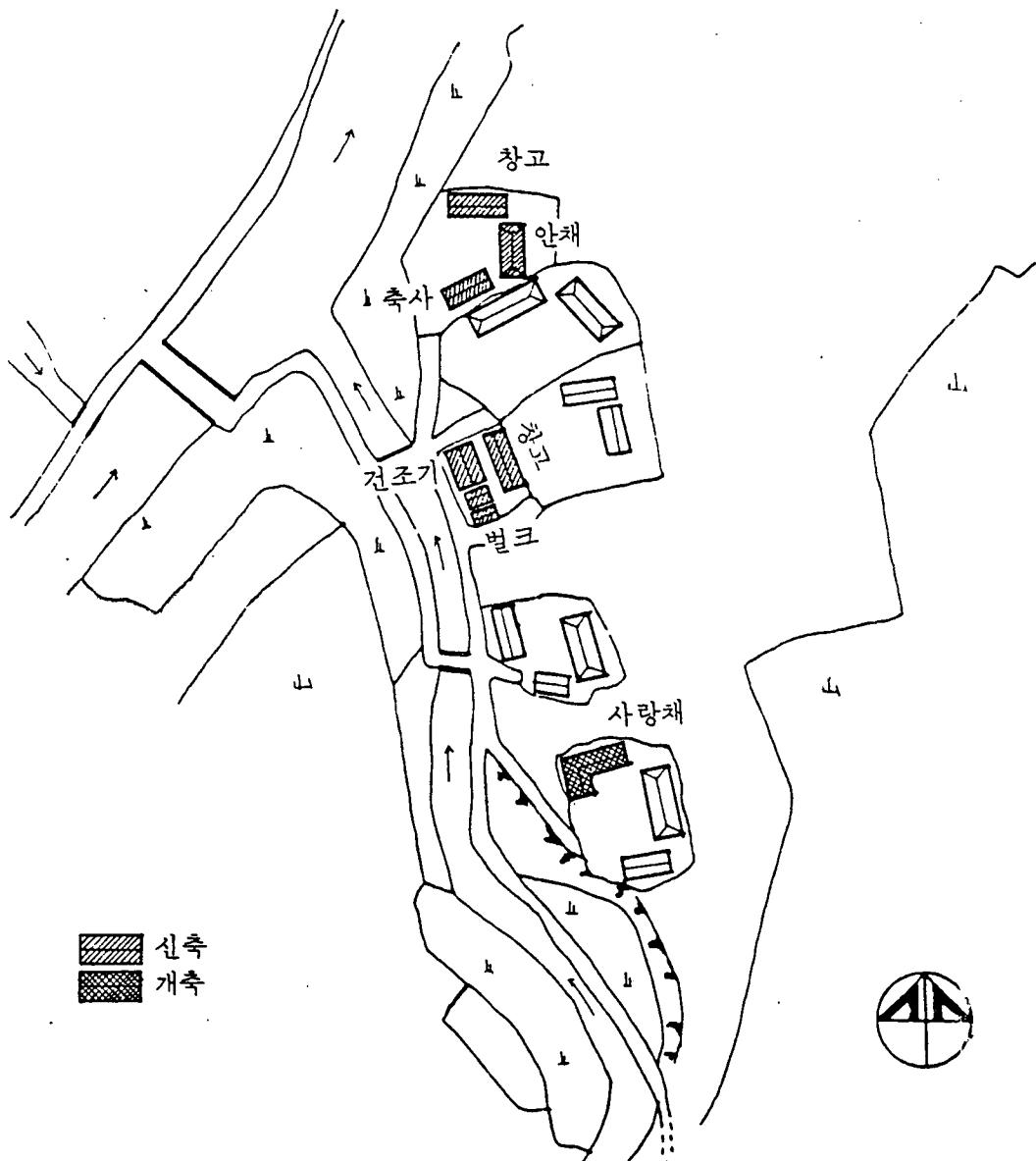


그림 5-9 도룡골의 주택배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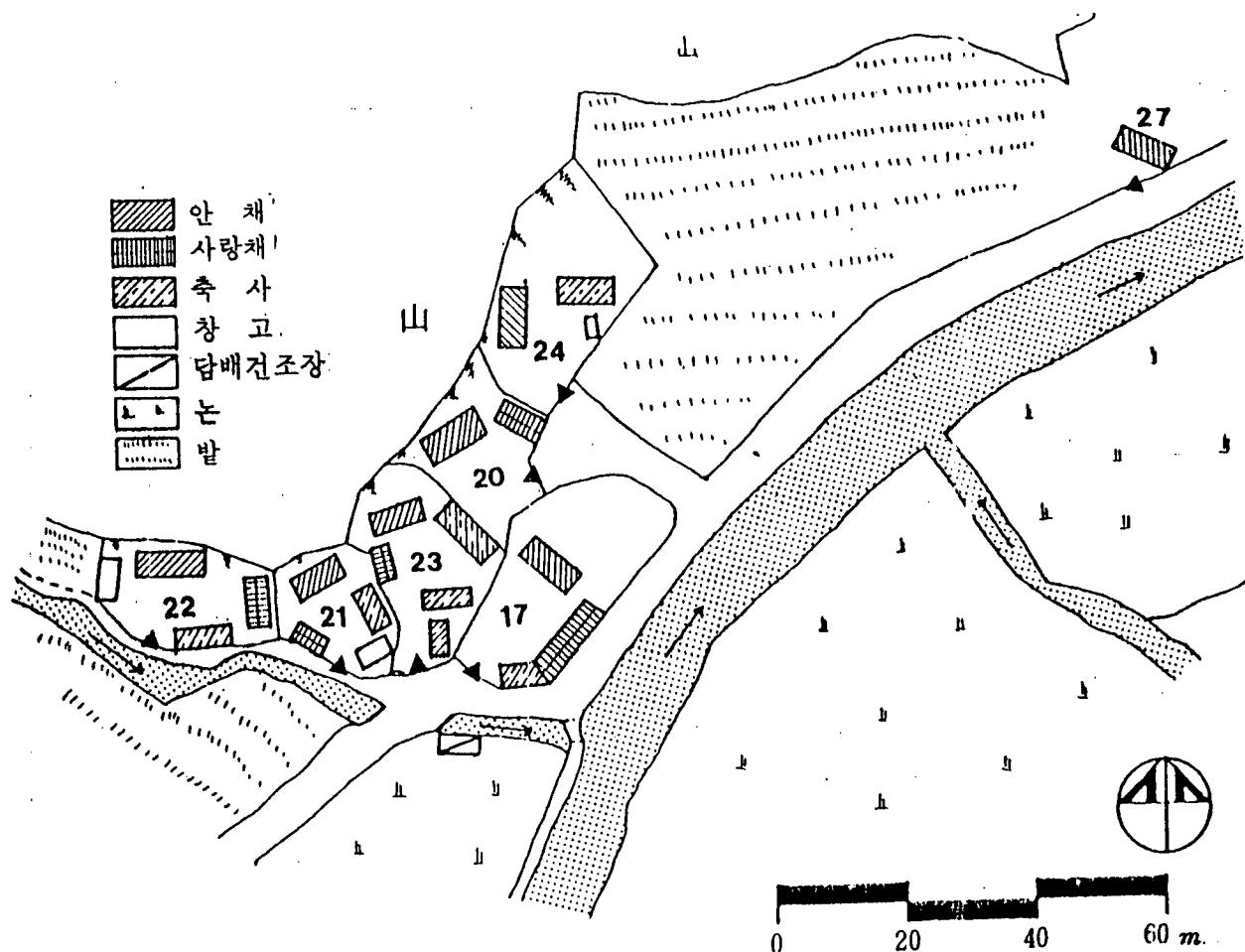


그림 5 - 10 도롱골의 건축물 증가, 19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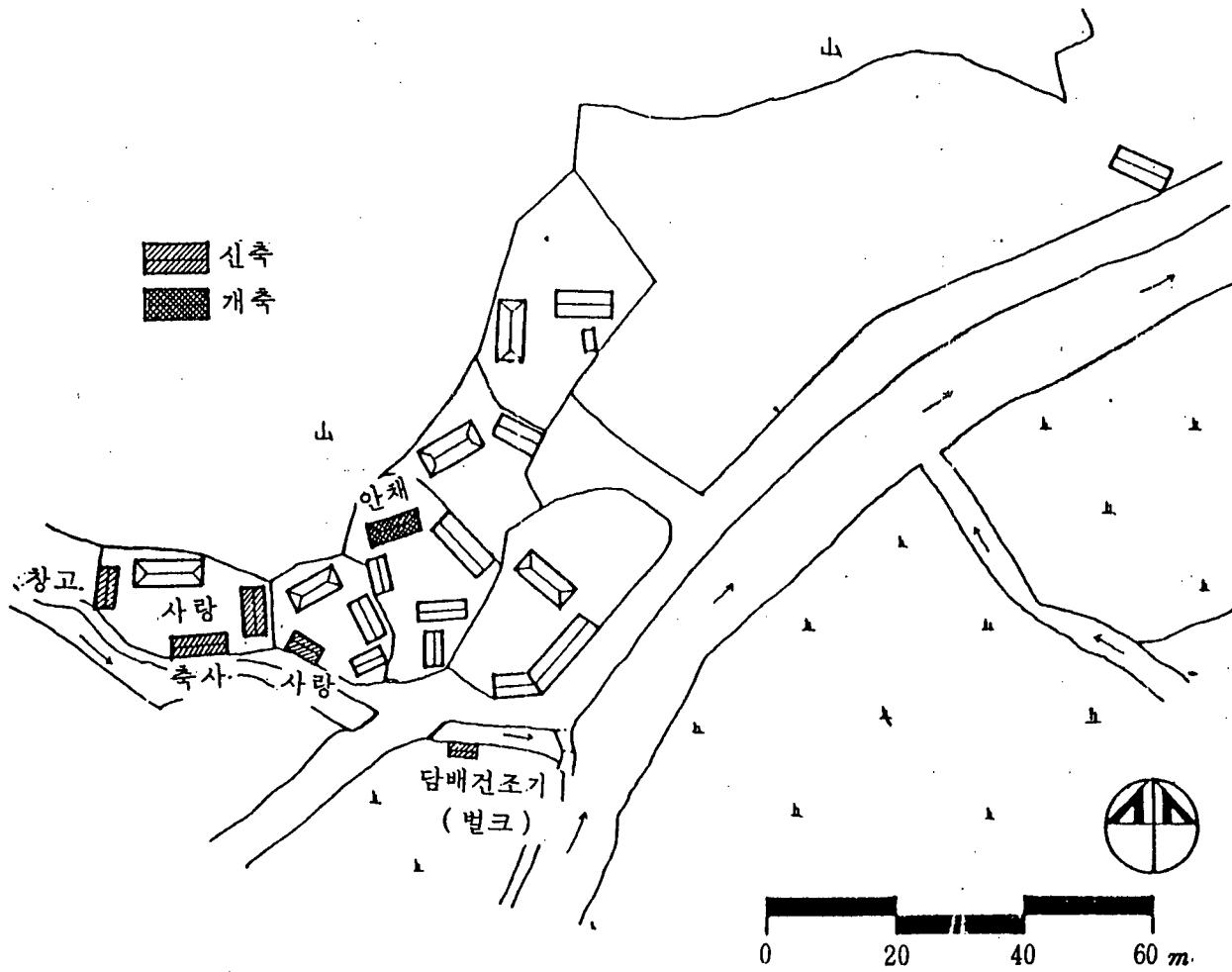


그림 5-11 두문동의 주거공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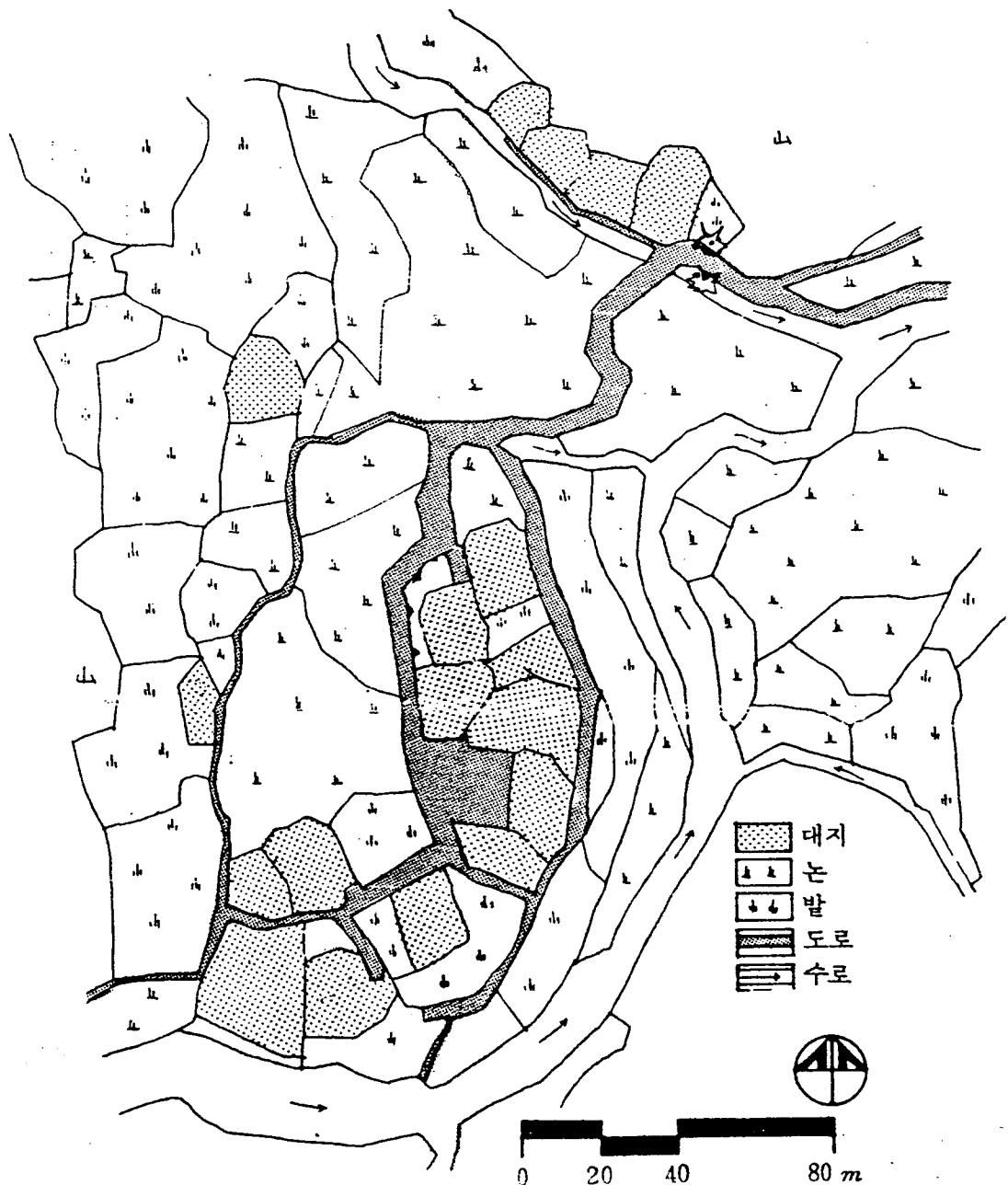


그림 5-12 두문동의 주거공간,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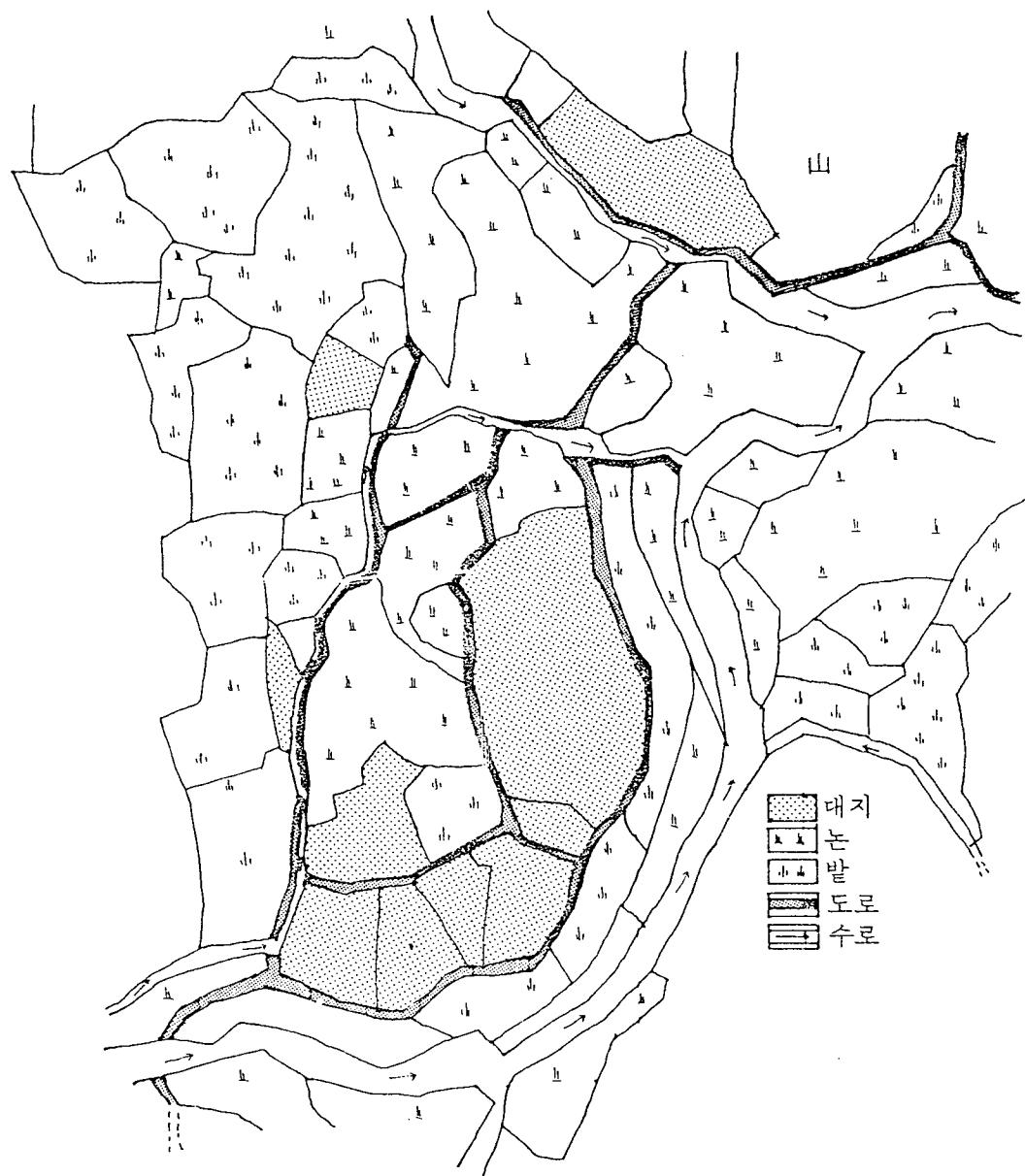


그림 5-13 두문동의 주택배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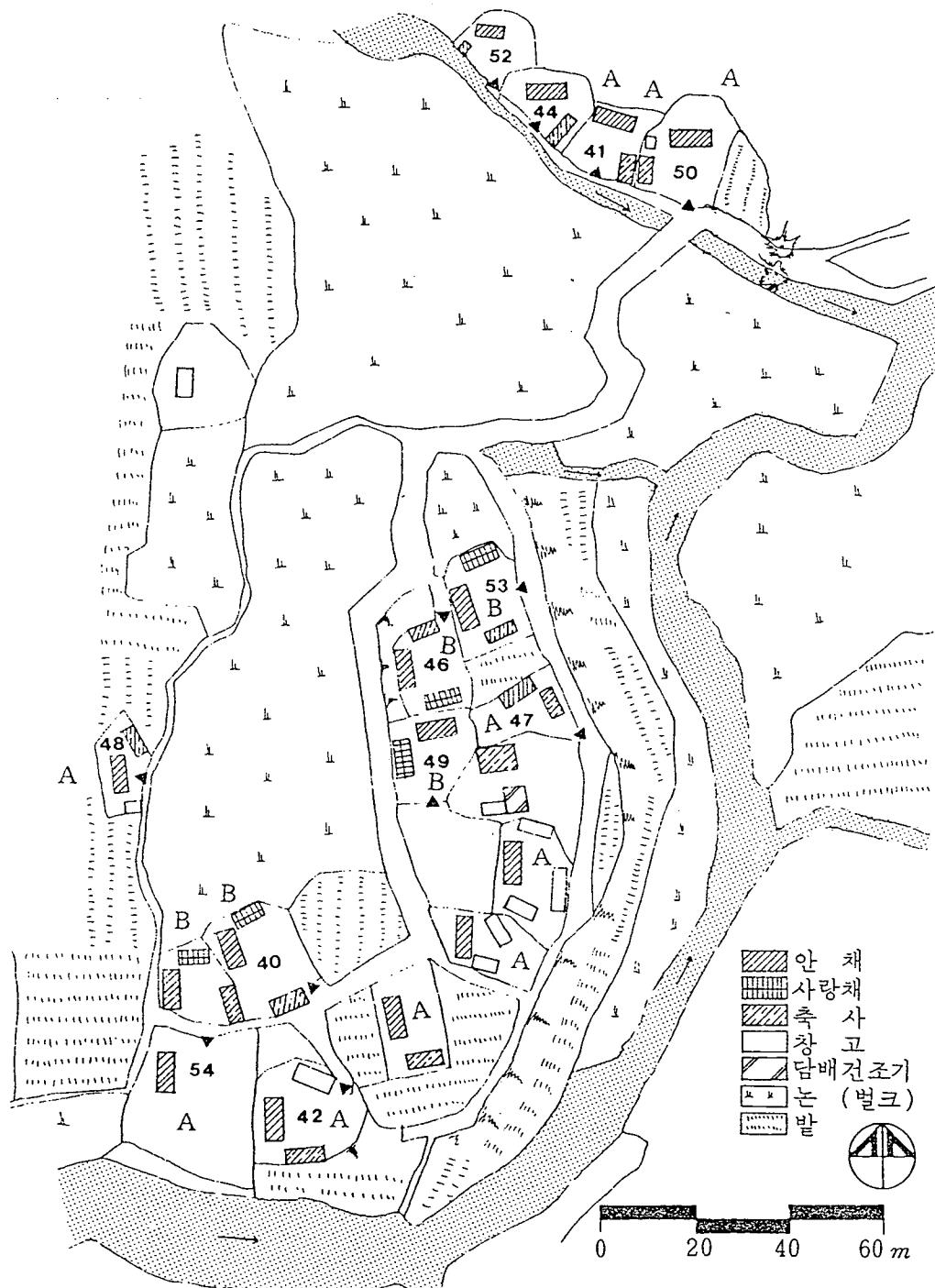


그림 5-14 두문동의 건축물 증가, 19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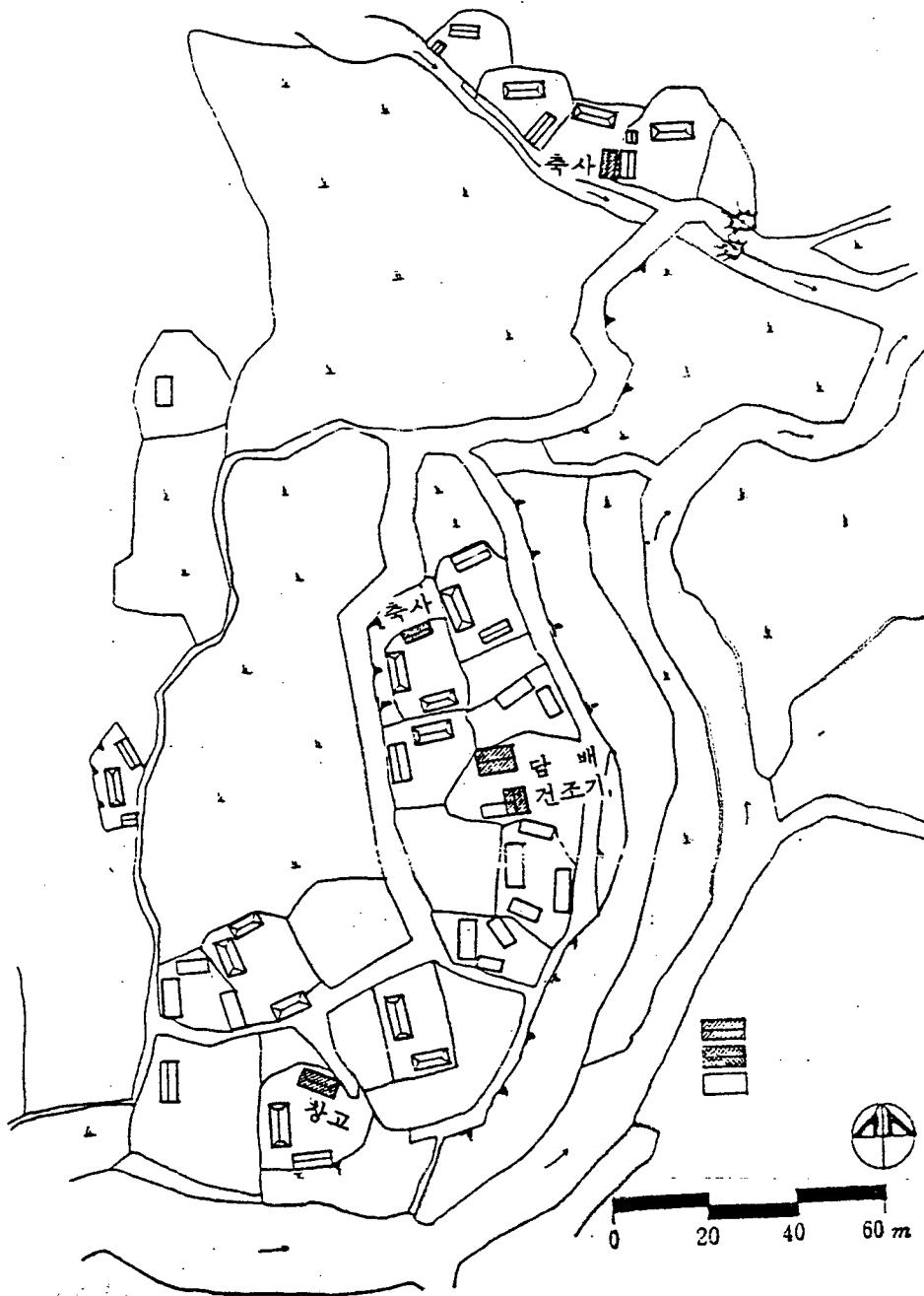


그림 5-15 유곡의 주거공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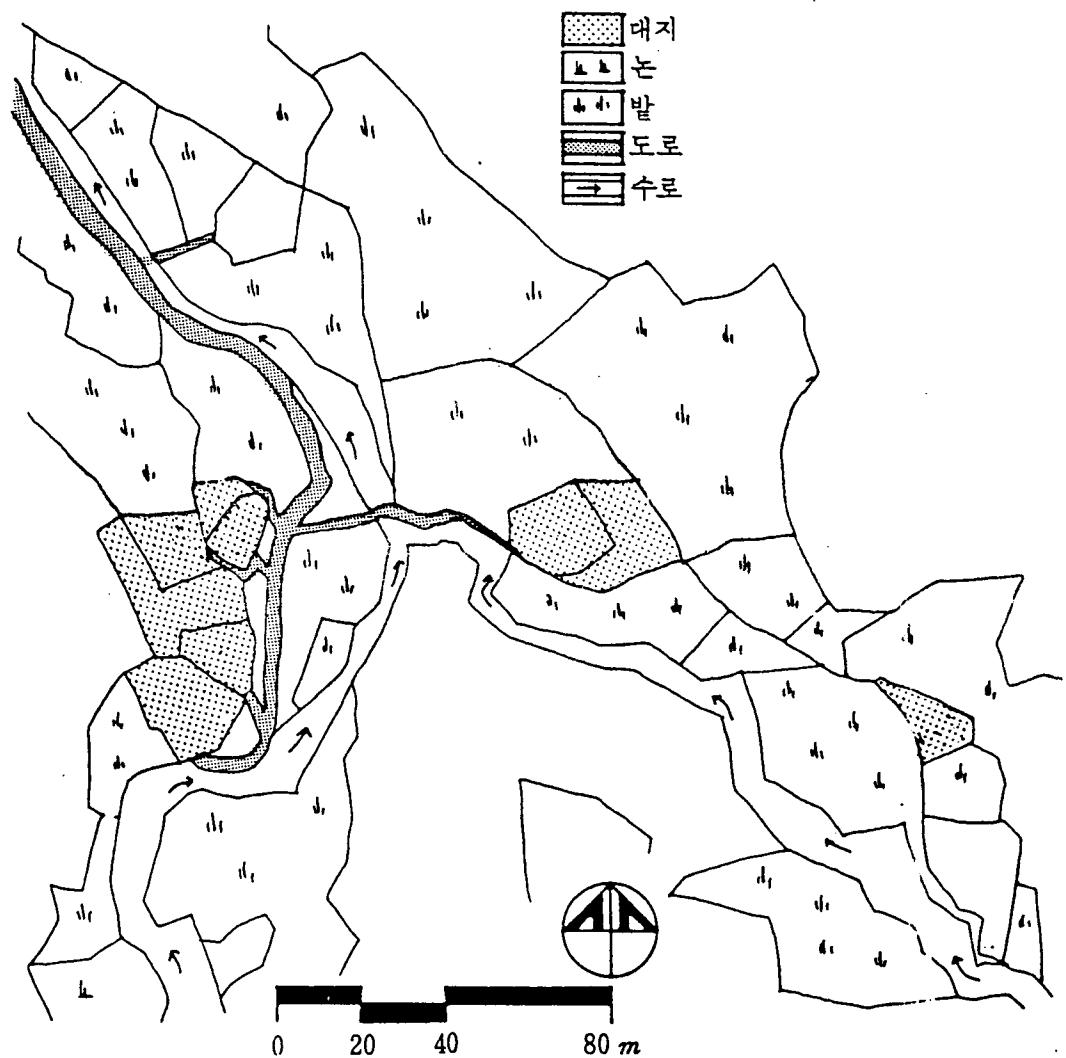


그림 5-16 유곡의 주거공간,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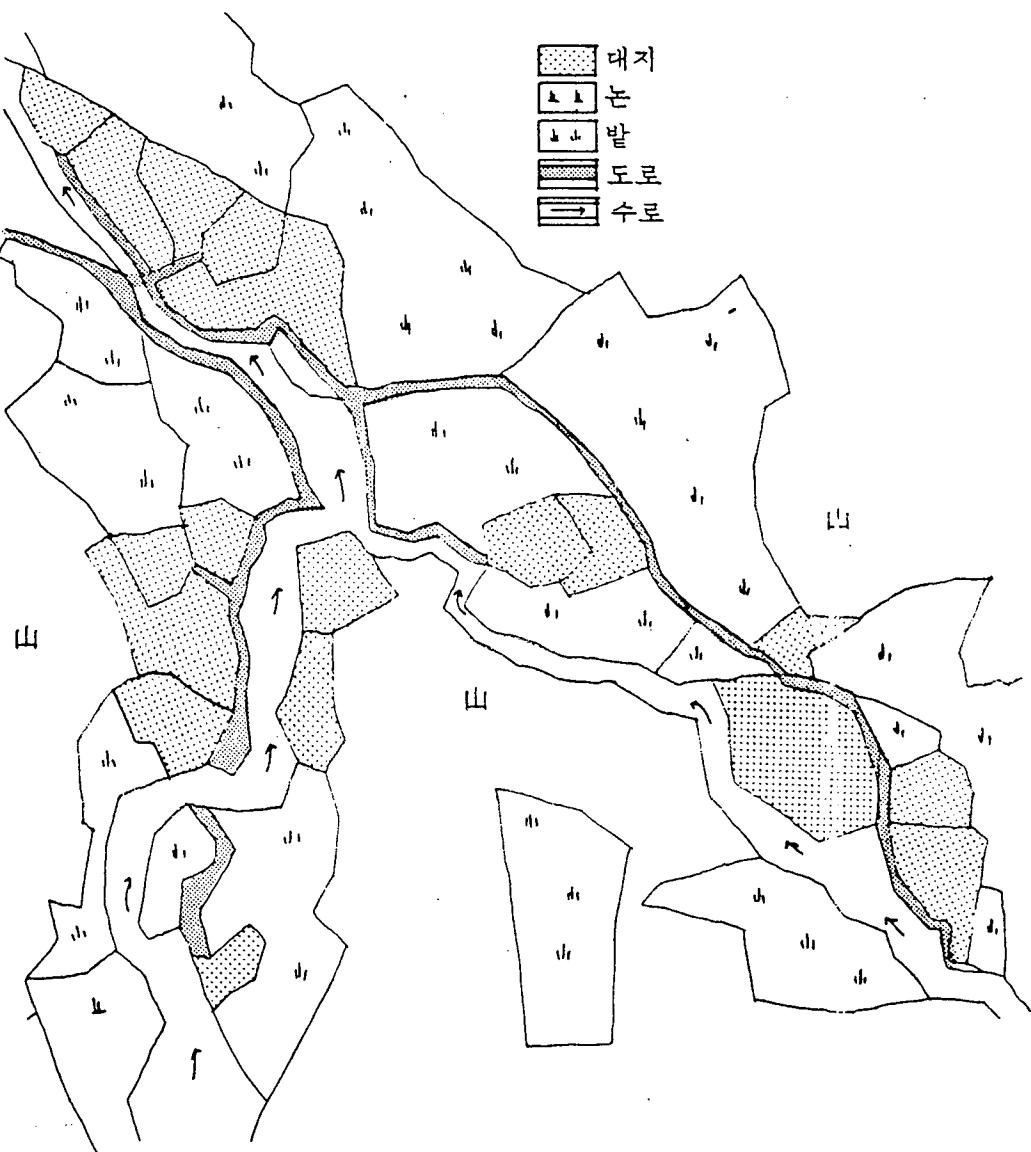


그림 5-17 유곡의 주택배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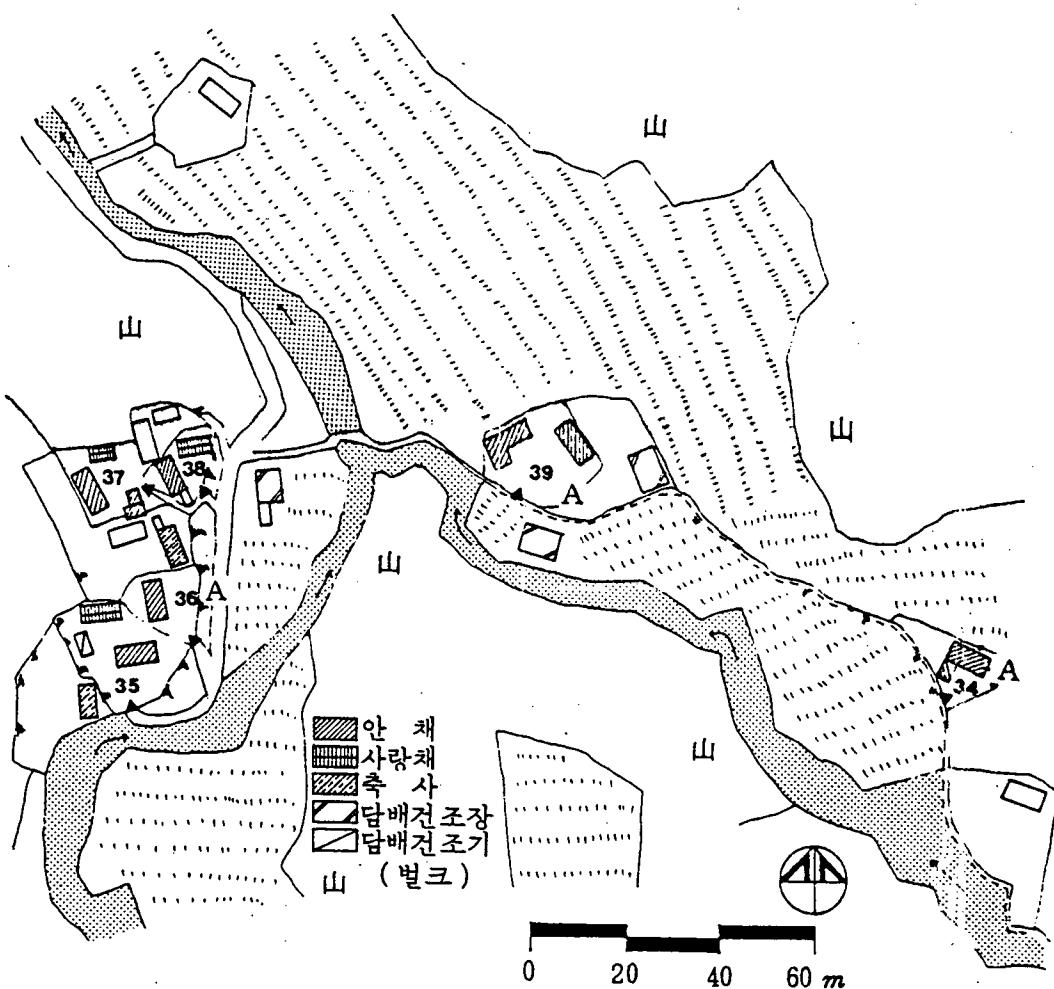


그림 5-18 유곡의 건축물 증가, 19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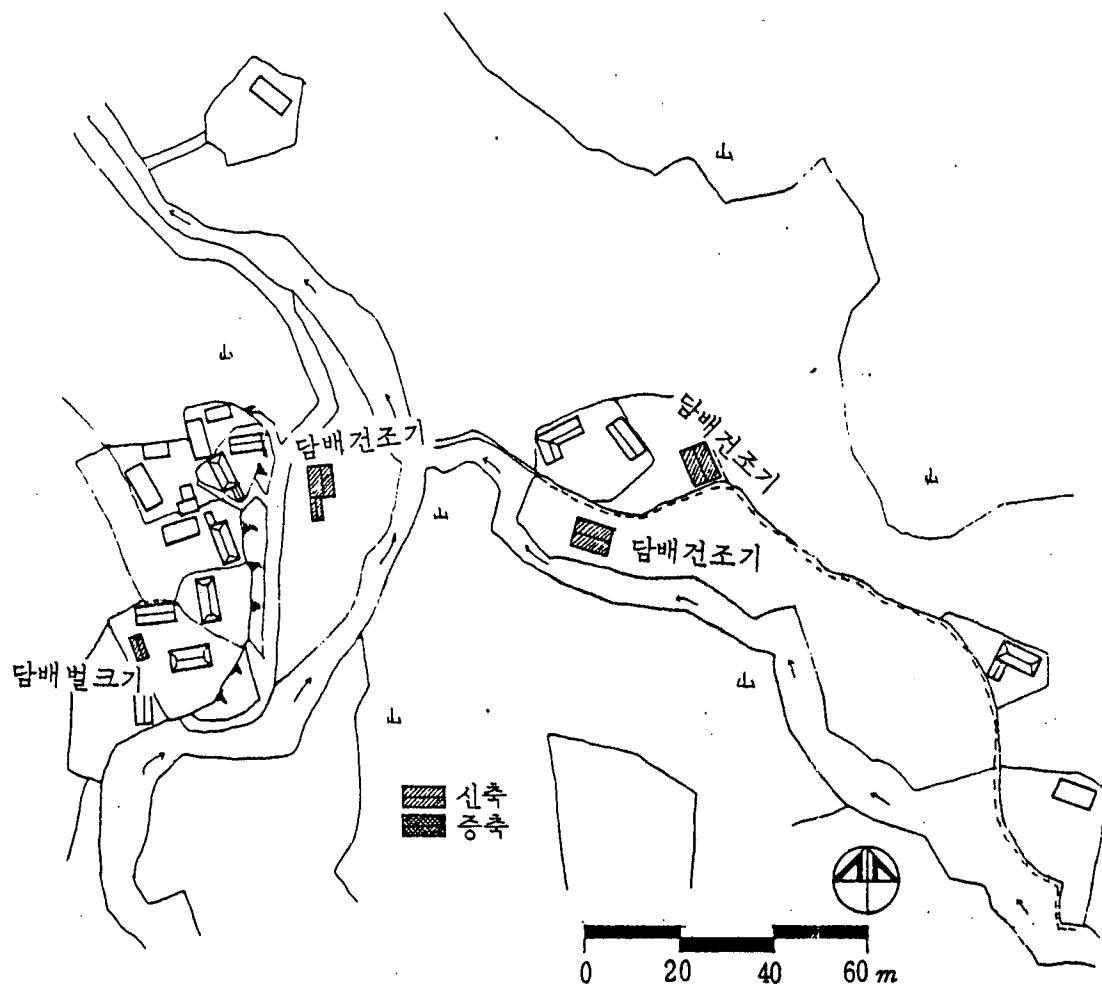


그림 5-19 삼방의 주거공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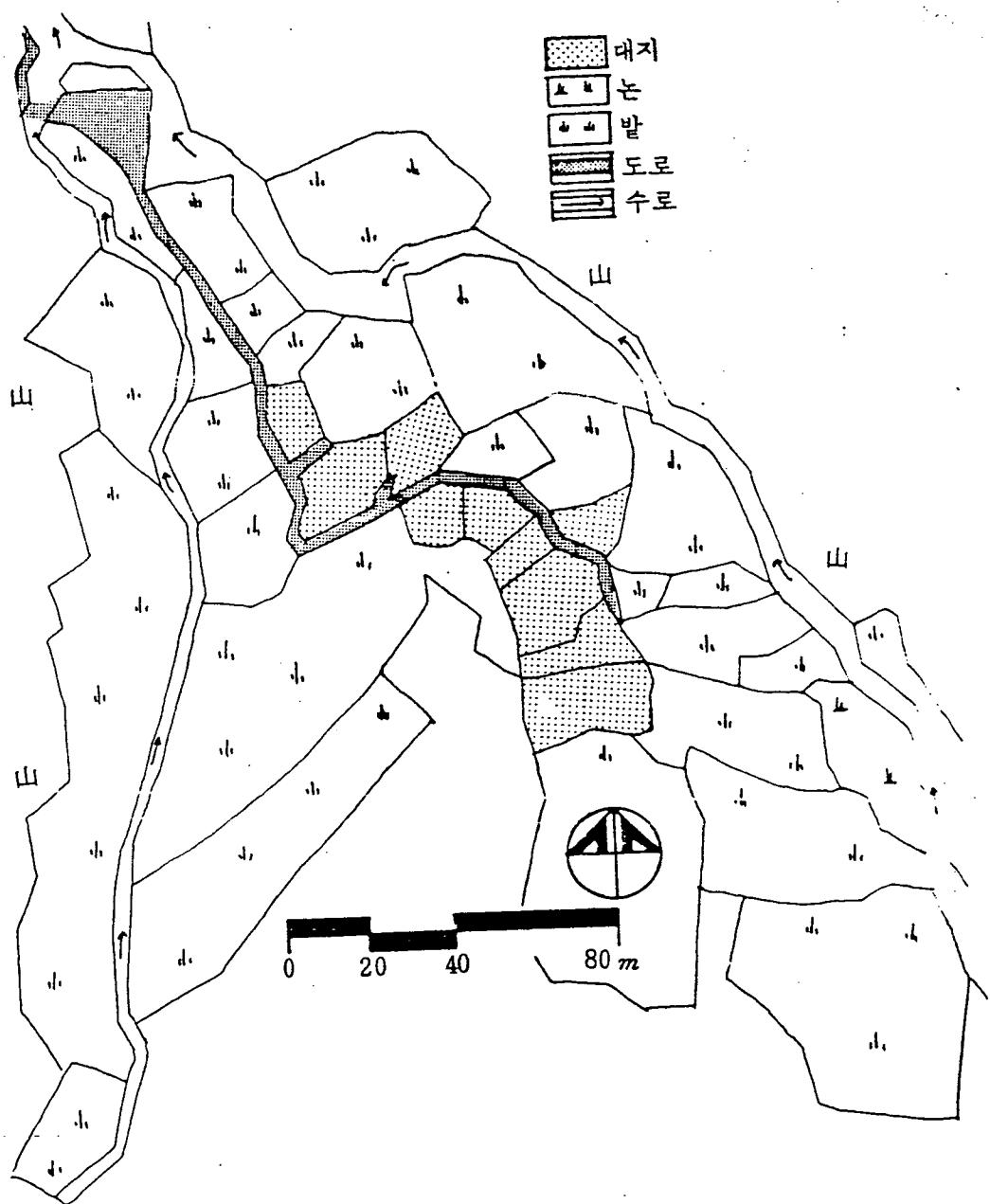


그림 5-20 삼방의 주거공간,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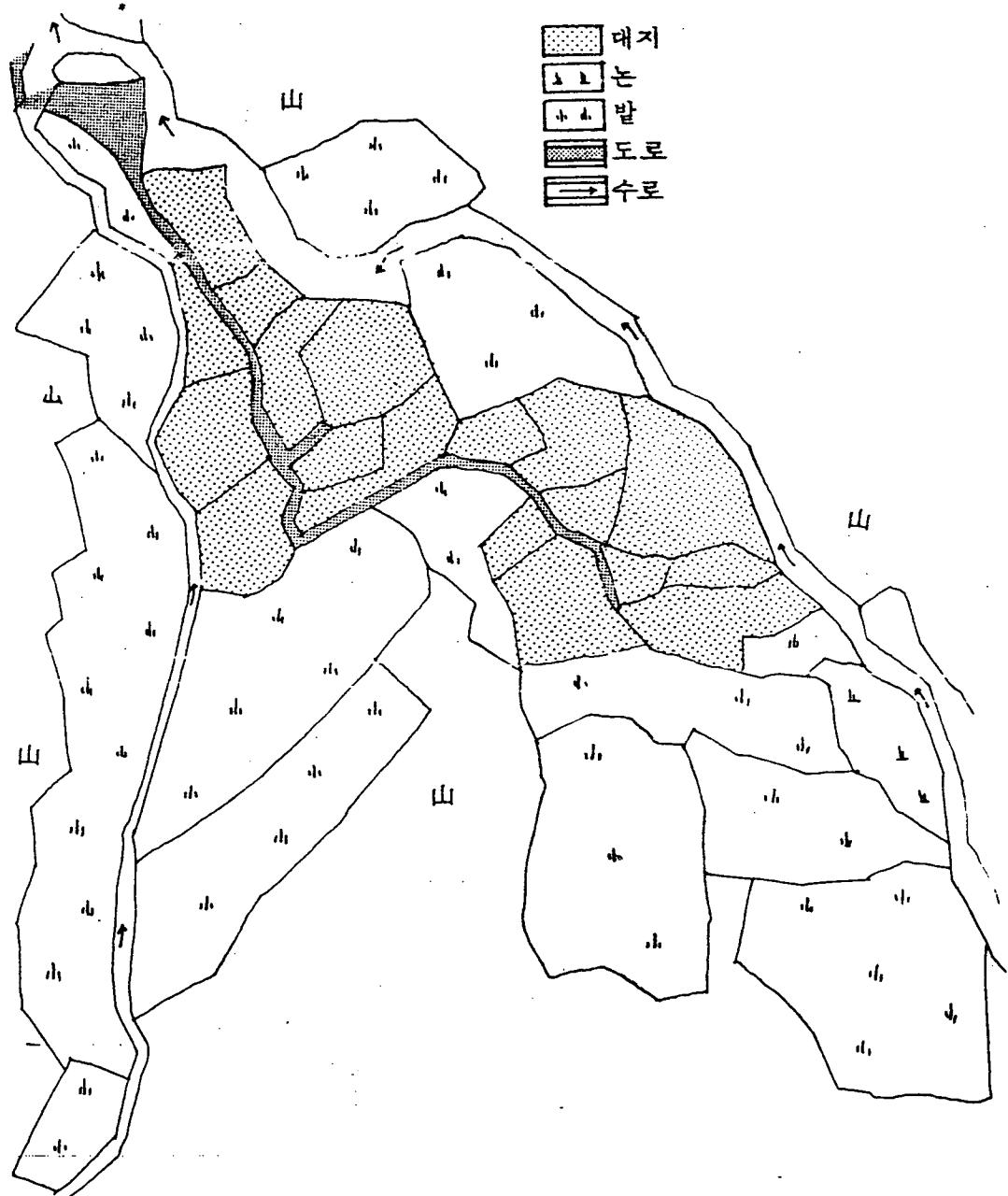


그림 5-21 삼방의 주택배치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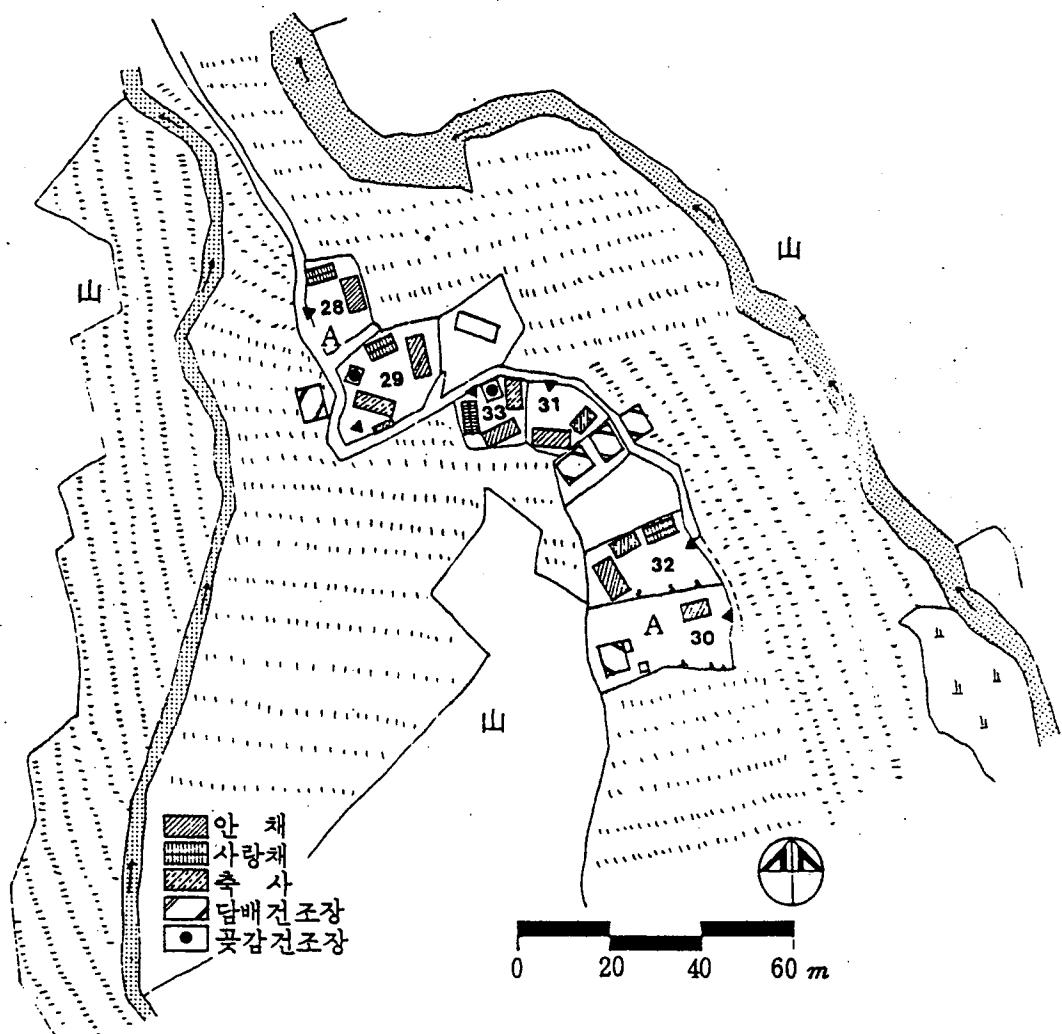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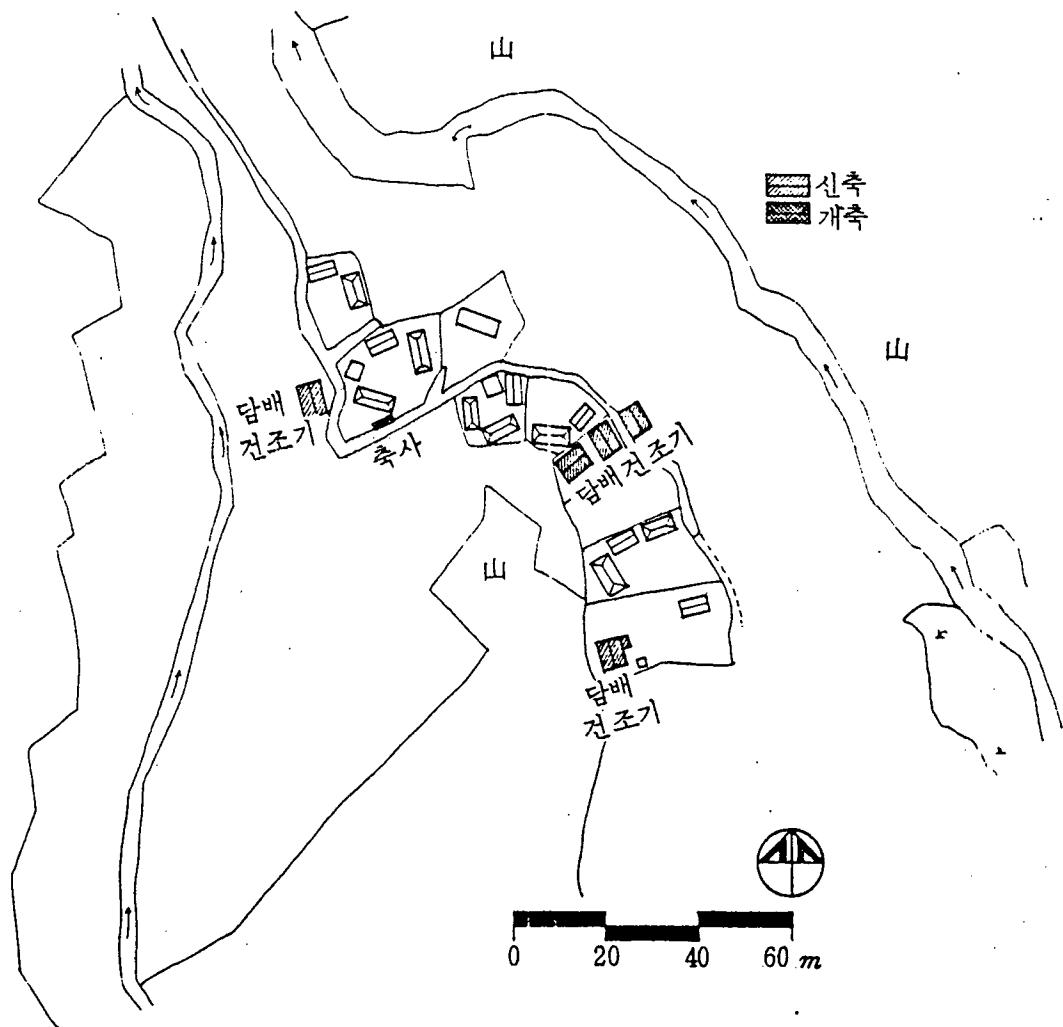


그림 5-22 삼방의 건축물 증가, 1970~88



② 주택구조

산간마을 주택의 기본형도 3칸구조다. 그러나 3칸기본구조와 함께 여러가지 부속 건물에 따라 A형과 B형 C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A형주택

A형주택은 3칸 기본형을 주건물로 하며 이에 부수하여 뒷간과 혀간 정도를 갖고 있는 단순한 주택 유형이다. <그림 5-23>은 3칸기본형 구조를 갖는 A형주택이다. 이 주택은 특이하게 아랫방과 옷방사이를 장지문으로 통하지 않고 마루를 돌아서 출입하도록 설계되어 아랫방과 옷방의 공간적 분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구조는 다른 3칸주택과 같다.

대양 2리에는 1950년대 말에 현재의 주택으로 건축하기 이전의 주택구조를 갖고 있는 주택이 한채 있다(이를 편의상 A'로 분류하였음). 이 주택은 간단히 방 두개만을 들이고 부엌과 마루가 없는 형태다. 따라서 부엌은 아랫방의 한 측면을 막아 가건축하여 비바람을 피하도록 했고 방문을 열면 바로 앞마당으로 연결된다. 앞마당 혀간은 나뭇간과 잣간으로 이용되며 화장실은 별도로 두지않고 잣간과 같이 쓴다. 1988년 현재 A형 주택은 22채, A'형 주택은 3채 있다.

나) B형주택

B형주택은 3칸구조의 안채를 짓고나서 추가의 필요에 의해 사랑채를 신축한 경우이다. 주택은 현 가장의 부친이 영농권을 현 가장에게 물려주면서 거처할 장소로 사랑채를 지은 경우이다. 따라서 안채의 안방은 가장부부가, 윗방은 자녀들이, 사랑채는 가장 부친이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부가 사망하여 사랑채는 수납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모두 출타하여 가장 부부만이 안채를 사용한다. 혀간은 우사와 나뭇간으로 이용된다. 앞마당에는 간이식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고추 등의 전조장으로 활용하며 우천시 작업공간으로도 사용한다.

현재 대양 2리에서는 B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16채 있다.

다) C형주택

C형주택은 3칸구조인 안채와 함께 사랑채를 동시에 설계하여 건축한 주택으로 주택의 기능상 공간분화가 뚜렷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안채는 주부와 자녀들 또는 노모의 생활공간이 되고 사랑채는 가장 또는 가장의 부의 생활공간이다. <그림 5-26>은 이 마을 중농의 주택이다. 도면에 나타난 안채는 3칸 겹집구조이며 사랑채는 이례적으로

주거용 방만 있다. 이외는 별도로 별채에 광, 나뭇간 등 수납 공간을 두며 혀간으로 찻간과 창고 등을 두고 있다. 뒷뜰에는 담배건조장을 두고 있다. 대양 2 리에는 D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양 2 리 주택은 전작지대의 농업유형에 따른 건축물인 담배건조장, 곶감건조장 등이 특히 많으며 산간지대의 연료인 화목을 쌓아두는 나뭇간과 우사등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대양 2 리의 주택구조는 생산과 수납공간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대양 2 리 주택은 A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40.7%로 높이 나타나고 B형과 C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각각 29.6%, 20.1%로서 도시근교나 평야지·중간지 사례마을 보다 A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비율이 높이 나타나 주거시설이 조악함을 알 수 있다.

대양 2 리 마을의 주택이 보유한 방은 평균 3.0 개로서 방당 평균 인구수는 1.7 명이다. 이것은 1975년도 방당 인구수 3.6 명에 비하면 매우 급격히 줄은 것이다.

대양 2 리는 난방과 취사연료에 있어서 화목이 절대적이다. 난방의 경우는 100.0% 화목을 사용하며 취사의 경우 여름철에는 화목이 78.8%, 전기가 11.2%를, 겨울철에는 화목이 96.2%, 전기가 3.8%를 차지한다.

표 5-5 유형별 주택수, 1988

구 분	명 고 동	두 문 동	유 곡	삼 방	계
A형	7	10	3	2	22(40.7)
A'	1	1	-	1	3(5.6)
B	12	2	1	1	16(29.6)
C	6	3	2	2	13(20.1)
계	26	16	6	6	54(100.0)

표 5-6 방수별 주택수, 1988

방 수	주 택 수	총 방 수(A)	현재 사용하는 방 수(B)	B / A
1	1	1	1	100.0
2	11	22	20	90.9
3	24	72	50	69.4
4	11	44	27	61.4
5	-	-	-	-
6	1	6	4	66.7
계	48	145(3.02)	102(2.13)	70.3

표 5 - 7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8

구 분	대 지 (A) (B/A%)	기 능 별 공 간 구 分				
		계 (B)	주 거	생 산	수 납	기 타
A' 형	165 <i>m</i> ² (12.2)	20.1 <i>m</i> ² (100.0)	8 <i>m</i> ² (39.8)	-	12.1 <i>m</i> ² (60.2)	-
	264 (20.7)	54.69 (100.0)	20.1 (36.8)	5.28 (9.7)	29.31 (53.5)	-
A	330 (21.9)	72.32 (100.0)	27.3 (37.7)	12.96 (17.9)	29.36 (40.6)	2.7 (3.8)
	537.6 (24.9)	132.01 (100.0)	41.04 (30.6)	42.48 (31.7)	33.94 (25.3)	16.55 (12.4)
계	1,296.6 (21.7)	281.12 (100.0)	96.44 (34.3)	60.72 (21.6)	104.71 (37.2)	19.25 (6.9)

③ 공동시설

대양 2 리의 공동시설로는 새마을회관과 새마을 창고가 있다. 새마을회관은 마을회의 장과 노인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6, 1977년도에 토비증산 시상금으로 받은 250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주민들의 노동력부담으로 1978년도에 15평규모로 건립하였다. 새마을회관 대지 69평은 정진석씨 소유였으나 가구당 2,000원씩 출하여 50,000원에 마을공동소유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은 울고지의 외진곳에 건립되었고 사후관리가 불량하여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울고지에 있는 새마을회관은 두문동이나 유곡, 삼방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1983년에는 정부로부터 시멘트블록 700여장을 보조받아 주민들의 노동력 부담으로 새마을창고를 새마을회관 대지 내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새마을창고도 회관용 의자, 풍물 등을 보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용도가 없다.

④ 도로체계

대양 2 리의 도로체계는 계곡 하천을 따라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산간지 특유의 나무 가지형이다. 이와같은 도로체계에서는 한 자연부락에서 중심지로의 접근도는 양호하나

그림 5-23 A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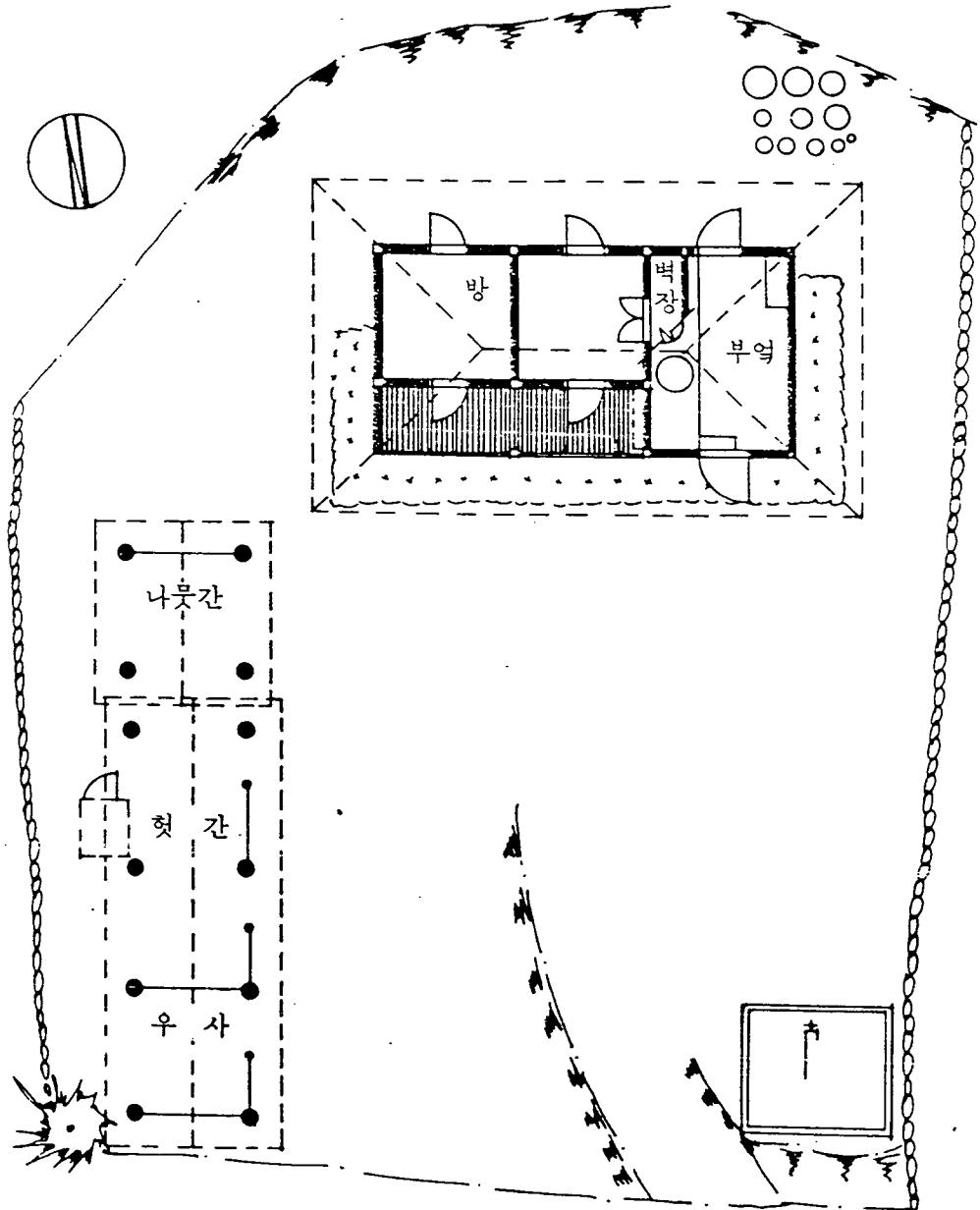


그림 5-24 A형 주택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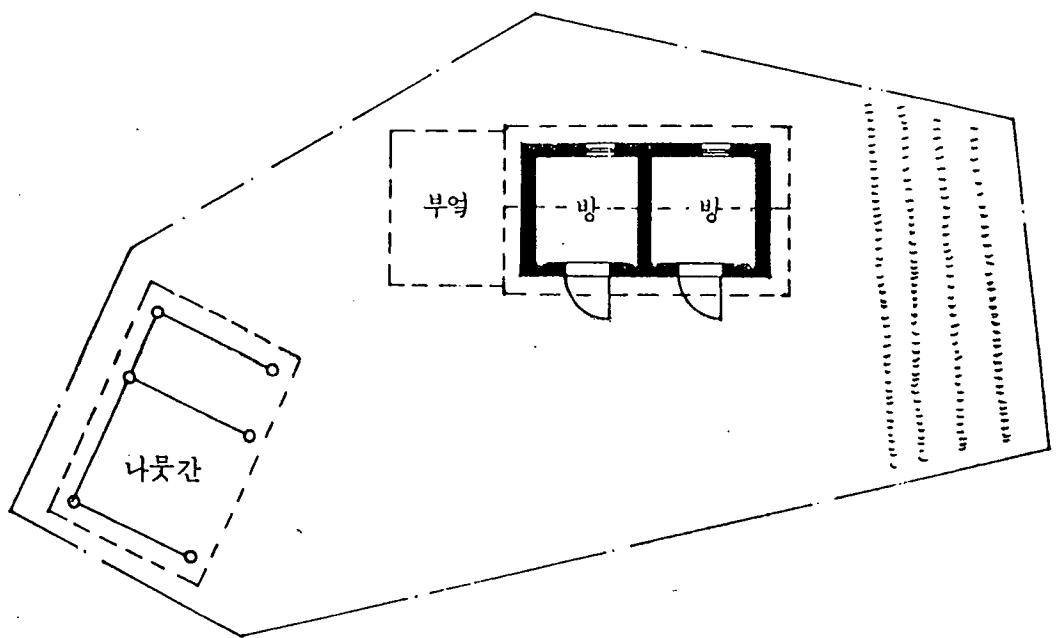


그림 5-25 B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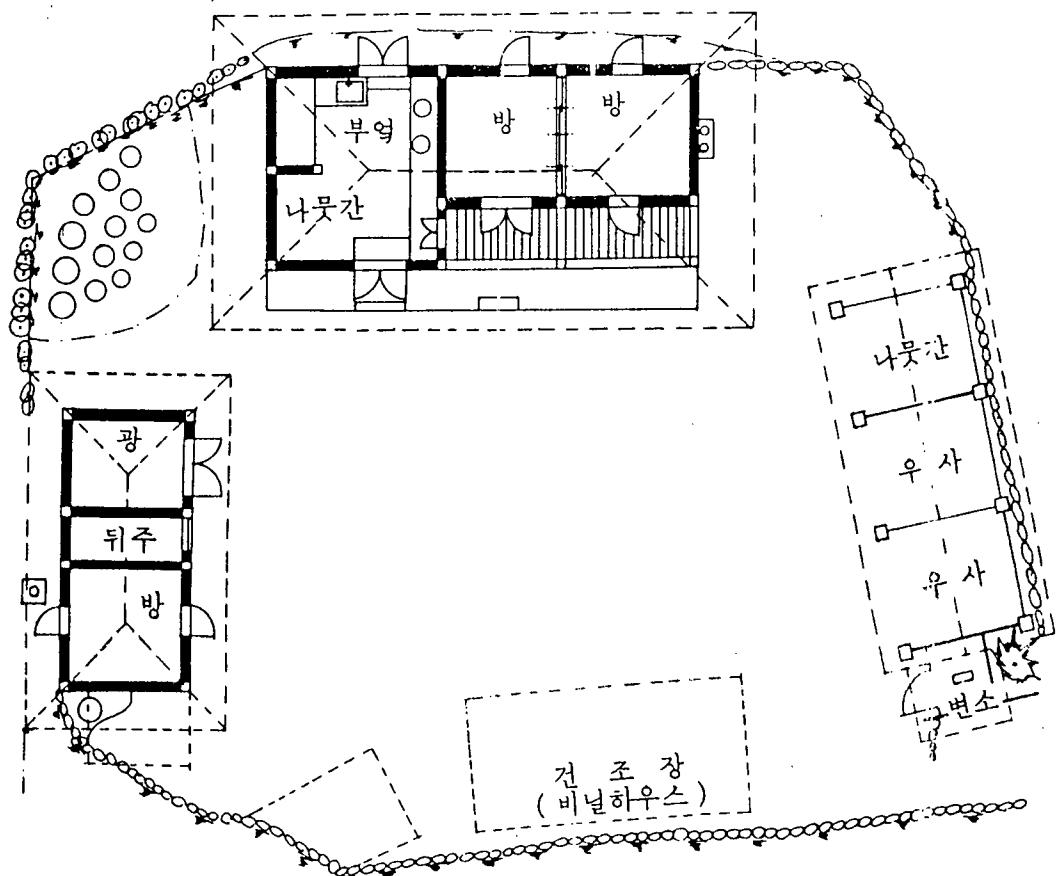


그림 5-26 C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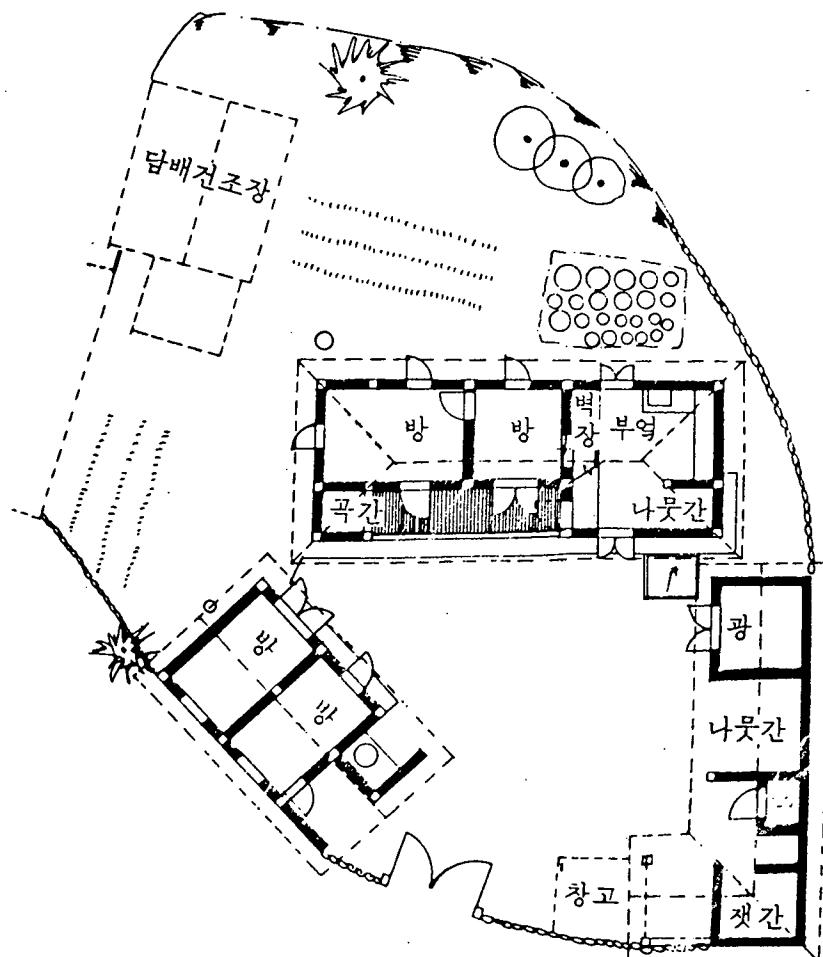


그림 5-27 새마을회관 및 창고,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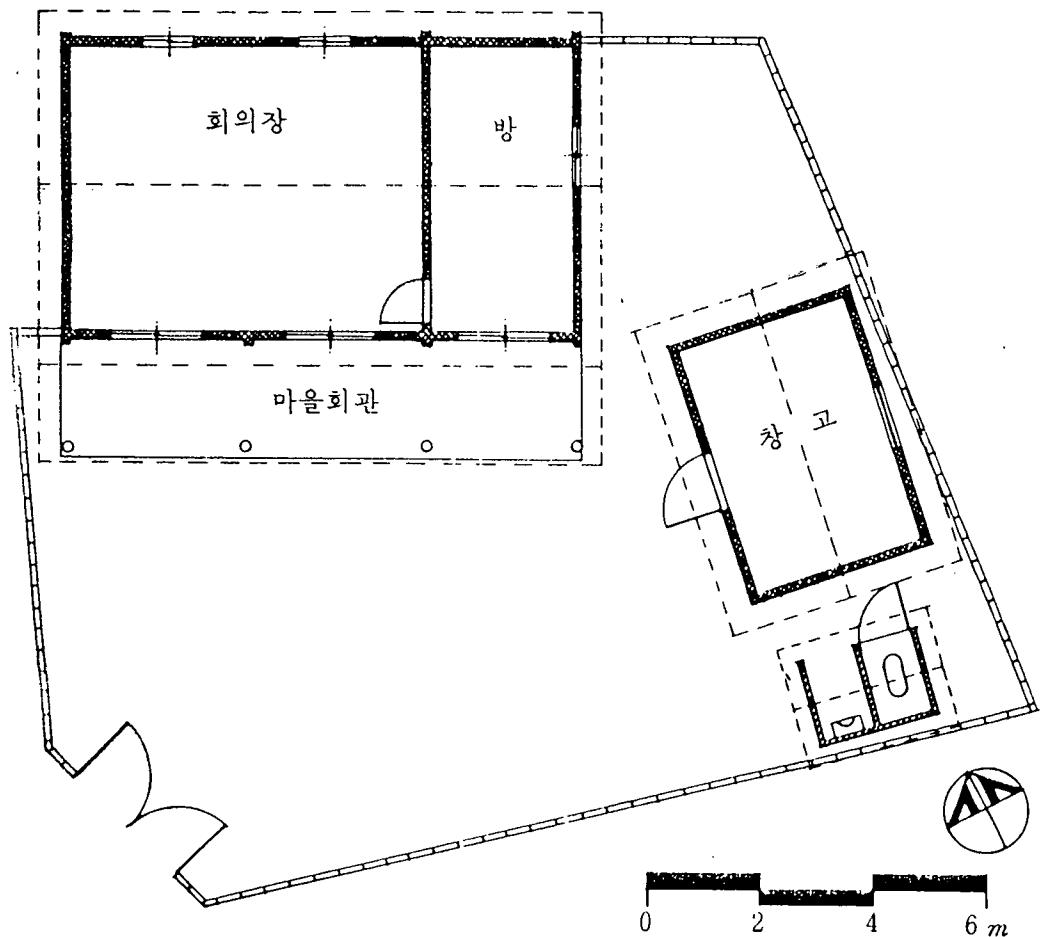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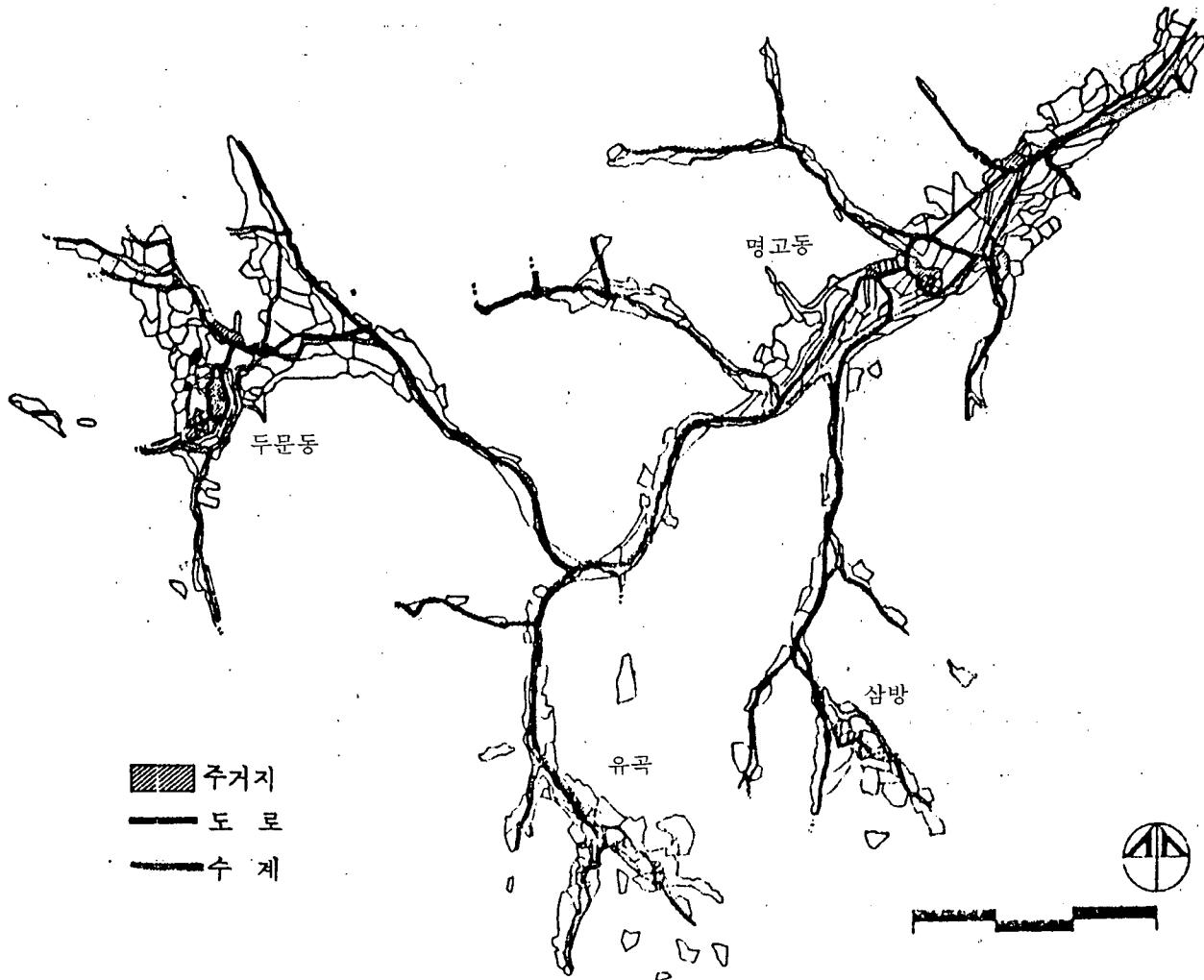


그림 5-28 도로 및 농로망, 1988

146



자연부락과 자연부락 사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체계는 매우 불량하다. <그림 5-28>에서 보는 바와같이 유곡과 삼방은 상호 직선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도로는 삼방에서 명고동을 거쳐 유곡 또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도로체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두 자연부락 주민들은 유곡과 삼방 사이에 매우 가파르고 높은 산봉우리 능선을 따라 교류하고 있다.

울고지에서 삼방과 유곡에 이르는 도로는 하천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이 도로의 폭은 2.5 m로서 경운기와 소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도로도 마을 입구 경사지에서부터는 1 m이하의 소로길로 바뀌어서 경운기 정도가 통행할 수 있을 뿐 소형트럭의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울고지-두문동 간의 마을도로는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도로 폭이 2.5 m 정도로 좁아서 소형트럭 정도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4년 새마을사업으로 이 도로를 4 m 폭으로 확장하여 1981년부터는 읍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름철 폭우시에는 이 도로가 하천 급류에 손상당하여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다.

개양골, 삼방, 유곡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1970년대 이전에는 1 m 폭의 소로였으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2.5 m의 폭으로 넓혀져 소형트럭 등 교통수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5 상하수도

대양 2리의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로서 1979년도에 정부보조금⁷⁾으로 설치하였다. 간이상수도 수원은 지하수이며 명고동, 두문동, 유곡, 삼방 등 각 자연부락별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송수한다.

명고동의 상수도원은 삼방계곡, 두문동과 유곡 및 삼방은 각각 마을 뒤 계곡의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아 자연수압식으로 각 가구에 송수한다. 1988년 현재 명고동은 25호, 두문동은 14호, 유곡은 4호, 삼방은 6호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

대양 2리는 각 가정별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돗가 또는 우물에서

7) 정부의 보조내역은 상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파이프와 밀가루 70포였다. 간이상수도 설치에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노력봉사활동이 있었다.

그림 5-29 명고동의 간이상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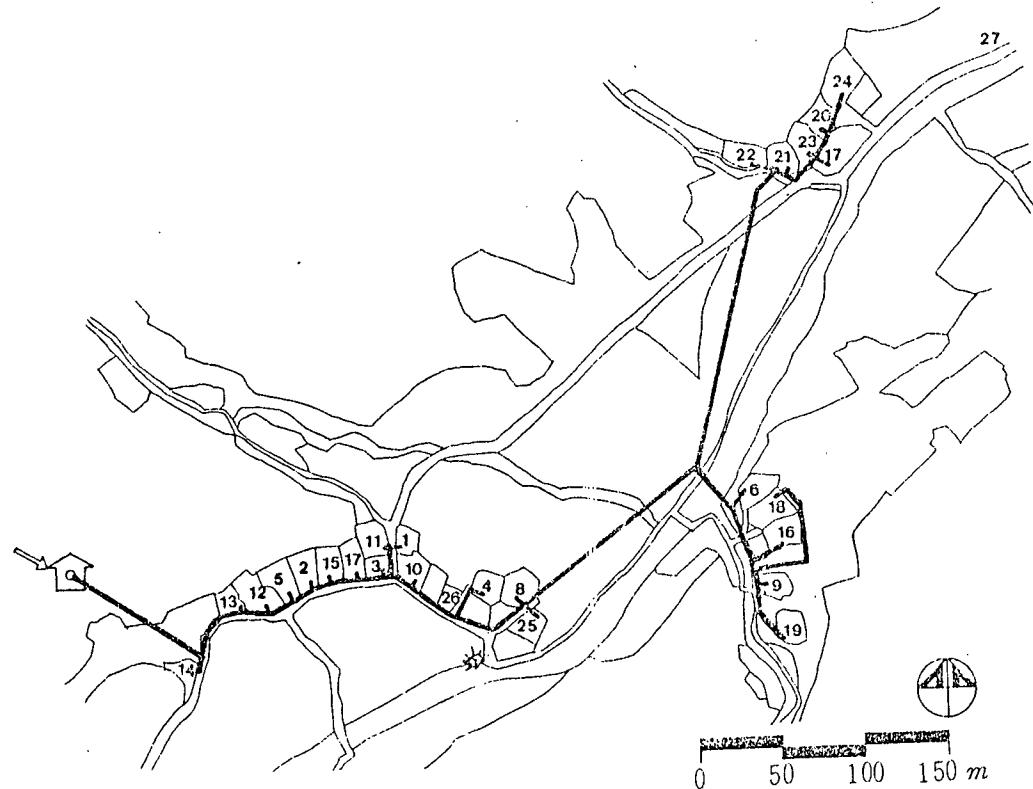


그림 5-30 명고동의 하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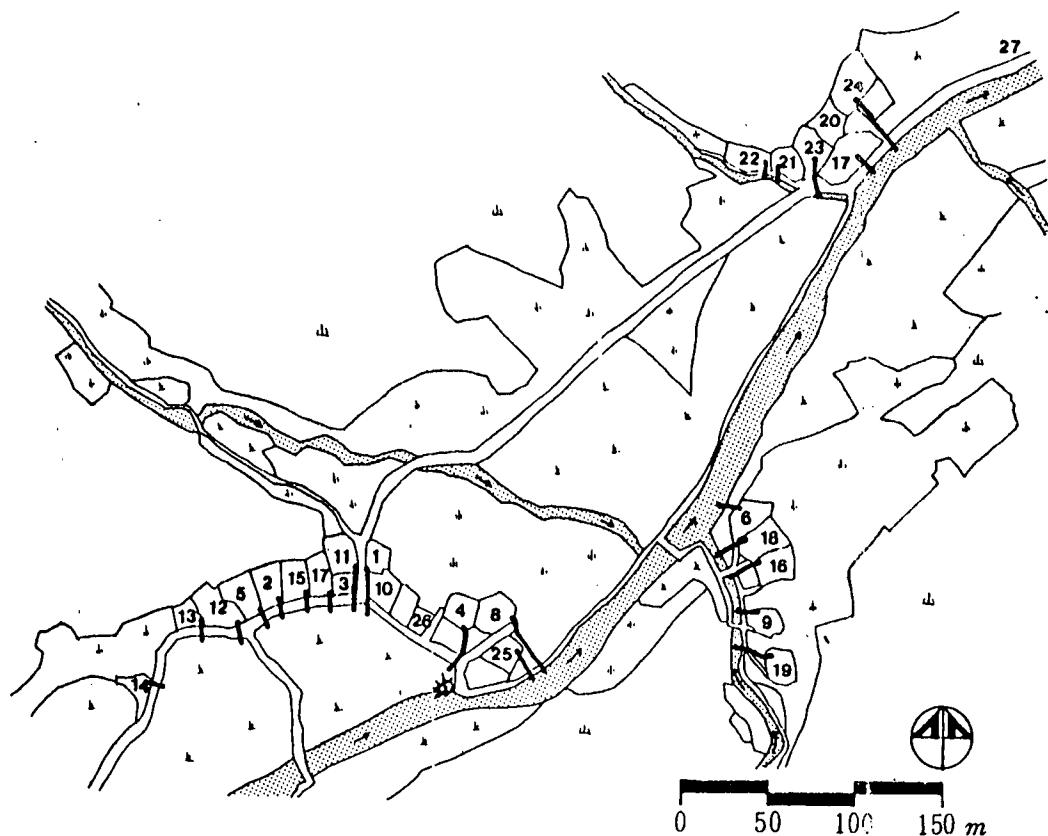


그림 5-31 두문동의 간이상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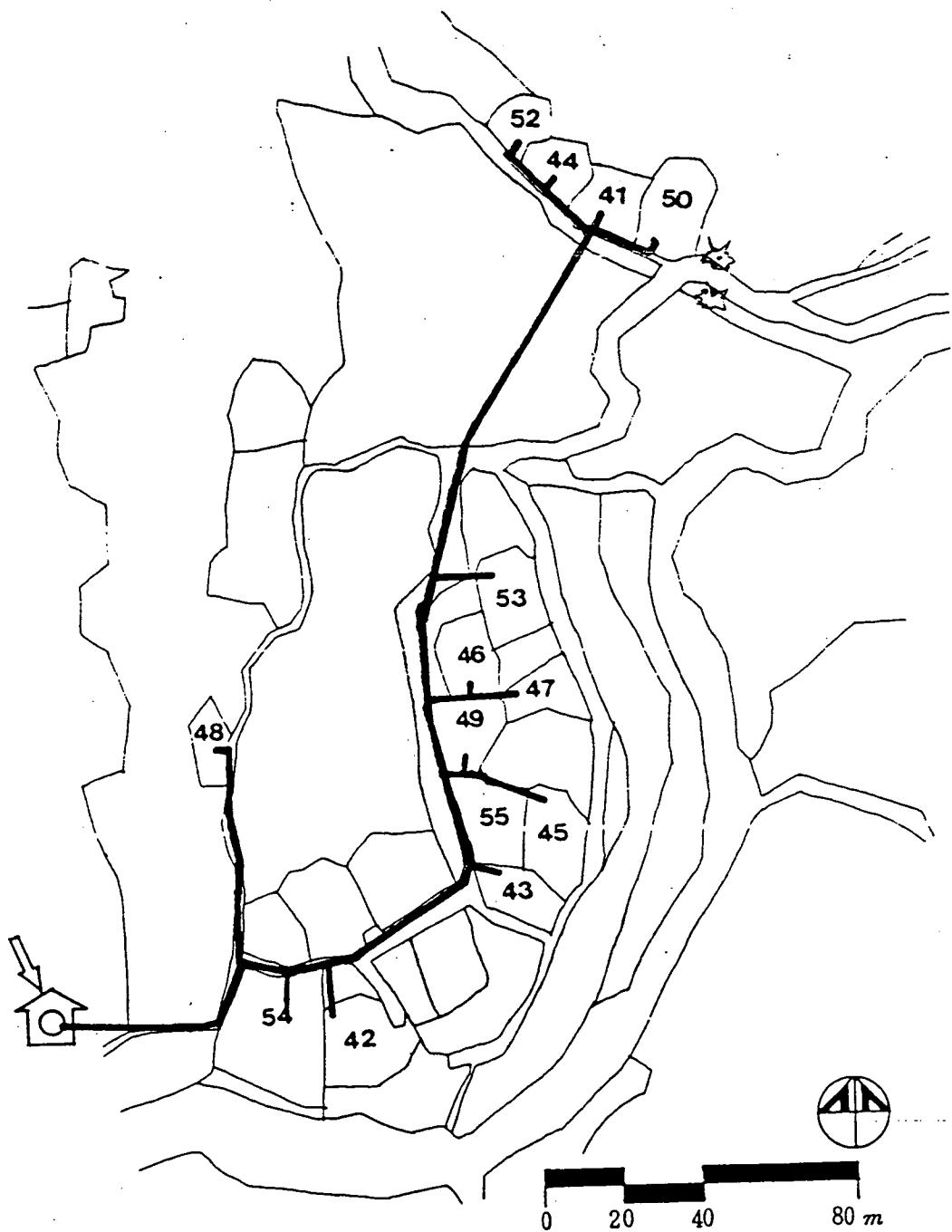


그림 5-32 두문동의 하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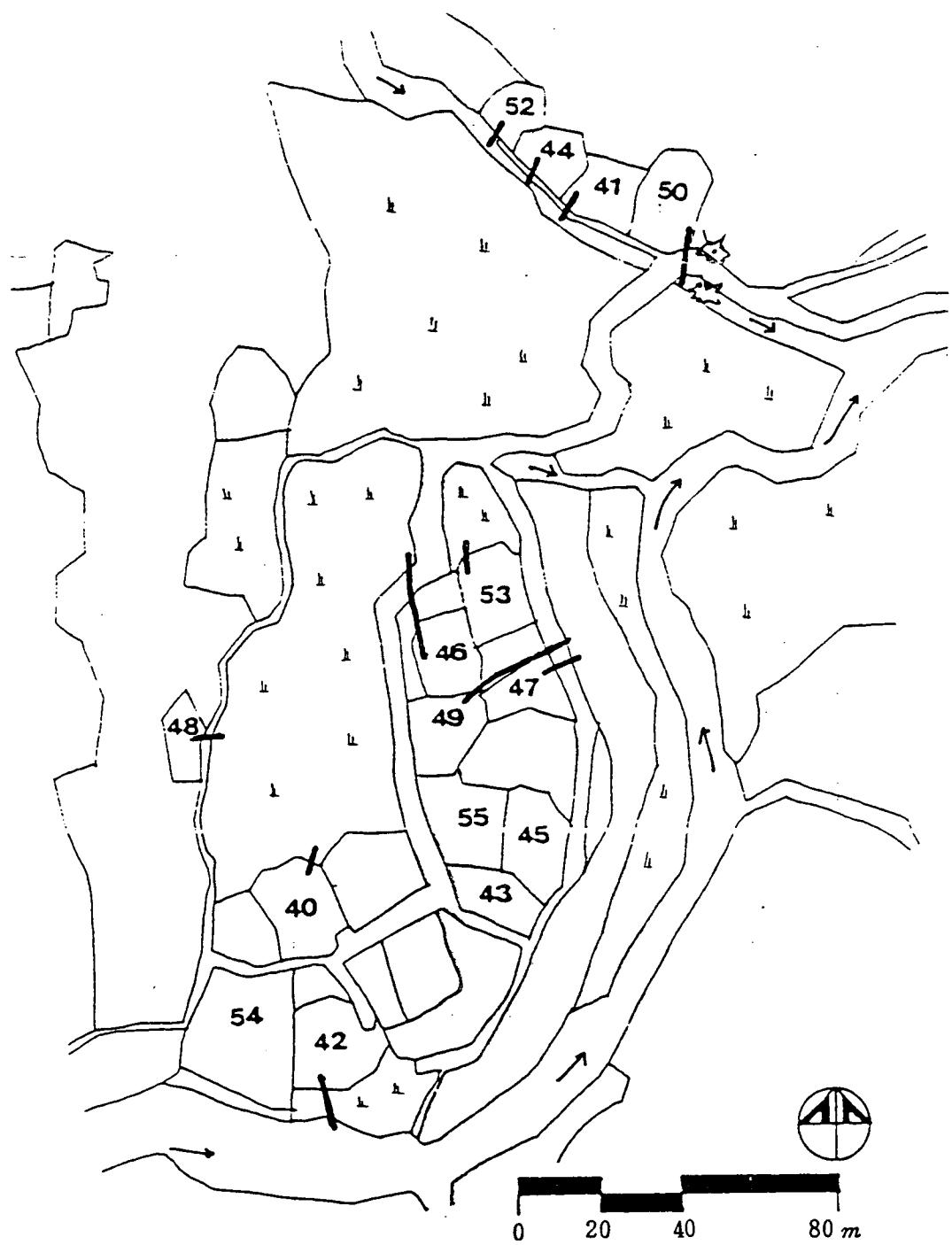


그림 5-33 유곡의 간이상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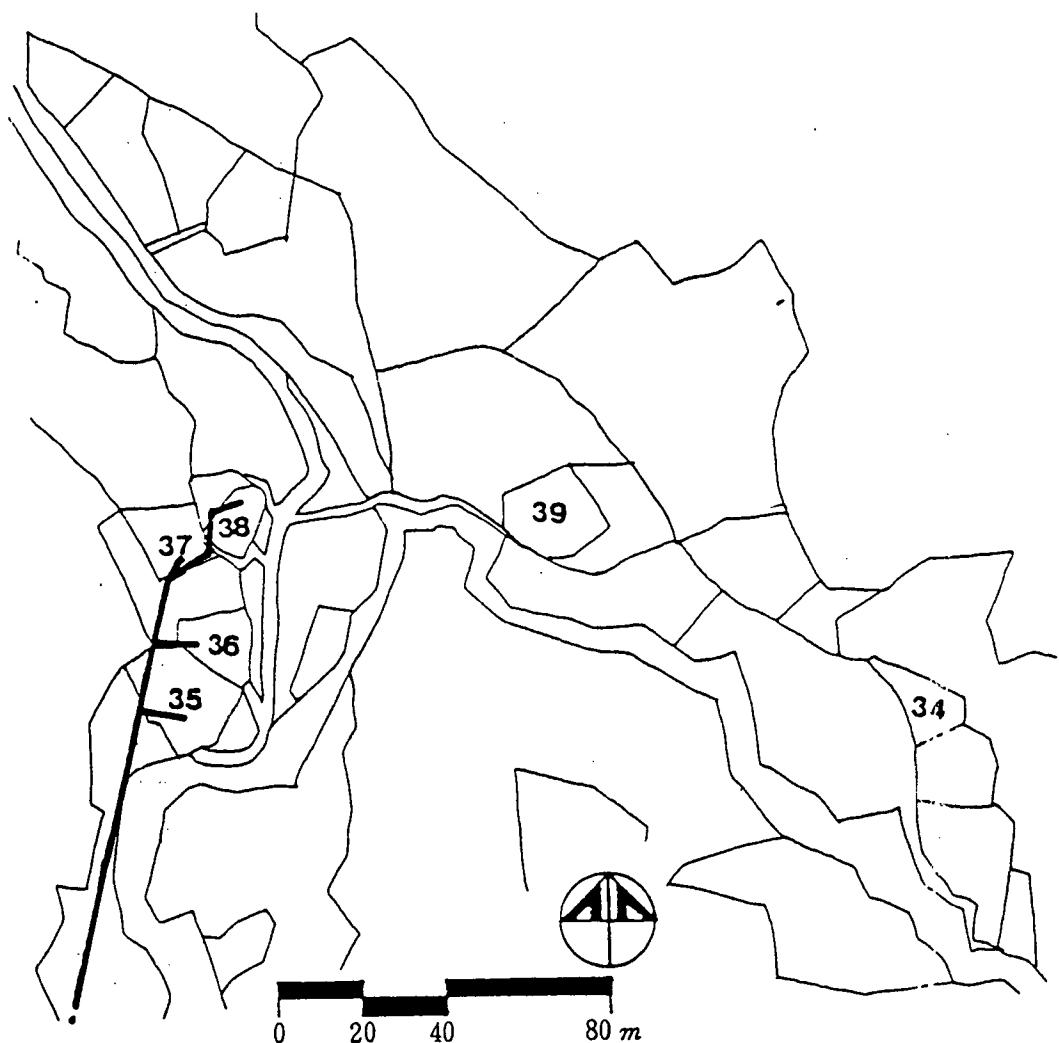


그림 5-34 유곡의 하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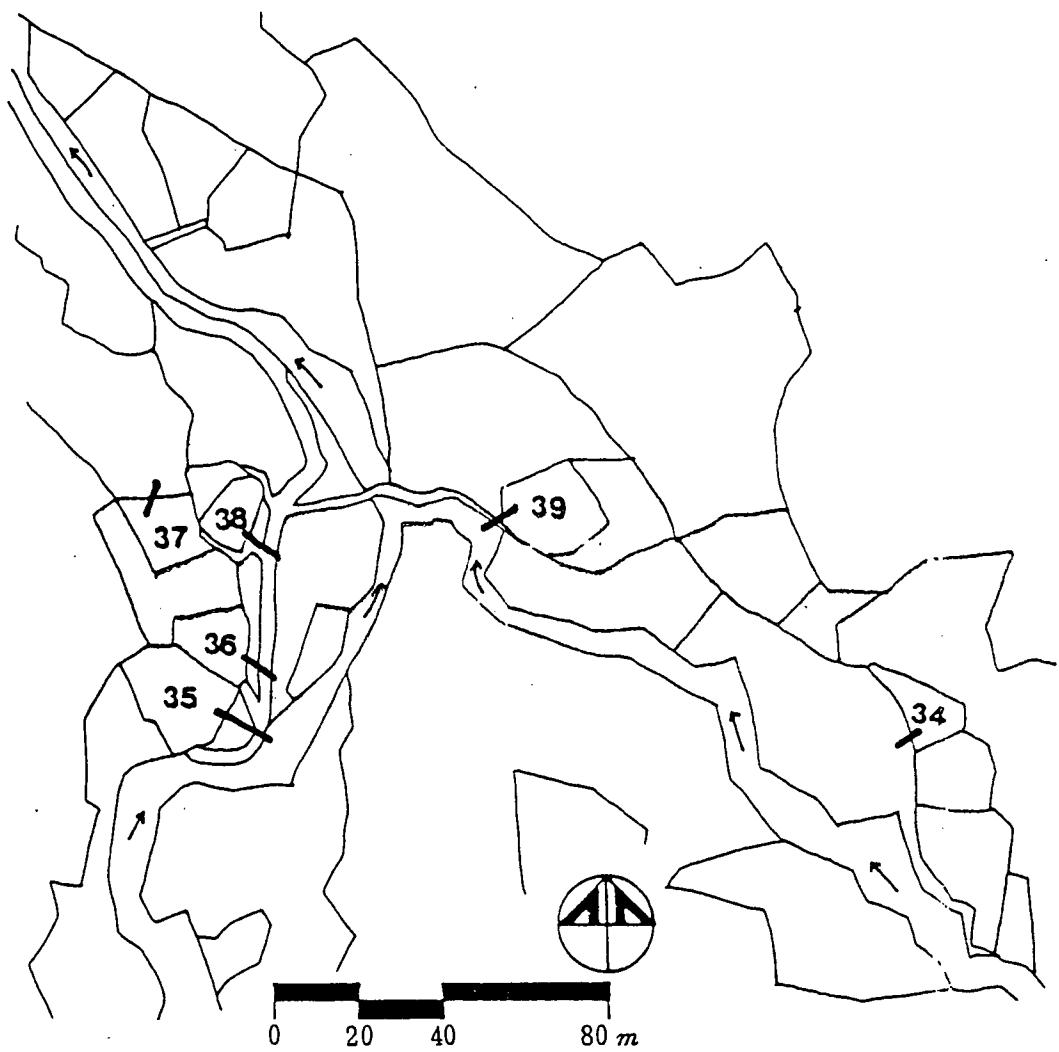


그림 5-35 삼방의 간이상수도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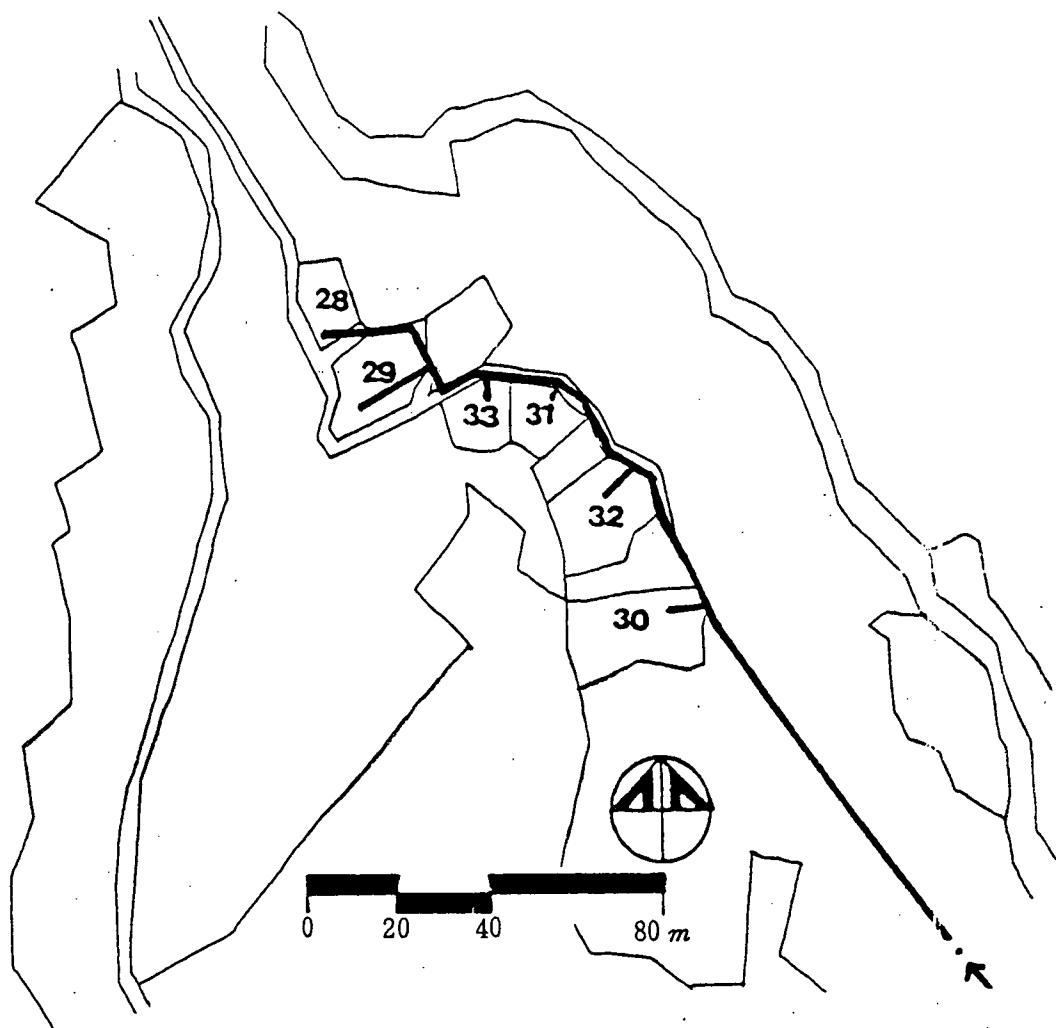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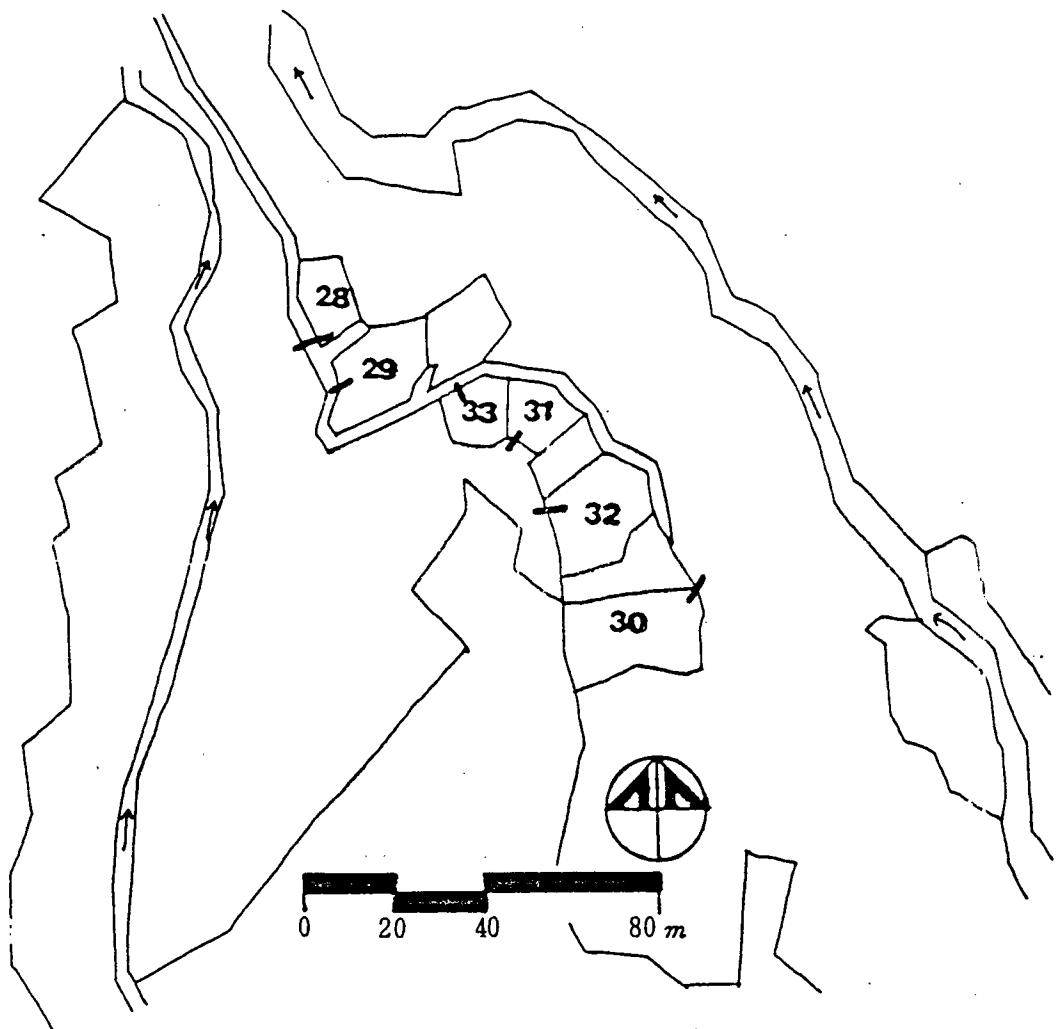


그림 5-36 삼방의 하수도망, 1988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가정에서 유도되는 하수망(대부분이 도량임)을 통하여 흐르는 동안 지하로 스며들거나 논이나 하천에 유입된다. 대양 2 리 주민들의 생활은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세제의 사용량이 극히 적고 생활하수량도 적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이 자연상태에서 분해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이다. 또한 주민들이 밀집되지 않고 분산거주 하므로 대부분의 생활하수는 자연의 자정력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에 농업의 상업화 영향으로 한우 등 가축의 사육두수가 늘어 가축분뇨가 분해 처리되기 전에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고추·여름채소 등의 상업화된 작물의 재배시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와 하천의 오염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나. 생산공간

대양 2 리의 농경지는 대부분 좁은 계곡의 하천유역을 따라서 양안에 위치하며, 그 경사도도 크다. 이와같은 특징에 따라서 대양 2 리의 농경지 특히 논은 바닥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지별 면적이 작게 세분화 된다. 대양 2 리 경지의 또다른 특징은 농경지가 세금이 부과되는 결세전과 산전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결전은 등기소에 등록된 과세대상 전답이지만 산전은 과거 일구어진 화전이거나 최근에 인삼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간된 밭이다. 대양 2 리에 산전이 많은 것은 옛부터 이 마을이 피난처로 알려져 많은 가구들이 유입하여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던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가구와 인구가 마을을 떠나 산전면적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이와같은 산전 뿐만아니라 결전까지도 휴경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명고동의 경지는 대부분이 200~250 m의 고도에 형성된 비교적 평탄지에 동서로 길게 분포한다. 그러나 울고지와 개양골의 계곡 및 저수지 안 계곡 등지에 분포된 경지는 해발 300 m이상의 고지대이며 경사가 심하다. 명고동은 대양 2 리에서 논면적이 가장 많은 자연부락이다.

두문동의 농경지는 대부분 명고동보다는 약간 높은 250~300 m 사이에 분포하며 경사도도 더 심하다. 두문동은 명고동과는 달리 논보다 밭면적이 더 많다. 특히 산전은 350~450 m 고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유곡과 삼방의 농경지는 대부분 밭으로서 300~500 m의 고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이 마을 농경지는 경사도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경작에 경운기 등을 거의 이용하지 못 한다.

대양 2 리의 농경지가 경사도가 크고 작은 펄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펄지에 이르는 농로가 만들어 지지 않은 점은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큰 제약요인들이 되고 있다.

명고동에는 경운기가 13 대 있으나 두문동이나 유곡·삼방에는 없다. 명고동을 중심으로 경운기에 의한 논밭의 경운·정지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운기 진입이 가능한 두문동과 유곡·삼방의 논밭을 경운하는 임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경운기는 농경목적과 함께 산간마을의 운송수단으로 중요한 몫을 한다.

그림 5-37 대양 2리의 농경지 분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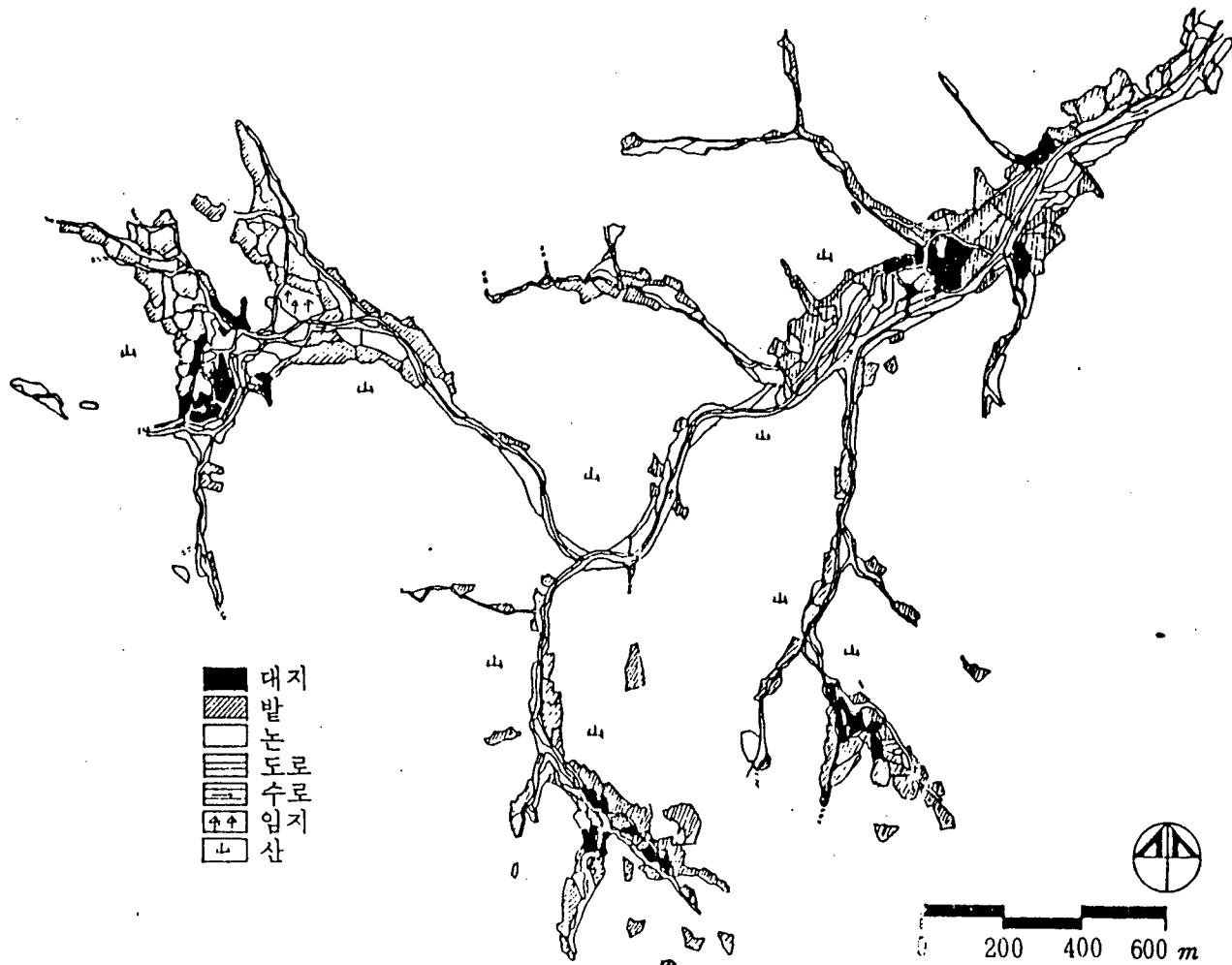


그림 5-38 명고동의 농경지 분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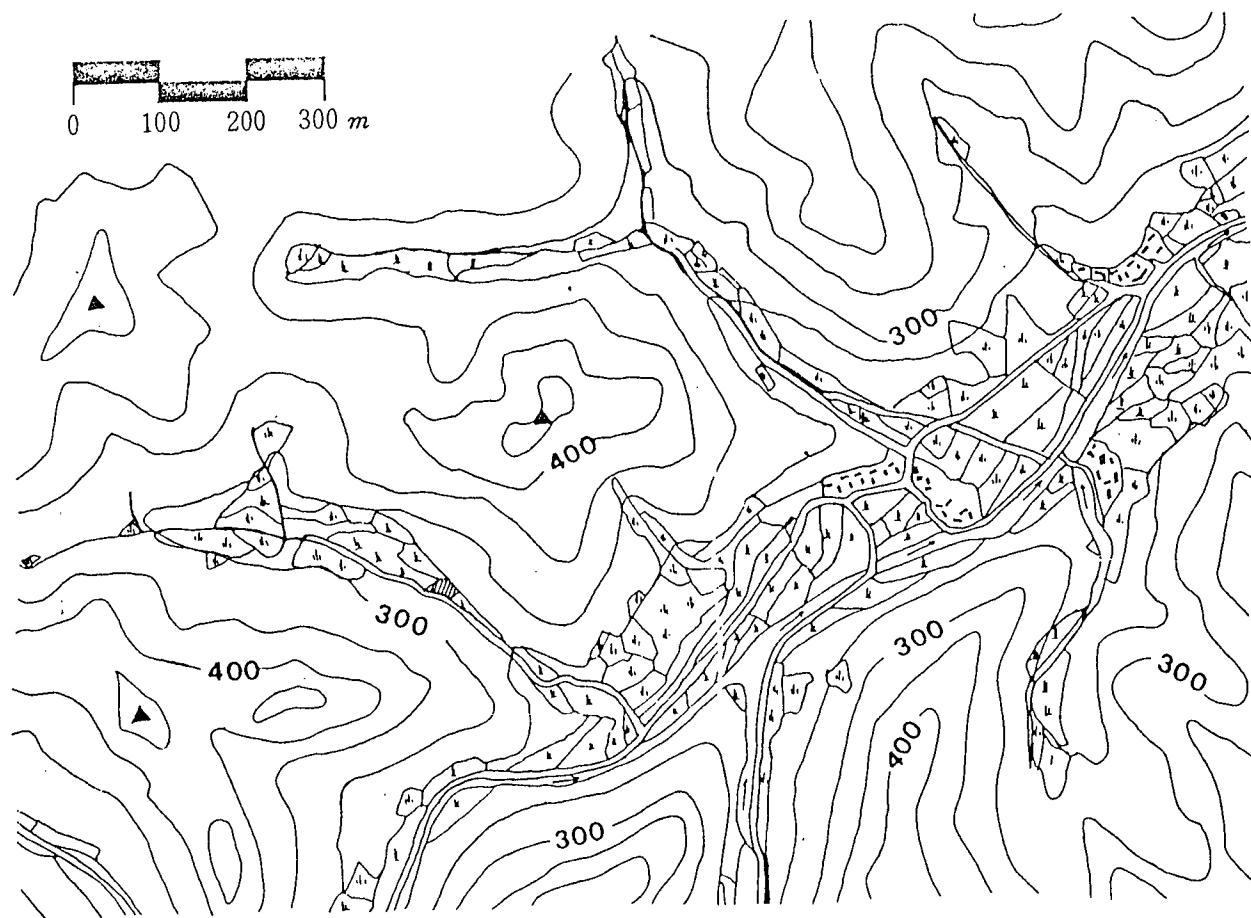


그림 5-39 두문동의 농경지 분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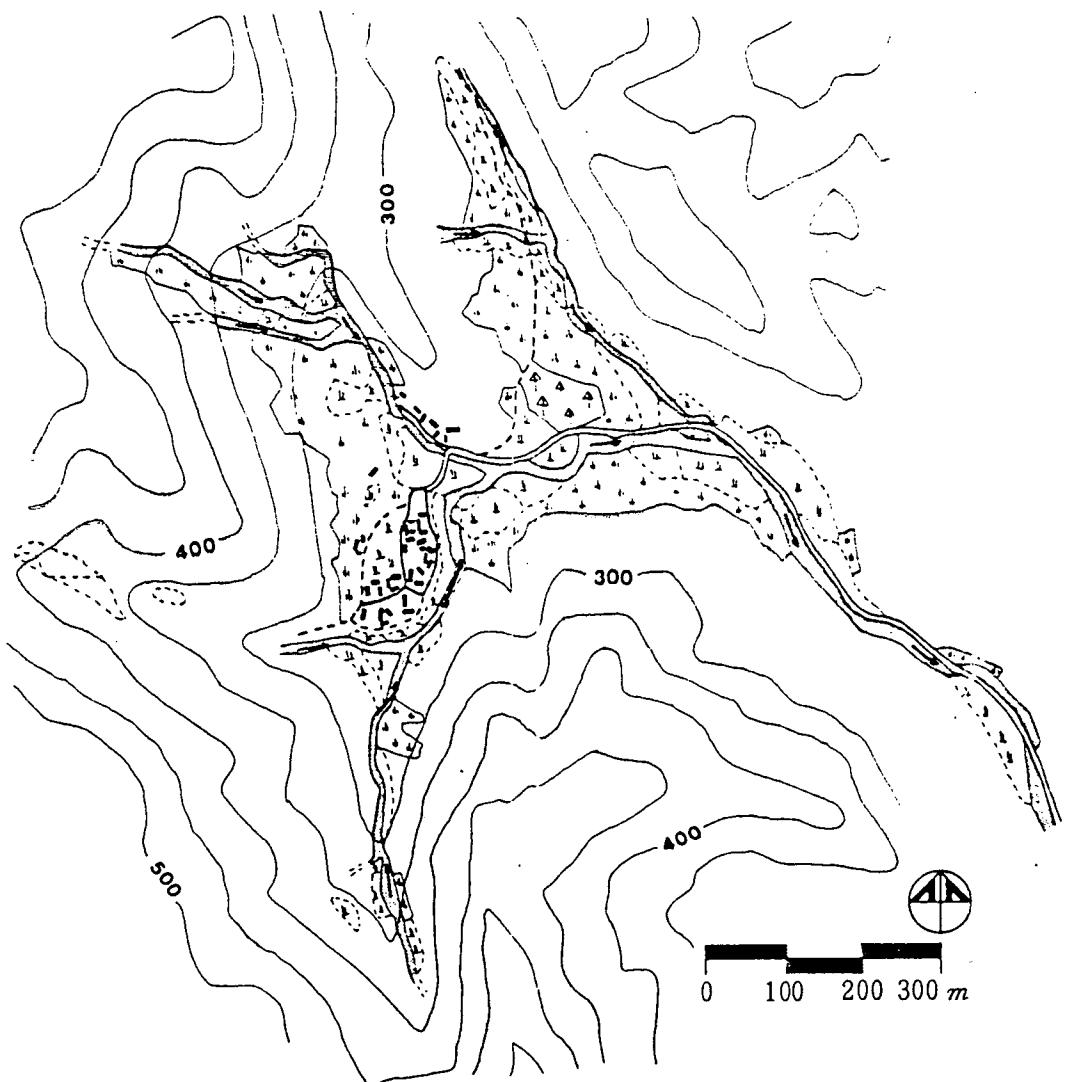


그림 5-40 유곡의 농경지 분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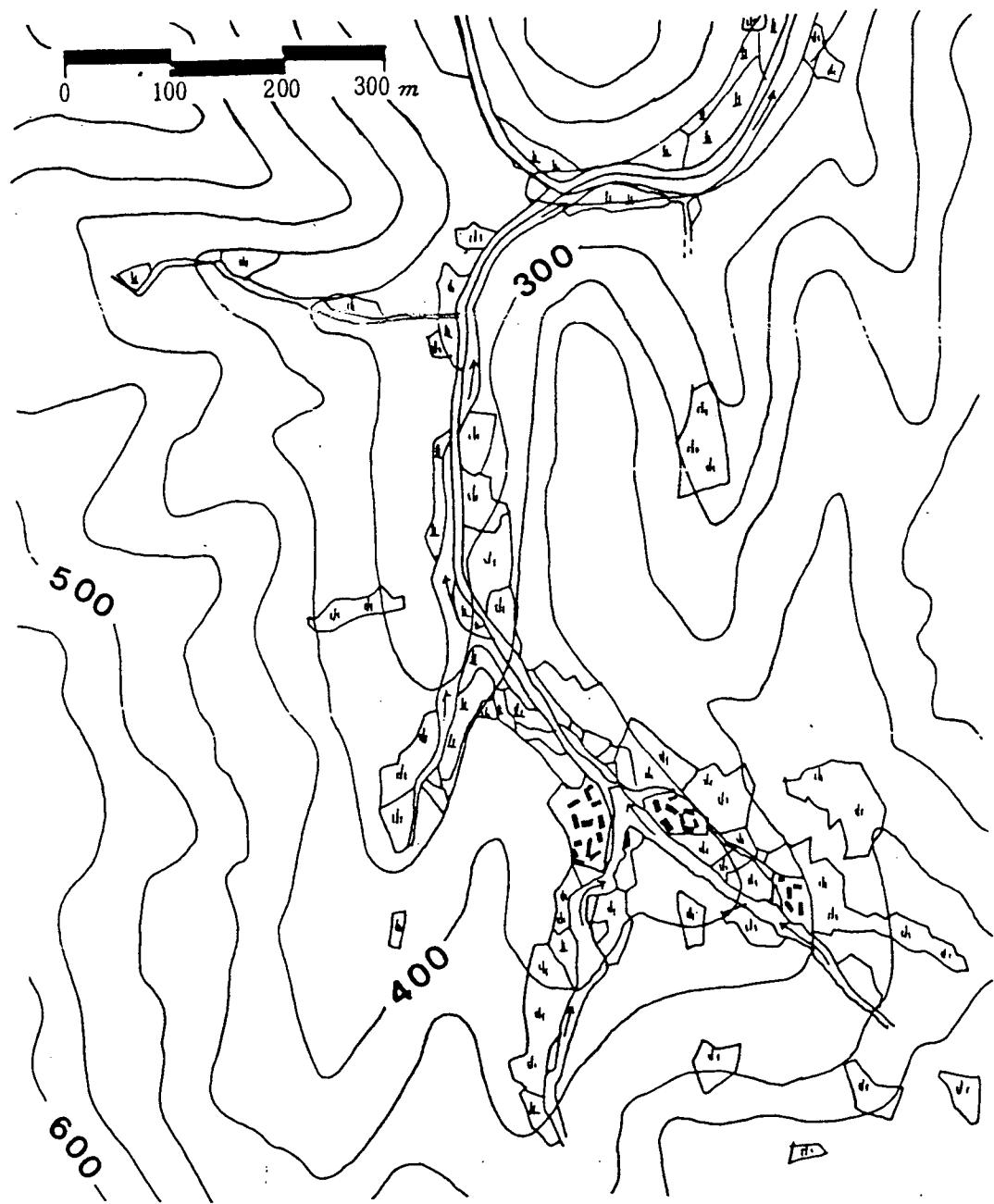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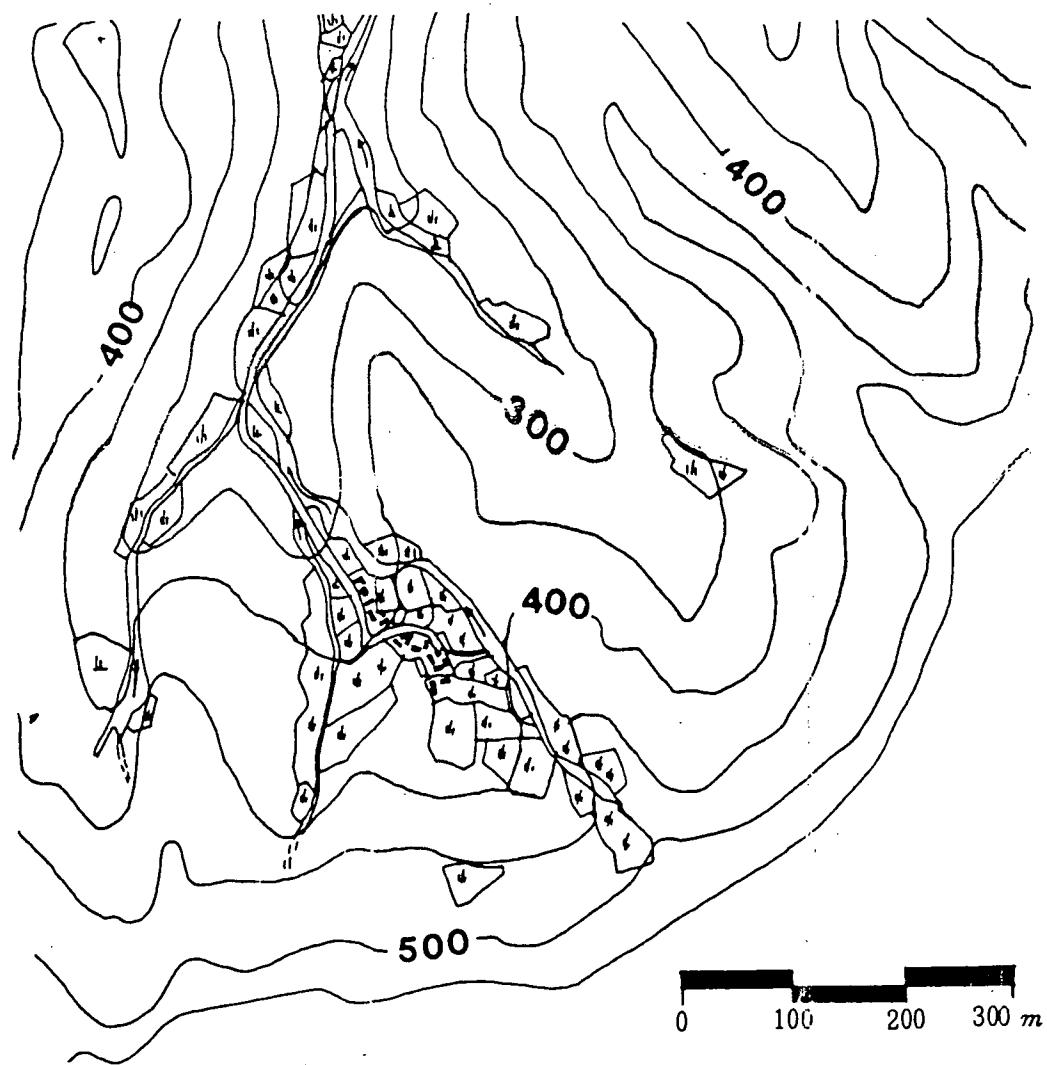


그림 5-41 삼방의 농경지 분포, 1988



다. 종교문화공간

대양 2 리는 산간 오지마을로서 오랫동안 토속적인 종교를 생활화 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명고동과 두문동에서 각각 별도로 모시는 산신제다. 산신의 현시적 대상은 호랑이다.

산신제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저녁에 지낸다.⁸⁾

산제는 명고동과 두문동이 각각 따로 지낸다. 명고동의 산신당은 울고지의 정남향산 정상 400 m 고지 부근에 수백년된 고사목과 소나무아래에 있으며 두문동은 마을 뒤계곡 중턱 나도밤나무 옆 소나무 숲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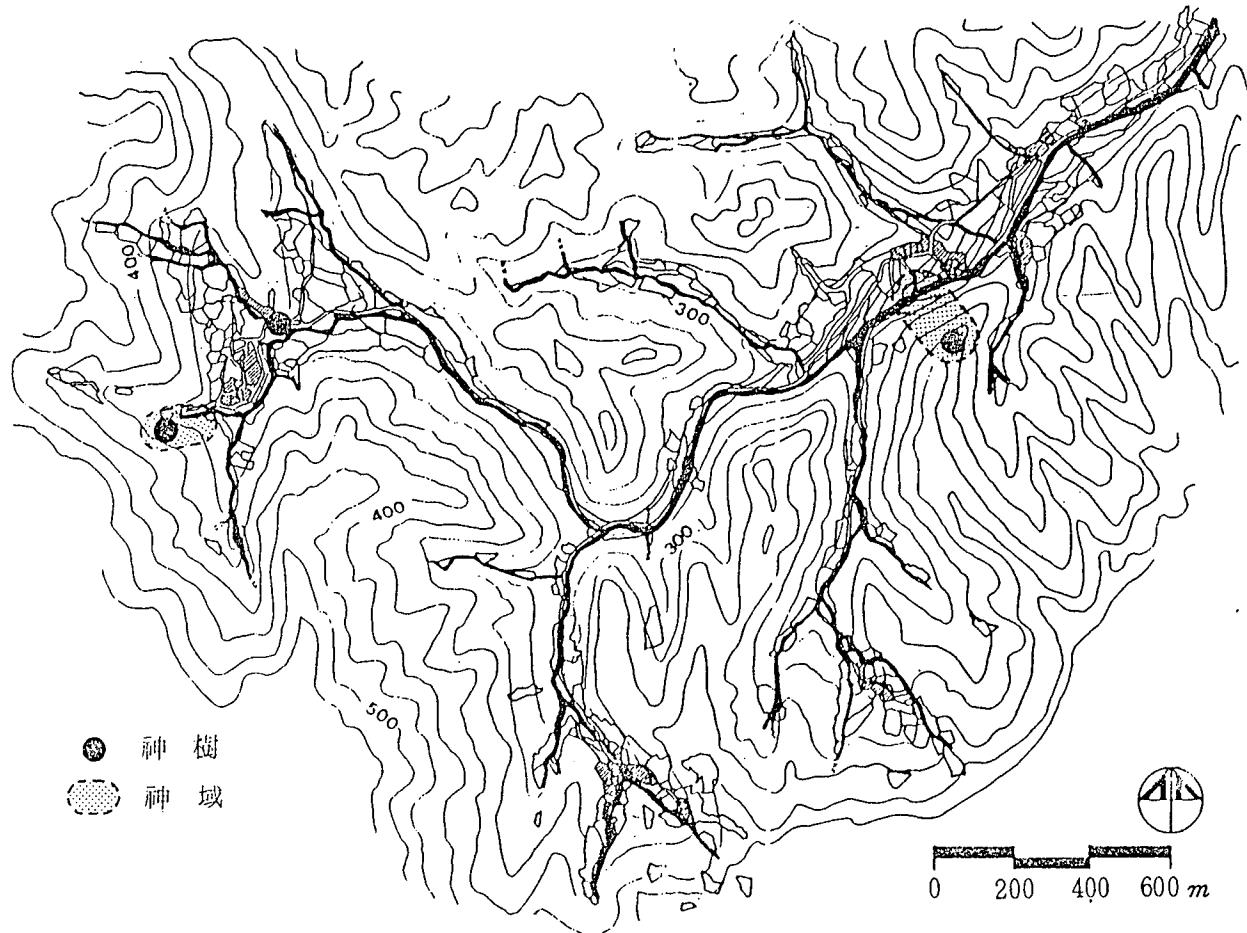
두문동에 있는 등구나무⁹⁾ 도 신앙의 대상으로 산제를 지낸다음 제주가 이 등구나무 아래에서 노제를 지낸다. 노제를 지내기 전에 제주는 깨끗한 황토를 떠다가 등구나무 아래에 뿌리고 등구나무에는 흰종이를 꿰 새끼로 금줄을 맨다. 이와는 달리 명고동의 등구나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두문동과 명고동의 하천변의 수십미터 간은 정월보름경부터 그믐까지 마을부녀자들이 용왕제를 지내는 또다른 신역이다. 즉 각 부녀자들은 특별한 날을 잡아 음식을 장만하여 해질무렵 이곳을 찾아가 각 가정의 소원을 비는 용왕제를 지낸다. 각 가정마다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는 정하여져 있다. 두문동은 신당아래 하천변의 수십미터 간이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이며 명고동은 등구나무가 서 있는 주변 수십미터 간이다.

8) 산제에 관한 종교적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는 제 4 장, 3절의 종교문화편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9) 두문동 주민들에게 이 나무는 영험한 신수로 통한다. 나라에 큰 난리가 날때면 이 나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운다고 하며 봄에 잎이 퍼지는 것으로 그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즉 잎이 고르게 잘나면 풍년,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거나 고르지 못할 때면 흉년으로 점친다.

그림 5-42 종교문화공간, 1988



부록

1. 가구별 주요변화, 1985~88

번호	가구성격				변동내용	경영주				가구원수				경지소유면적(평)				경작면적(평)							
	85		86			87		88		85		86		87		88		'85		'86		'87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85	'86	'87	'88	'85	'86	'87	'88
1	1	1	1	1		1	28	1	29	1	30	1	31			1	2	1,000	1,000	1,000	1,000	2,300	3,500	3,500	3,500
2	1	1	1	1		1	72	1	73	1	74	1	75			2	1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300
3	1	1	1	1		1	26	1	27	1	28	1	29			1	3	1,700	1,700	1,700	1,700	3,100	3,100	2,700	2,700
4	1	1	1	1		1	29	1	30	1	31	1	32			1	1	1,500	1,500	2,620	2,620	9,000	6,800	10,220	8,920
5	1	1	1	1		1	58	1	59	1	60	1	61			2	1	2,406	2,406	2,406	2,406	2,406	2,406	2,922	2,922
6	1	1	1	1		1	58	1	59	1	60	1	61			3	3	1,889	1,889	1,889	1,889	3,889	3,889	3,169	3,169
7	2	2	2	2		2	65	2	35	2	67	2	37			3	4	1,660	1,660	1,660	1,660	0	200	150	1,000
8	1	1	1	1		1	49	1	50	1	21	2	52			4	2	4,217	4,217	4,217	4,217	4,217	4,217	4,217	4,217
9	1	1	1	1		1	46	1	47	1	48	1	49			4	3	3,170	3,170	4,230	4,230	4,020	5,170	4,350	4,560
10	1	1	1	1		1	21	1	22	1	23	1	24			1	1	700	700	700	700	900	1,700	1,700	1,700
11	1	1	1	1		1	65	1	66	1	67	1	68			2	2	2,000	1,000	1,200	2,700	1,000	1,300	1,800	1,800
12	1	1	1	1		1	62	1	63	1	64	1	65			1	1	1,897	1,897	1,897	1,897	1,897	1,897	1,897	2,097
13	1	1	1	1		1	31	1	32	1	33	1	34			3	2	2,578	2,578	2,578	2,578	2,578	2,578	2,578	2,378
14	1	1	1	1		1	36	1	37	1	38	1	39			1	2	1,200	1,200	1,200	1,200	600	2,400	1,800	2,400
15	1	1	1	1		1	38	1	39	1	40	1	41			3	3	3,550	3,550	3,550	3,550	3,550	3,550	3,550	3,550
16	1	1	1	1		1	46	1	47	1	48	1	49			2	1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7	1	1	1	1		1	61	1	62	1	63	1	64			4	2	960	960	960	960	3,160	3,160	3,160	3,160
18	1	1	1	1		1	73	1	74	1	75	1	76			3	3	2,150	2,150	2,150	2,150	2,330	2,650	2,150	2,150
19	1	1	1	1		1	59	1	60	1	61	1	62			1	2	3,800	3,800	3,800	3,800	0	3,800	2,100	2,100
20	1	1	1	1		1	62	1	63	1	64	1	65			1	3	2,150	2,050	2,050	2,050	3,550	2,050	2,050	2,150
21	1	1	1	1		1	70	1	71	1	72	1	73			3	2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22	1	1	1	1		1	65	1	66	1	67	1	68			2	2	3,060	3,060	2,160	3,060	3,460	3,460	3,460	3,460
23	1	1	1	1		1	49	1	50	1	51	1	52			2	3	1,270	1,270	1,270	1,270	6,270	5,270	4,270	4,400
24	2	2	2	2		2	76	2	77	2	78	2	79			1	1	1,960	1,960	1,960	1,960	0	0	0	0
25	3	3	3	3		2	58	2	59	2	60	2	61			0	1	0	1	0	0	0	0	0	
26	1	3	* *	*		2	46	2	47							3	2	0	0	0	0	0	0	0	
27	6	6	6	6		2	76	2	77	2	78	2	79			0	1	0	1	0	1	0	0	0	
28	1	1	1	1		1	65	1	66	1	67	1	68			1	2	2,450	2,450	2,450	2,450	3,450	3,450	4,660	4,660
29	1	1	1	1		1	50	1	51	1	52	1	53			3	2	2,558	2,558	2,558	2,558	4,688	2,672	2,888	2,888
31	1	1	1	1		1	59	1	60	1	61	1	62			3	2	4,400	4,400	4,400	4,400	5,000	5,500	5,500	4,000
32	1	1	1	1		1	62	1	63	1	64	1	65			2	1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3,700	5,800
33	2	2	2	2		2	75	2	76	2	77	2	78			0	1	0	1	0	1	0	0	0	
34	1	1	1	1		1	49	1	50	1	51	1	52			1	2	4,200	4,200	4,200	4,200	0	0	0	0
35	1	1	1	1		1	52	1	53	1	54	1	55			2	1	5,140	3,340	3,340	3,340	4,810	3,010	3,590	3,590
36	1	1	1	1		1	48	1	49	1	50	1	51			2	2	1,200	800	800	800	2,900	2,900	2,900	2,900
37	1	1	1	1		1	63	1	64	1	65	1	66			2	1	3,479	3,482	3,482	3,482	3,972	3,972	3,972	3,972
38	1	1	1	1		1	48	1	49	1	50	1	51			3	2	5,420	6,020	6,020	6,020	5,420	6,433	6,433	4,933
39	1	1	1	1		1	45	1	46	1	47	1	48			2	1	2,900	2,900	2,900	2,900	2,700	4,100	2,900	2,900
40	1	1	1	1		1	45	1	46	1	47	1	48			1	1	3,245	3,245	3,245	3,245	3,245	3,245	3,445	3,445
41	1	1	1	1		1	41	1	42	1	43	1	44			1	1	1,350	950	950	950	4,150	4,150	3,850	3,850
42	1	1	1	1		1	60	1	61	1	62	1	63			1	2	770	770	770	770	1,170	1,370	1,433	1,433
43	1	1	* *	*		1	33	1	34							1	2	0	0	0	0	1,400	300	0	0
44	1	1	1	1		1	45	1	46	1	47	1	48			2	1	1,257	1,257	1,257	1,257	1,257	1,257	1,257	2,557
45	1	1	* *	*		1	36	1	37							4	3	1,600	2,900	2,900	2,900	4,900	4,900	4,900	4,900
46	1	1	1	1		1	47	1	48	1	49	1	50			1	3	1,463	1,463	1,463	1,463	2,897	2,897	2,897	2,897
47	1	1	1	2		1	74	1	75	1	76	1	77			1	1	400	400	400	400	1,300	1,600	0	0
48	1	1	1	1		1	58	1	59	1	60	1	61			2	1	2,310	2,310	2,310	2,310	2,310	2,310	2,310	2,710
50	1	1	1	1		1	44	1	45	1	46	1	47			2	1	2,600	2,600	2,600	2,600	5,700	5,500	5,300	5,300
51	1	* *	*	*		1	29									1	1	3,860	3,860	3,860	3,860	3,860	3,860	3,860	3,860
53	1	1	1	1		1	60	1	61	1	62	1	63			1	1	1	1	1	1	0	0	0	

가구성격: 1. 농가 2. 자주 3. 농업노동자가구 4. 비농업가구 6. 기타가구 경영주 성: 1. 남자 2. 여자

2. 사회집단규약

위친계 결목

1. 계일에 불참자는 1일에 궐전을 당시 임금으로 결정함.
2. 호상시에 불참자는 사고유무를 막론하고 대리인을 출입하기로 결정함.
3. 본면내에 이거자는 출역과 보자를 수급해 주기로 하고 본면외에 이거자는 보좌를 탄 자는 본전본곡을 제하고 여전여곡을 환납하기로 함. 우에 보좌를 안탄 자는 본전본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4. 보좌는 백미칠두로 함.
5. 단기 4290년 을 10월말일내에 상사자는 보좌를 소상시 지급하기로 결정함.
6. 계전을 1인당 백미일두와 금이백원으로 결정함. 금합계 백미 17두 현금 삼천사백원.
7. 계미는 이식할 시 당년유사2인과 연장순으로 2명을 합하여 4명이 유사가 되며 연체보관책임을 진다. 단, 4명의 유사는 계전에 보관증을 작성하고 당년책임을 진다.

단기 4289년 10월

계장 오 시 동

계 기

정유년 수봉기

백미 이자 팔두오승 전이자 일천칠백원정, 백미 이본합 일석오두오승. 전리본 오천백원야, 백미 삼십일두내 십두는 유치하고 여미는 이식키로 함.

백원기 십두 연체인 조중길

정진홍 오두 // 길병일

김대근 사두 // 이순근

정인영 이두 // 조중길

오시동 백사십원

유치미 사월 십일에 계원이 상담하여 이식 함.

오시동 삼두

정진홍 이두

이 재 이두

황기운 일두

위 친 계

- 1 조 본계는 위친계라 칭한다.
- 2 조 본계는 1971년 음 11월 15일자로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두문동에서 설립한다.
- 3 조 본계는 계원중에서 부모 또는 처부모의 담상시에만이 보좌와 노력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조 본계의 계일은 매년 10월 25일로 결정한다.
- 5 조 본계는 계장 1인과 유사 2인으로 구성한다.
- 6 조 본계의 계장은 곽영어씨로 선출하고 유사는 계원명단의 순차별로 결정한다.
- 7 조 본계는 매년 실시되는 계일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당의 2곱으로 궐전을 부담하되 병역의무와 법적의무로 불참자는 공제하며 사적으로 특별한 사유라고 전계원이 인정할 시는 참작할 수 있다.
- 8 조 담상시에 불참자는 매년의 일당 2곱으로 궐전을 결정한다.
- 9 조 본계는 계원중 부모담상시에는 백미 소두 10두와 노력봉사의 3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0 조 본계의 담상시 대양리외에서 노력을 요할 시는 차비일절을 담상자가 부담하되 이에 응치 않을 시는 노력봉사는 무하고 보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1 조 계원중 매년 실시되는 계일에 년 2회이상 불참자는 병·법을 제외하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탈계기로 하되 계에 탈계한 자에게는 가입비 백미 5승을 계에서 지불하기로 함.
- 12 조 본계원중 보자미와 노력봉사의 혜택을 받고 탈계시는 보자혜택 백미 소 10두를 본계에 반납기로 하되 이에 응치 않을 시는 전계원이 동원되어 책임을 가한다.
- 13 조 계의 가입비는 쌀 소 1두와 현금 1인당 백원씩 거출 곽영어와 박경서에게 보관하였음.
- 14 조 계원중 즉일내로 담상시는 보자미를 거출하되 1973년까지는 가수림하기로 함.
- 15 조 참석자는 계일 정오로 하고 정오가 넘어서 참석자는 궐자로 한다.
- 16 조 명의변경시 계원일동이 필요함을 인정할 때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계원중 특별한 사유로 불참시에는 계일 5일전에 연락하는 계원에게는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

결 혼 계

1. 매년 음 11월 10일을 계날로 정한다.
2. 보좌는 3년후인 1980년부터 태워주기로 한다.
3. 한해에 몇명이 결혼을 하더라도 가스름을 해서 태워준다.
4. 보좌

백미 상 1홉

국수 1등품 1관

콩 대두 1되씩

5. 보좌탄 자가 초청할 때에는 계원일동이 참석하여 일을 봄준다.
6. 계원중에서 이사하거나 탈퇴할 때는 본회비 2,000원만을 타주며, 타먹은 자가 탈퇴할 때는 현재시가로 타먹은 일절을 본계가 회수한다.
7. 매년 계일에 나오지 않는 자에 한해서는

오전궐은 11시 (반나절) 까지로

오후궐 1시 (하루) 까지로 하고 그때 부인 인건비로 결정함.

1977년 11월

계해생 친목형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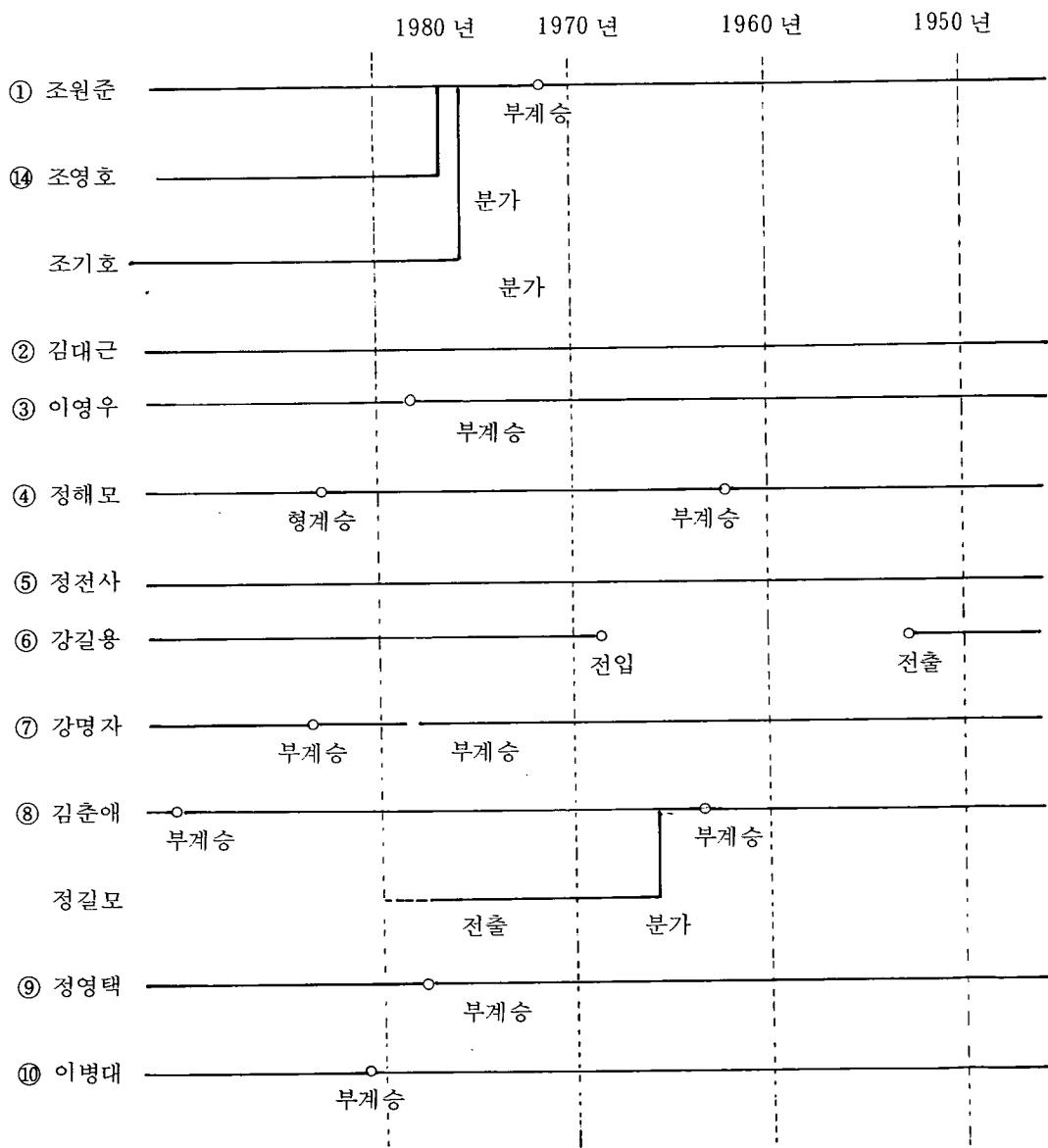
1. 계원은 1인당 금 일천원을 계금으로 납부함.
1. 계일은 매년 음력 11월 27일로 함.
1. 계 불참자는 일당을 계에 지불함.
1. 이거시 본계금을 지불하되, 계원이 본계를 친목과 형제 일선으로 동행하는 시 본계금은 지불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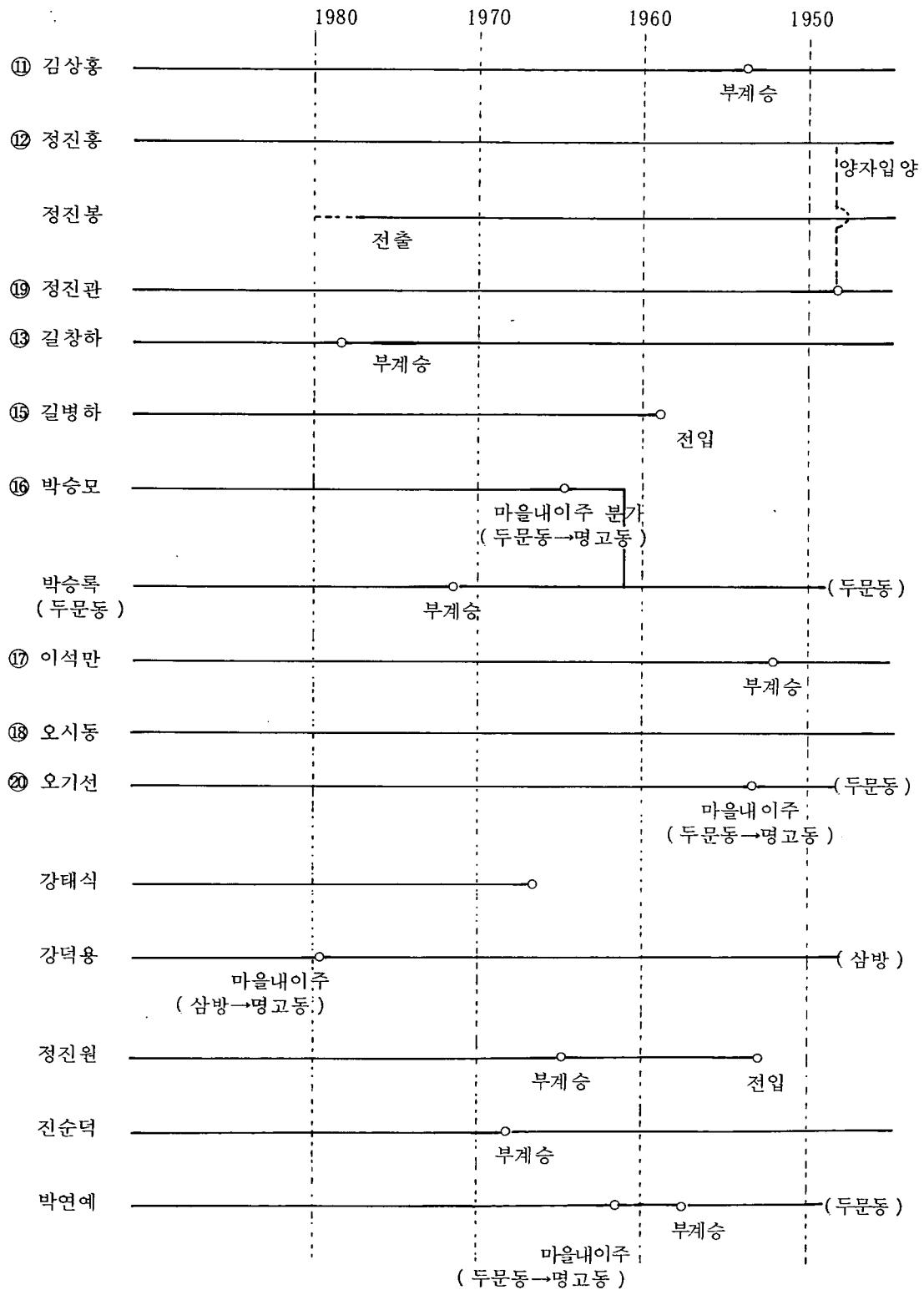
결 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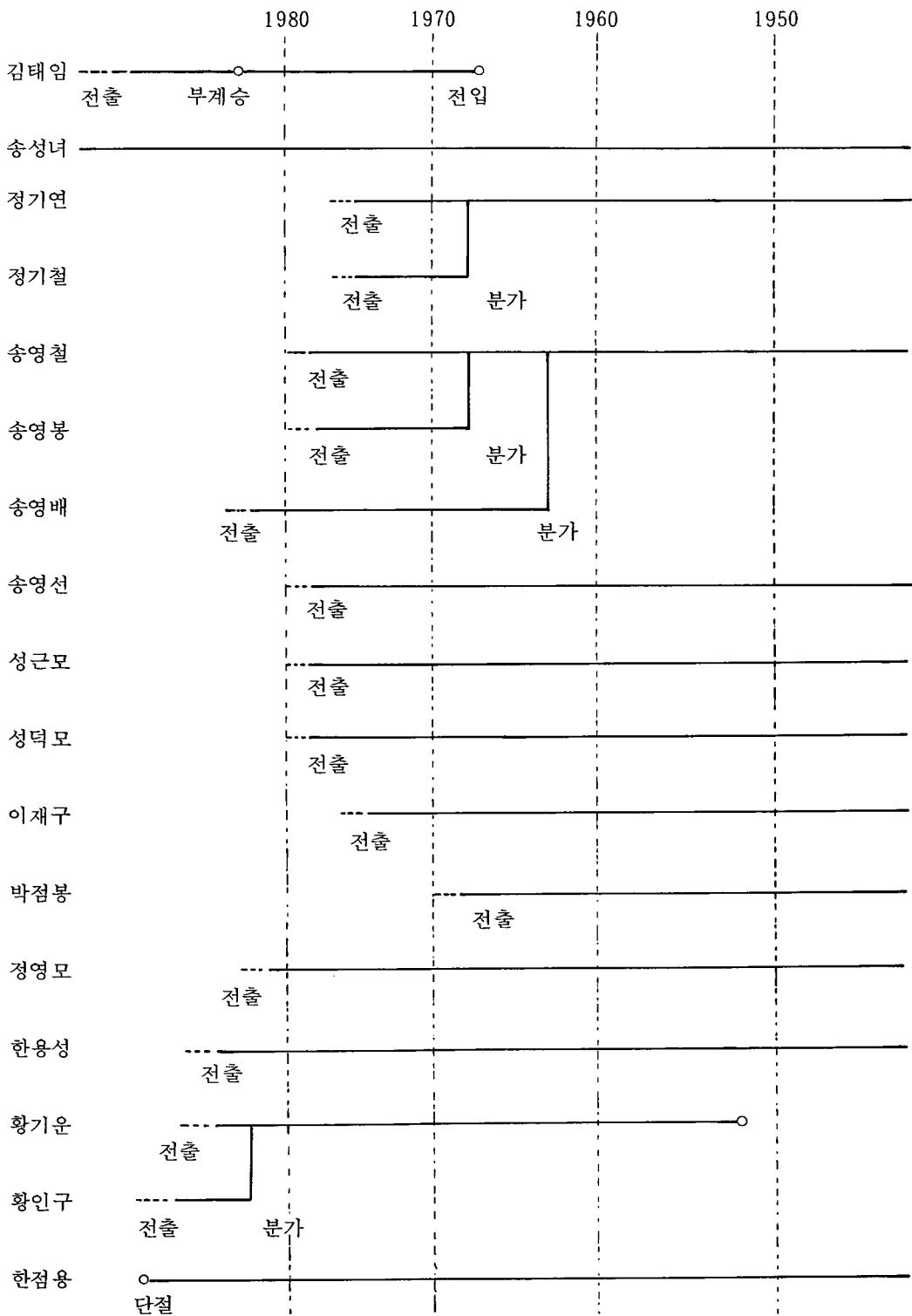
1. 보좌는 1인만 지급
1. 본인이 요구할 시 애경사 막론하고 지급
1. 보좌는 술 대두 오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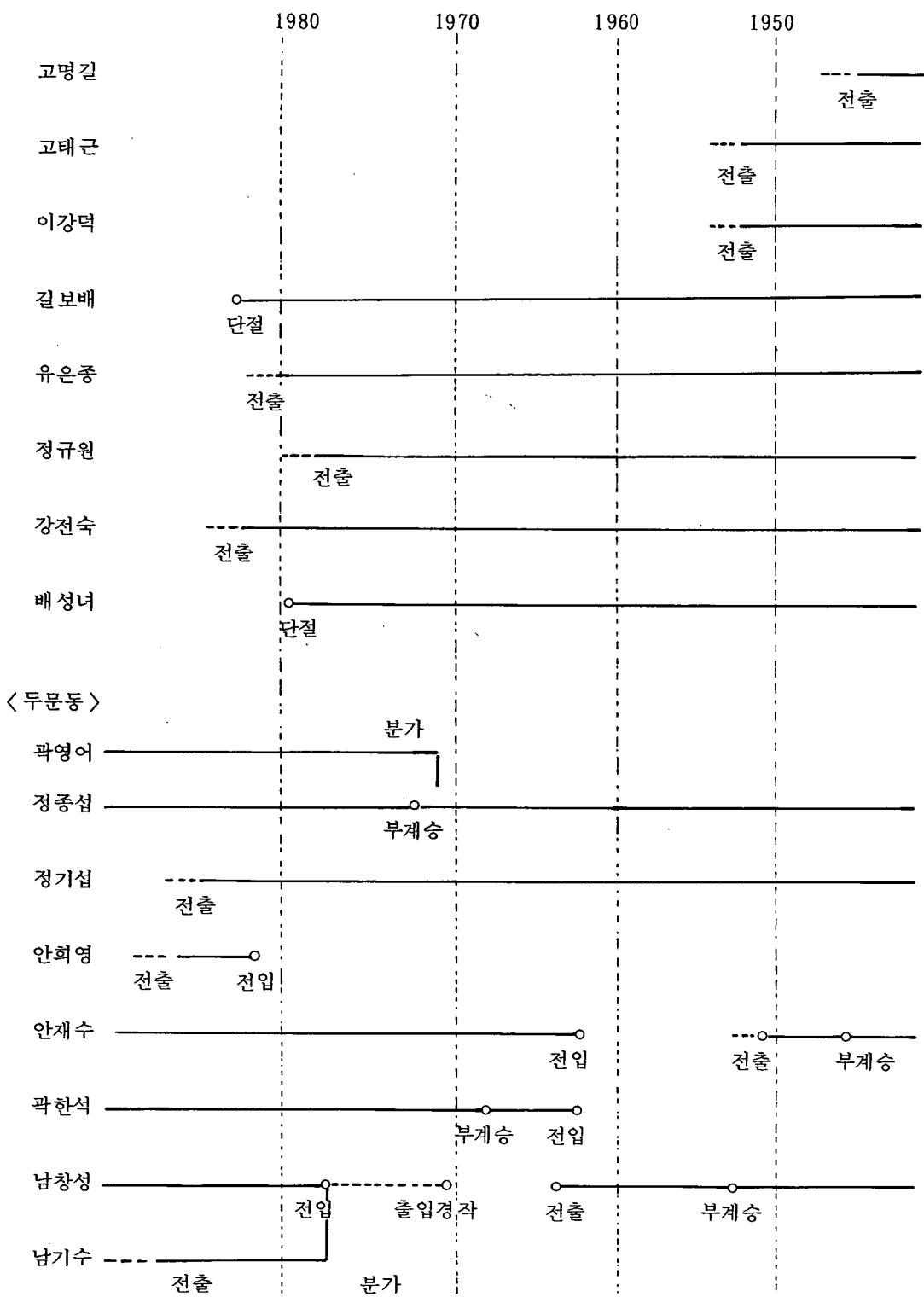
3. 가구이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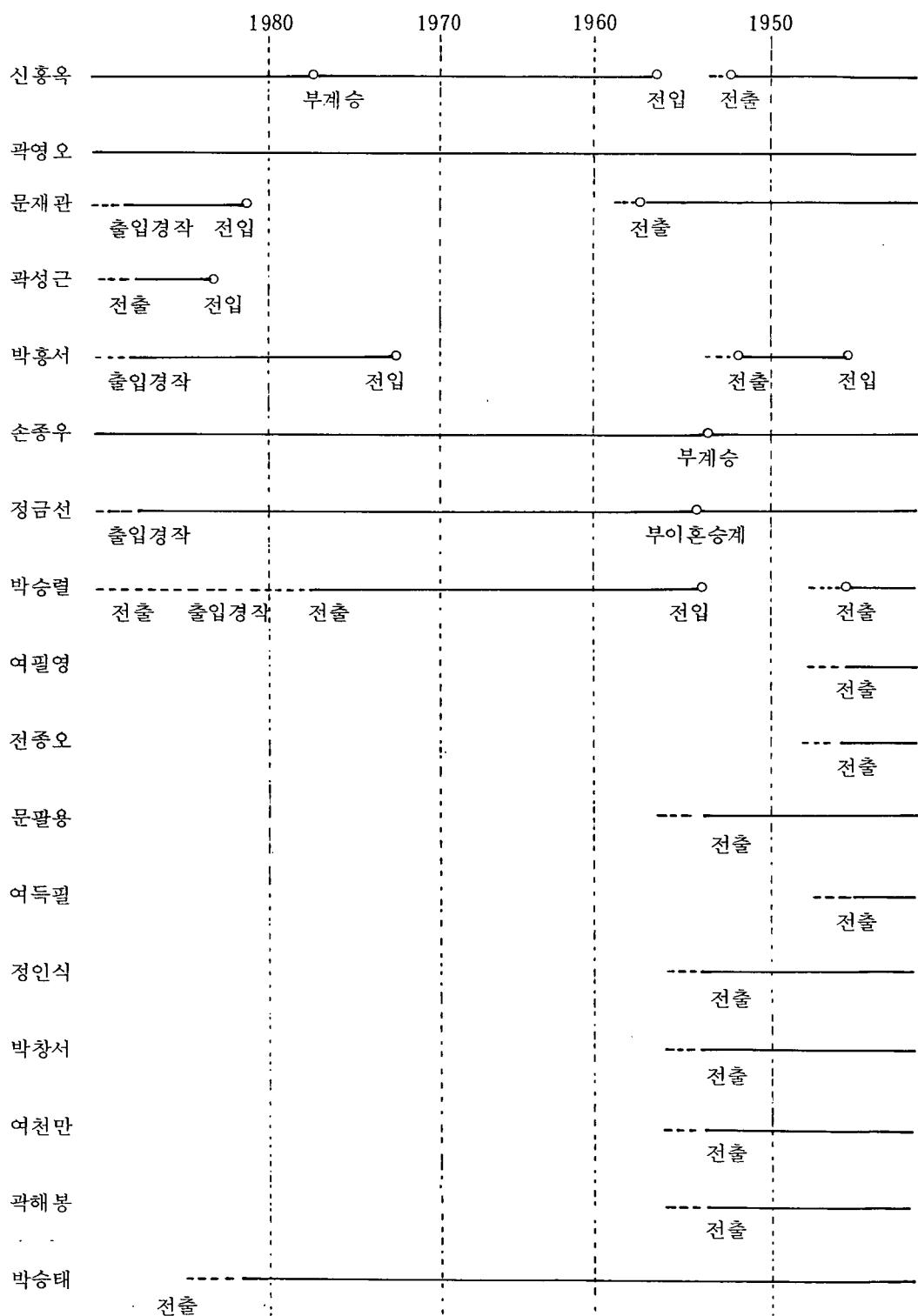
<명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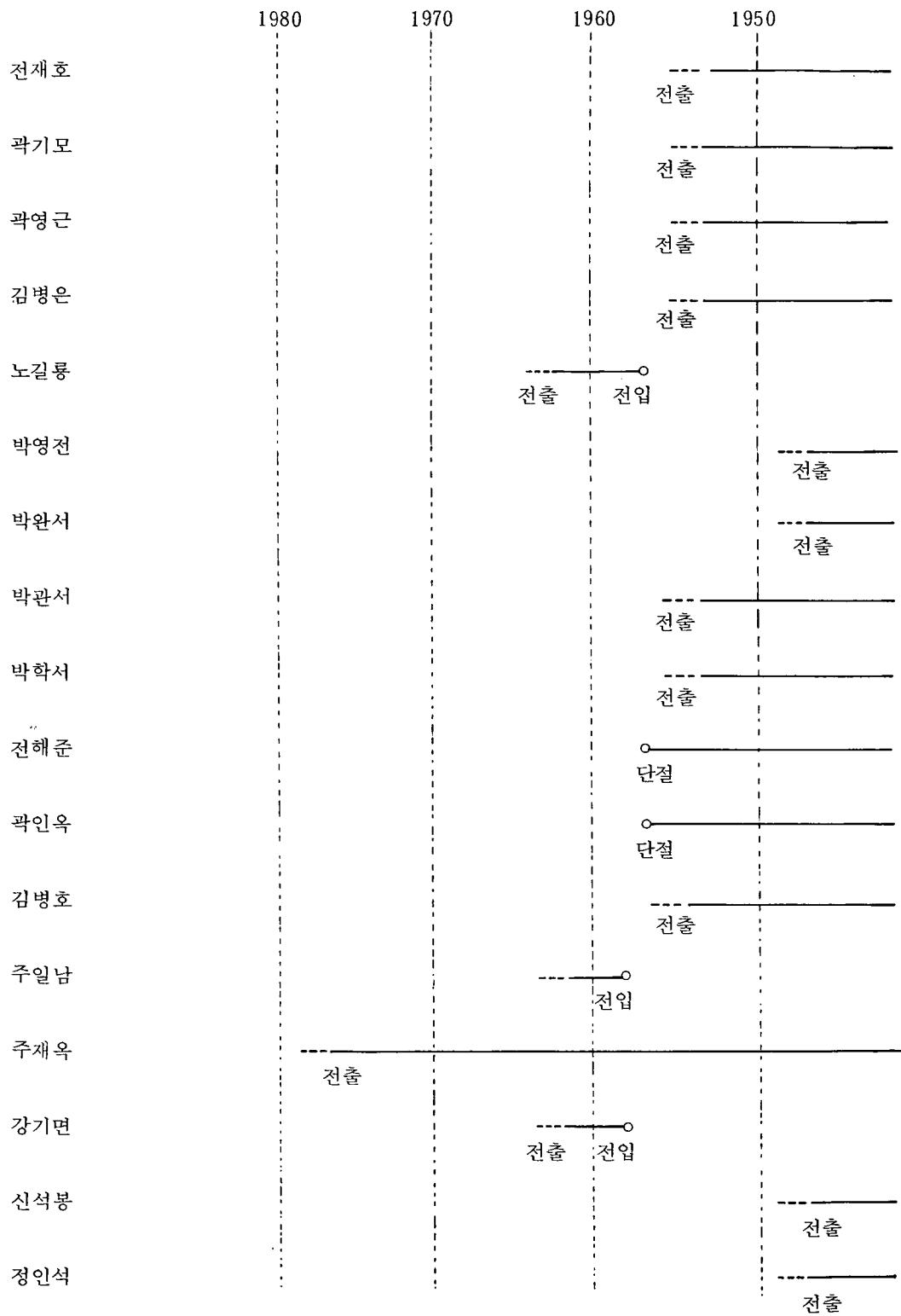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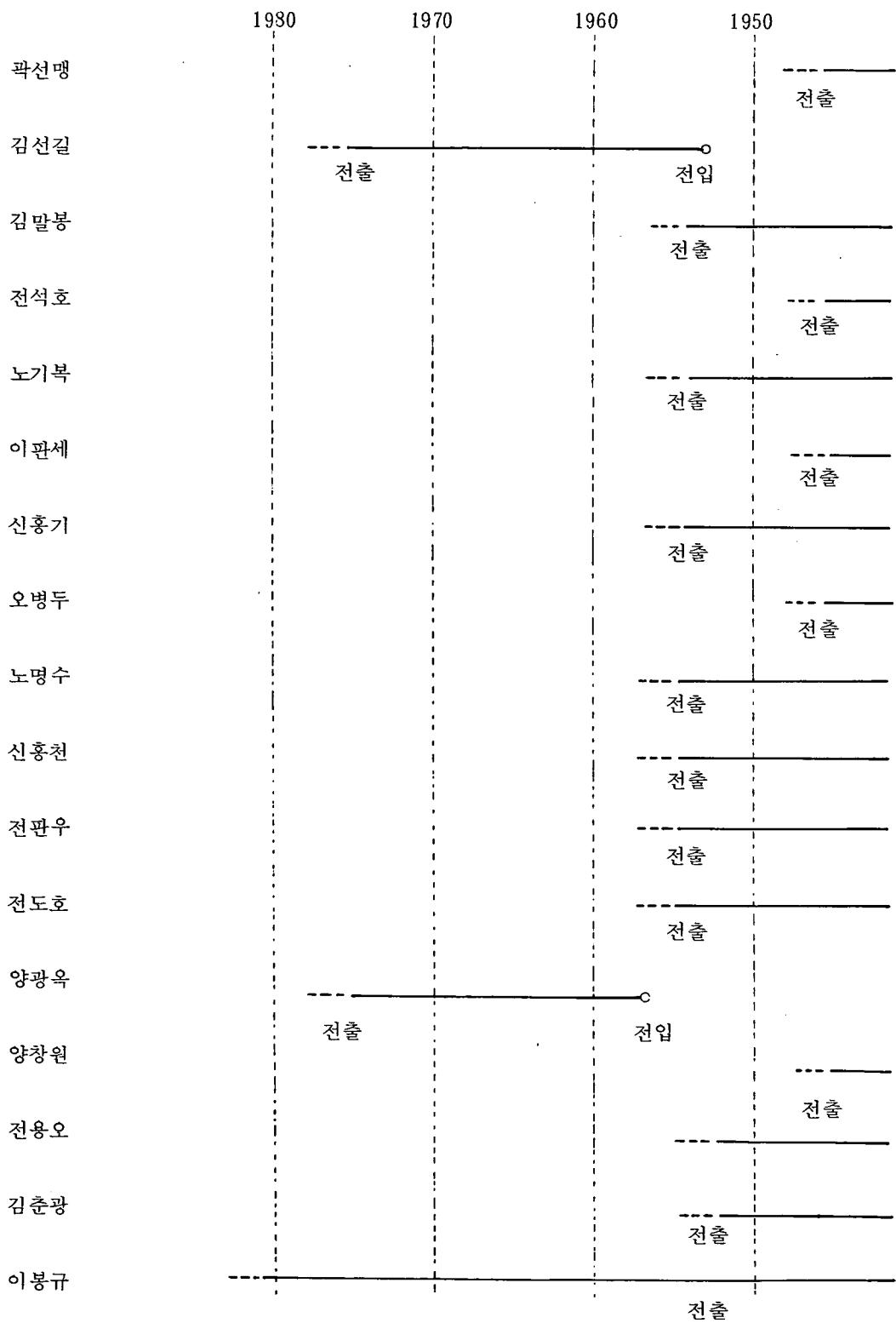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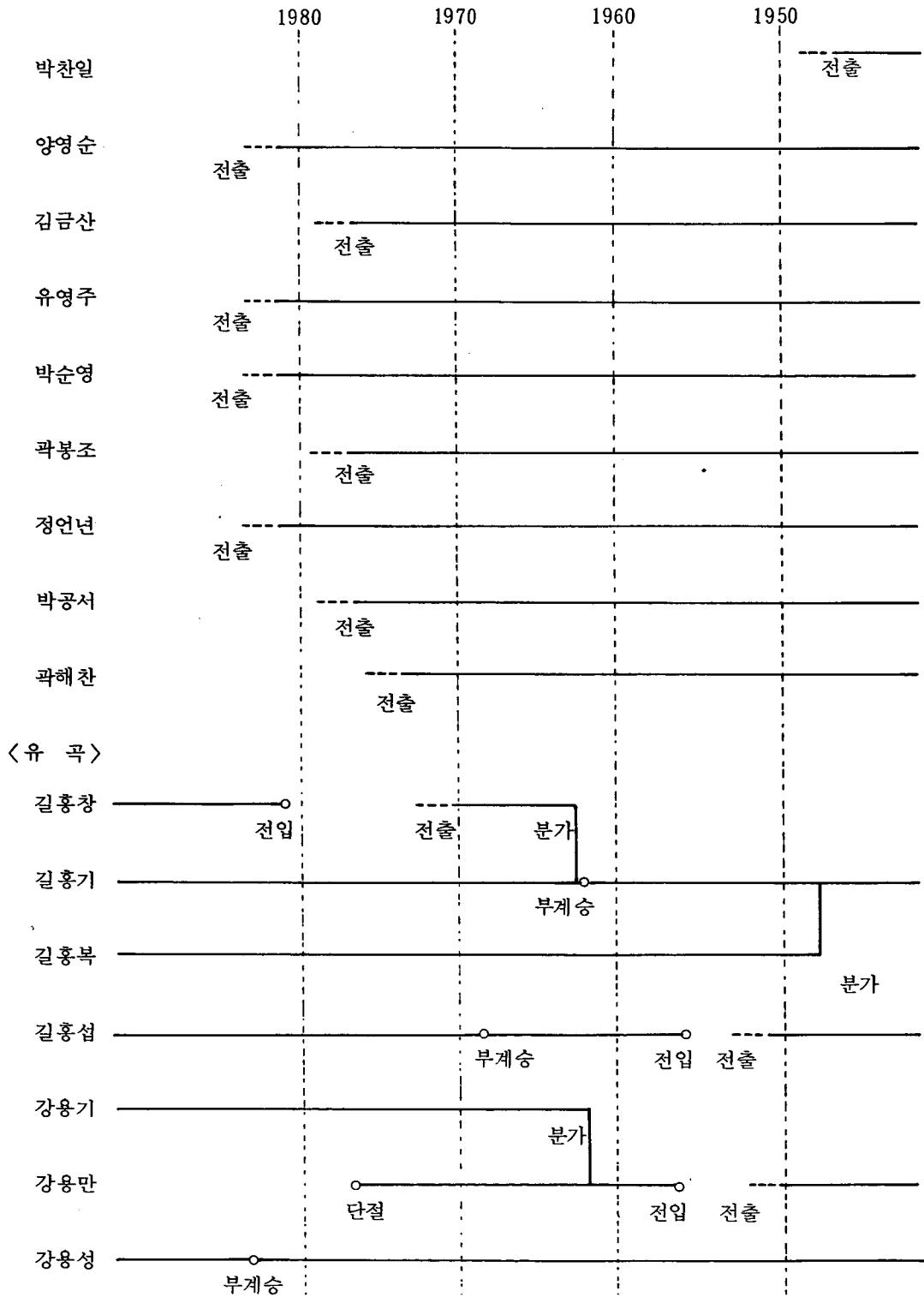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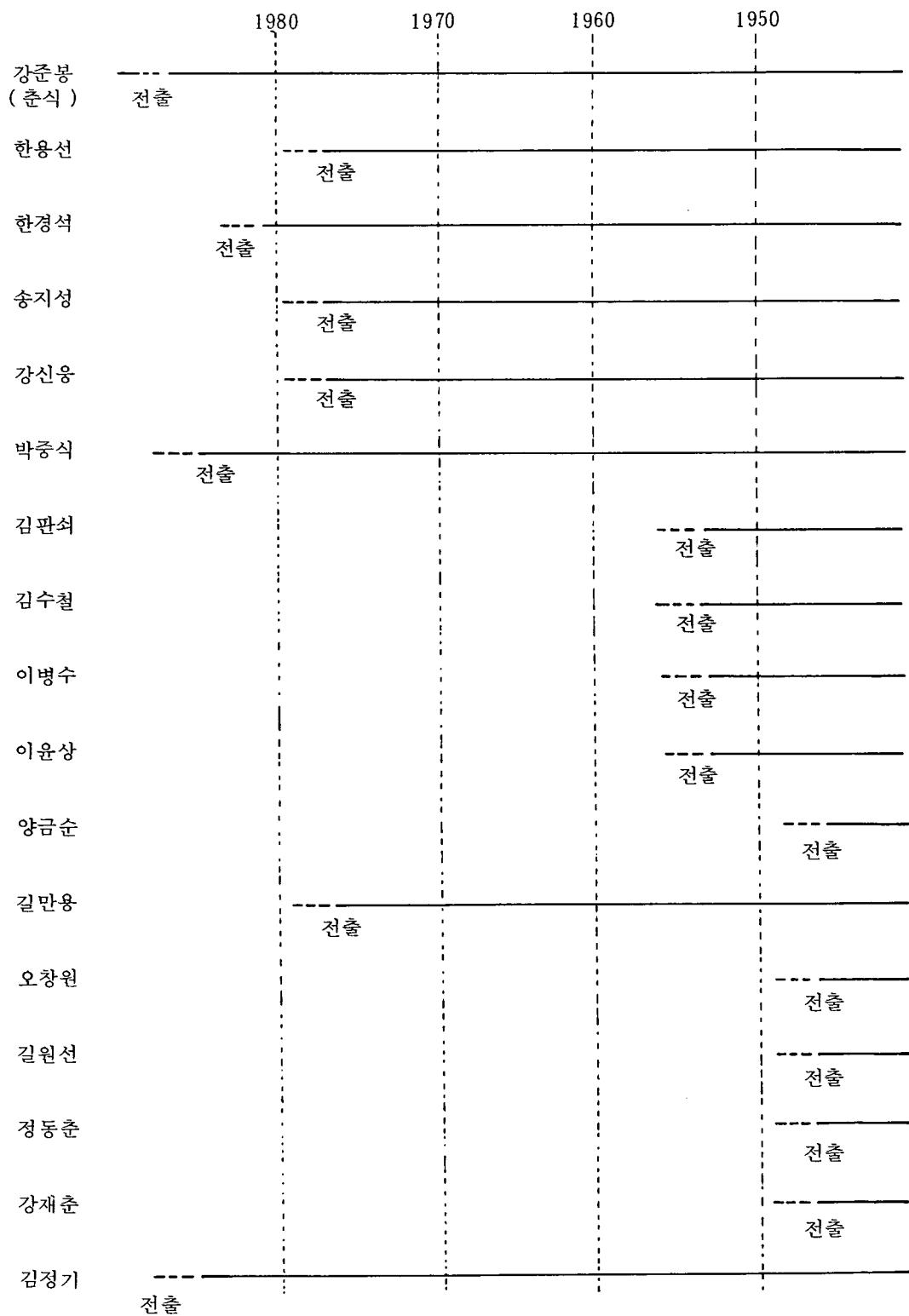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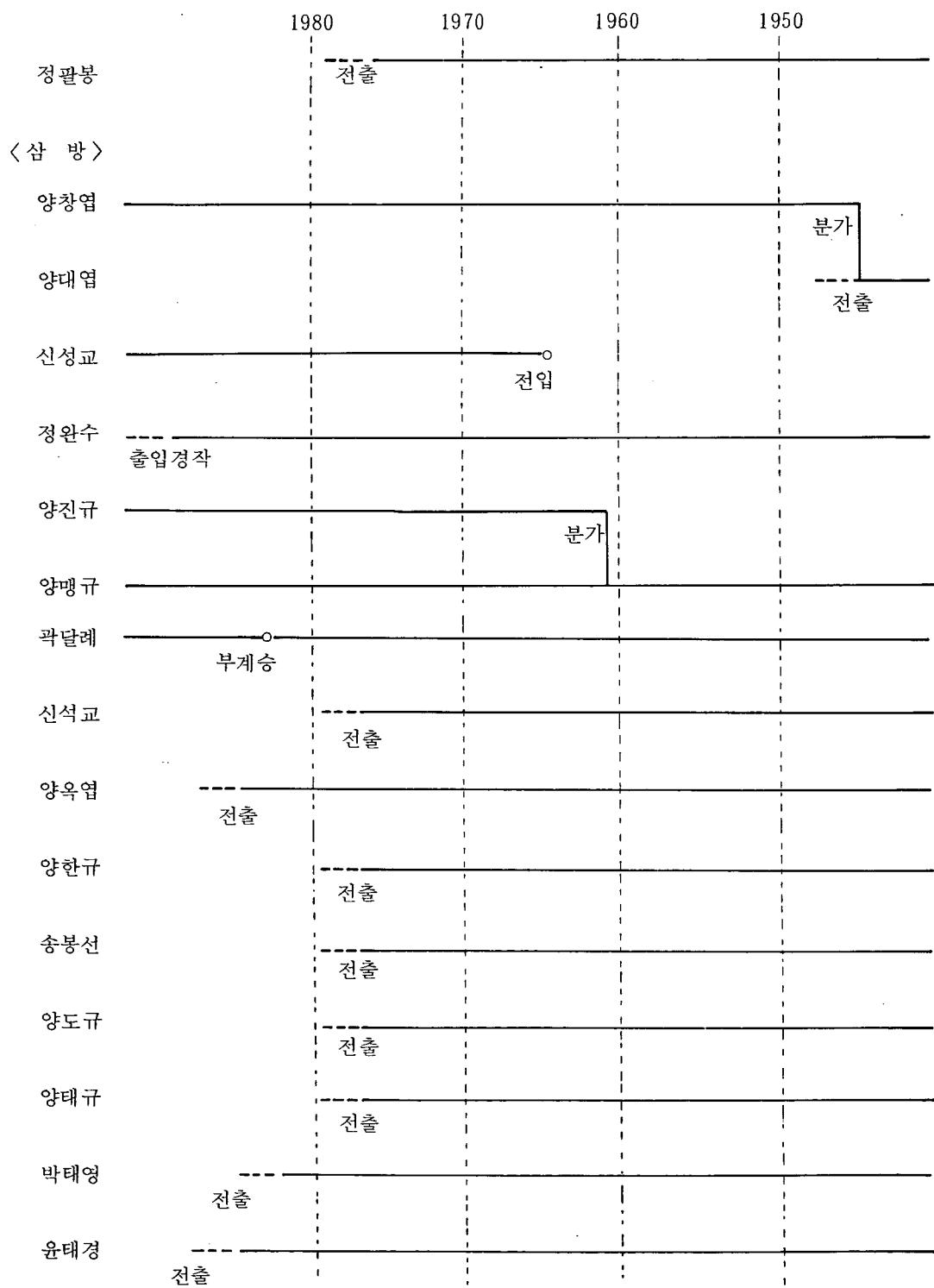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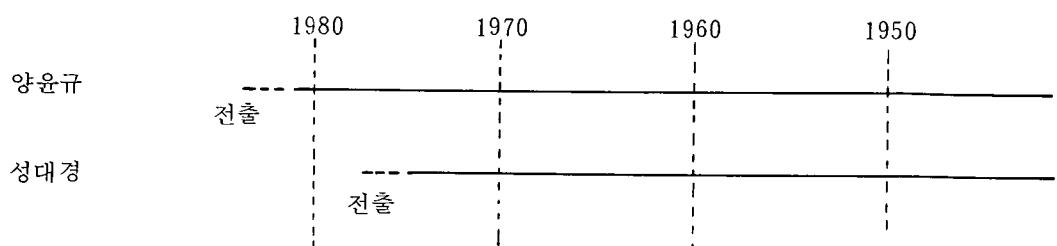












빈

면

M 15 - 14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⑯

山間마을의 社會經濟構造

-錦山郡 南二面 大陽2里 事例-

1989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 - ①⑤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花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한.